

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5. 6. 11. (수요일), 14:00 ~ 19:2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박종익, 성정용,  
신웅주,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영암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	(공 개)
2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공 개)
3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공 개)
4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공 개)
5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 정비	(공 개)
6	의성 금성면 고분군 내 경관조명 등 철거 및 신설	(공 개)
7	진주성 내 진주박물관 안내판 설치	(공 개)
8	강화 참성단 내 노후 헨스 정비	(공 개)
9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공 개)
10	남원읍성 주변 공원 조성	(공 개)
11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2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3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 개)
14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 무장애숲길 조성	(공 개)
15	경희궁지 내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	(공 개)
16	태안 안흥진성 내 국가유산 경관개선	(공 개)
17	강릉 굴산사지 내 범일국사 제향공간 건립	(공 개)
18	파주 혜음원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19	안성 봉업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0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1	안동 도산서원 내 관광안내소 설치	(공 개)
22	창녕 계성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공 개)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공 개)
24	김해 구지봉 내 도시가스 피복 보수	(공 개)
25	강화 갑곶돈 내 잔디 식재 및 헨스 설치	(공 개)
26	강화 외성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 개)

27	강화 외성 주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공 개)
28	경주 문무대왕릉 내 봉길리 관광문화행사	(공 개)
29	경주 효공왕릉 주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신축	(공 개)
<b>【검토사항】</b>		
30	서천읍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31	경주 분황사지 내 사찰지원시설(종무소) 건립 검토	(공 개)
32	경주 대릉원 일원 내외 신라월성연구센터(승문대) 진입로 정비 검토	(공 개)
33	익산 미륵사지 출토 석조 부재 보존 및 활용 계획 검토	(공 개)
34	부여 송국리 유적 내 방문자센터 기본설계(안) 검토	(공 개)
35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주변 정비 검토	(공 개)
<b>【보고사항】</b>		
36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5-06-001

### 1. 영암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영암 시종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위원회 제3차 회의('25.3.12.)에서 사적 지정을 검토한 사항으로 30일간 지정예고('25.4.23.~5.22.) 후 사적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임
- 사적 지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공고명 :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 공고일 : 2025.4.23.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236호)
  - ※ 당초 지정 신청한 면적은 12,686㎡(8필지)이었으나, 지적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13,065㎡(8필지)로 정정 지정예고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1) 영암 내동리 쌍무덤(靈岩 內洞里 雙무덤, 전라남도기념물)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579-1 일원
  - 2) 영암 장동 방대형 고분(靈岩 長洞 方臺形 古墳, 전라남도기념물)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59-2 일원
- (3) 지정명칭 :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Yeongam Sijong Tombs)
- (4) 지정 범위 : 문화유산구역 8필지 13,065㎡(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5) 관리단체(안) : 전라남도 영암군
- (6) 신청사유
  - 전라남도 기념물 「영암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은 삼포천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종 일대 마한~백제 시대의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고분군으로 고분 양식 및 출토유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역동적인 대외

관계를 시사함.

- 또한, 고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고대 세력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게 됨.
-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의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라. 참고사항

###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영암 내동리 쌍무덤]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2.03.10.)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전라남도→국가유산청 : 2022.03.30.)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요청(국가유산청→전라남도 : 2022.05.30.)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전라남도→국가유산청 : 2022.09.26.)
-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2.10.14.)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요청(국가유산청→전라남도 : 2022.10.27.)

#### [영암 시종 고분군]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전라남도→국가유산청 : 2024.01.15.)
-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24.03.27.)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전라남도→국가유산청 : 2024.06.18.)
-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4.08.22.)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요청(국가유산청→전라남도 : 2024.09.13.)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전라남도→국가유산청 : 2024.10.24.)

### (2) 지표·측량조사 및 시·발굴조사 추진현황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명칭	조사종류
1985	전체	영암군의 문화유적(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지표조사
1999~2000	전체	전남지역 고분측량(2000, 전남대학교박물관)	측량조사
2009	장동 방대형 고분	영암 장동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200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시굴조사
2010~2011	장동 방대형 고분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제1호분 발굴조사(1차) (201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2013	장동 방대형 고분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제1호분 발굴조사(2차) (201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명칭	조사종류
2018	내동리 쌍무덤	영암 내동리 쌍무덤 시굴조사 (2019,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시굴조사
2019~2020	내동리 쌍무덤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1,2차) (2020,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2021~2022	내동리 쌍무덤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3차) (2022,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 (3) 주요 학술대회

연도	주최·주관	학술대회 주제
2021	·영암군/(재)전라남도문화재단, (재)고대문화재연구원	○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2023	·영암군/(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 학술대회

### (4) 1차 현지조사의견('22.10.14./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 ○○○, ○○○, ○○○)

- 문화재 지정 명칭에 대한 적합성 검토 필요
  - 문화재청 예규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등에 의거하여 현 신청 명칭의 적합성 검토
- 제출한 지정신청보고서는 발굴 성과를 토대로 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지정 근거는 충분히 제시하고 있으나, 발굴 성과와 더불어 역사적 해석을 통한 유적의 독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거 제시는 미흡하므로 보완 필요
  - 학제적 심화 연구를 위해 학술대회 등 고려
- 고분 조성 주체세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시 필요(마한 소국 중 어느 소국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분 조성시기를 4~6세기로 추측하는데, 고분 조성시기에 따라 마한의 독자성 보유 여부가 판단되므로 조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고분 조성시기를 명확히 한 후, 동 시기의 분묘군과 비교를 통해 ‘영암 내동리 쌍무덤’만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더불어 백제 고분군과의 비교를 통해 당해 고분군이 마한의 독자성을 보유했음을 밝혀야 함.
- 3호, 4호 봉분에 대해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고분 여부 파악 후 분형 등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영암 장동 방대형 고분(옥야리 방대형 고분) 등 영암군 내 타 고분군과의 연계성(조성시기, 조성방법, 조성주체 등) 등을 고려, 성격이 유사한 고분과 함께 연속 유적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5) 2차 현지조사의견('24.08.22./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 ○○○, ○○○, ○○○, ○○○)

- 본 건은 영암 시종 고분군의 사적 지정 현지조사임.
-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바,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군의 주체 세력의 연관성, 시대적 흐름, 고분의 변천, 변천에 따른 대외 변화 등에 따라 영암 지역에 5C 지역 중심세력이 만든 고분의 가치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옥야리 고분군은 현재 발굴 중이며 학술대회 이전이므로 현재는 시종 고분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조사 성과에 따라 재검토 됨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8.22.(목)	대상문화유산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학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성명	○○○	전공 분야	고고학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성명	○○○	전공 분야	고고학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유산 종류	사적		
	문화유산 명칭	영암 시종 고분군 / 靈巖 始終 古墳群) / Yeongam Sijong Tombs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13,065㎡		
		<보호물> 해당없음		
		<보호구역> 해당없음		
보호 관리 사항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별첨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별첨		
종합의견		별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제출자

문화유산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위원 ○○○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전문위원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8.22.(목)
- 조사자 : 문화유산위원 ○○○ · ○○○ · ○○○, 문화유산전문위원 ○○○

### 1. 문화유산 종류

- 사적

### 2. 문화유산 명칭

- 문화유산명 :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
- 내동리 고분군과 옥야리 고분군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한 시종면의 고분군으로서,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 입지

- 영암군은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나주시·함평군, 동으로는 장흥군·화순군과 마주하고, 서로는 무안군·목포시, 남으로는 해남군·강진군과 경계를 이루어 전남의 서남단지역과 중앙지역을 연결해 주는 지역이다.
- 시종지역은 영산강 하구언이 조성되어 간척평야가 되기 이전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바다로 남해만으로 불리웠으며, 영산강 뱃길 중 가장 많은 포구가 하류에 위치하고 하고 있던 지역이다.
- 시종면 내동리와 옥야리는 영산강과 삼포천의 동쪽 저평지에 위치하며, 내동리 쌍무덤은 남쪽의 태봉산(해발 84.2m)에서 북쪽으로 약하게 뻗어나온 낮은 구릉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장동 방대형 고분은 삼포천 상류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 장동 방대형 고분 서쪽으로 801번 지방도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고, 장동 방대형 고분 북서쪽 1km이내에 옥야리고분군과 마한문화공원이 위치하며, 북동쪽 2.5km 거리에 영암 금지리 본촌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 내동리 쌍무덤 문화유산구역 남쪽으로 820번 지방도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동쪽으로 801번 지방도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며, 두 지방도가 만나는 내동리 교차로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820번 지방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시종면사무소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내동리 쌍무덤 1호분을 기준으로 동쪽과 북쪽은 경작이 이루어지는 저평지여서 원경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쪽은 구릉 정상부의 수목으로 경관이 차폐되어 있고, 남쪽은 시가지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 ■ 역사

- 영암군은 삼한시대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추정되며, 특히 시종면 일대에는 고대 마한세력의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이었던 영암은 월나군(月奈郡), 아로곡현(阿老谷縣), 고미현(古彌縣)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시종면이 위치한 영암읍은 군서면, 덕진면과 함께 월나군에 속했다.
- 통일신라시대에도 삼국시대 백제의 3군현과 큰 차이 없이 명칭만 변경되었다. 시종면 일대를 포함한 영암읍은 월나군에서 영암군(靈岩郡), 고미현과 아로곡현은 각각 곤미현(昆湄縣), 야로현(野老縣)으로 개칭되었다.
- 고려시대에는 왕건의 후삼국 통일 후 초기에 지위가 급속히 상승하여 낭주 안남도호부(郎州安南都護府, 성종 14)로 승격하여 현재의 해남군, 강진군 일부와 반남군에 속했던 곤미현까지를 아우르는 큰 군으로 성장했다. 이듬 해 안남도승부가 설치(성종 15)되었으나,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으로 낭주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옮겨졌다가 4년 뒤 폐지되었고, 영암은 지군사(知郡事)가 폐건되는 영암군으로 강격되었다.
- 조선시대 초기 해남과 죽산현, 황원이 분리되면서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현재와 대체로 일치하는 관할지를 갖게 되었다. 행정구역이나 등급의 변화는 거의 없이 지속되었는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영암군 조에 따르면 백제 월나군 아래의 영암지역과 백제 고미현 아래의 곤미지역, 현재 해남군의 북평면인 북평향과 송지면인 송지부곡, 강진군 성전면 일부와 해남군 계곡면, 옥천면 일부 지역이 월경처로 영암에 속해 있다. 반면, 현재의 영암지역인 금정·신북·시종지역은 나주 혹은 진도의 땅으로 구한말까지 존속했었다.
- 1895년 행정제도 개편으로 나주부 영암군이 되면서 나주군에 속했던 금마·원정·비음·종남면과 진도군의 명산면을 편입했다. 1914년의 군면 폐합 당시 옥천시·옥천중·북평시·북평중·송지면을 해남에 이속시켰고, 나주군 세화면의 임천·황계리, 반남면의 하촌·성덕리를 병합했다. 1914년에서 193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면명의 개정이 이루어져 11개 읍·면이 되었고, 1979년에는 영암면이 2003년에는 삼호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어 2읍 9면 121동리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이 위치한 시종면은 본래 영암 지역에 속했으며 영암읍의 북쪽 첫머리가 되므로 북이시면(北二始面)이라 하여 구산·송정 등 5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나주군 종남면·반남면 일부와 완도군 명산면 일부, 북이중면의 일부를 합했으며, 북이시면과 종남면의 이름을 따서 **시종면**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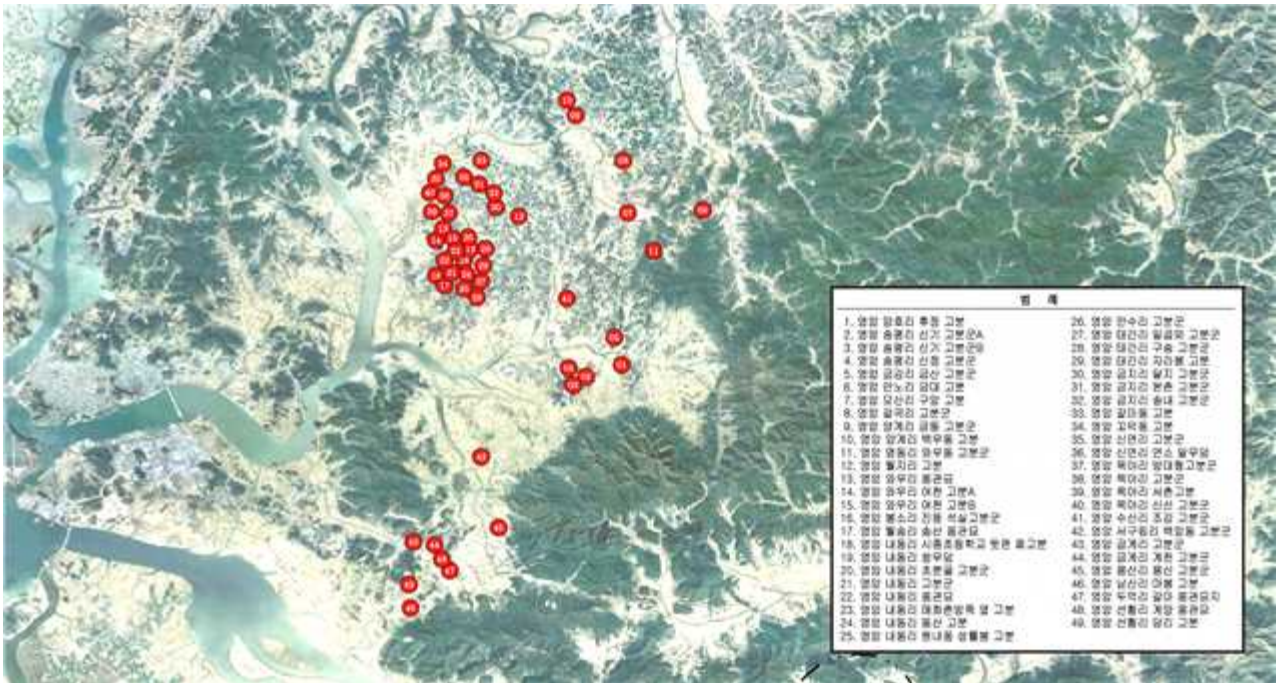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영암 시종면 일대는 전성기 경기·충청·전라 지역을 영역으로 한 마한이 백제에 의해 복속되기 직전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영산강 유역 마한 소국의 하나로 추정된다.
-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 옥야리 고분군이 위치한 시종면 일대는 나주

시 반남면과 인접하여 다수의 고분이 다양한 형태로 밀집 분포하고 있다.

- 영암지역에는 49개소 187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중 시종면에 28개소 104기가 분포하고 있다. 1)

▶ 영암지역 고분 분포현황



- 밀집한 고분군의 분포 양상을 볼 때 당해 고분은 영암 시종면, 나주 반남면, 다시 면을 중심으로 고분 축조 중심 세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 내동리 쌍무덤(1호분)과 장동 방대형 고분에서는 점토를 이용한 구획 축조 분구, 매장주체부의 목재 보강 및 점토 미장 등 독특한 구축방법이 확인되었으며, 주변 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매장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금동관편, 옥류의 치레걸이와 함께 형상식료, 육조청자잔 등의 토기 및 자기 유물도 다량 출토되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삼포천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종 일대 마한~백제시대의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시종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해 바다와 내륙의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 되고, 강과 지천을 통해 내륙으로 선진 요소들을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포구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의 중심지로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이 가능하였고, 이는 토착세력의 성장과 마한~백제시대의 지역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 발굴·복토 등으로 현재 잔존하지 않은 고분을 제외한 기수는 영암군 내 34개소 104기이며, 이 중 시종면에 17개소 50기가 분포함.

이는 영암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분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영암에는 49개소 187기의 고분이 분포하는데, 주로 남해만과 영산강 하류 삼포강의 지류인 삼포천과 시종천 일대에 대형 고분들이 분포한다. 특히, 시종고분군이 위치한 시종면에는 28개소 104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삼포천 유역에는 마한고분 중 가장 중요한 나주 반남 고분군과 영암 시종면 일대 고분군 등이 확인되는데, 주로 삼포천을 향해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와 사면**에 집중 조성된다.

다수 확인되는 시종 일대 고분은 영산강유역 고유의 옹관묘에서 석축묘로 변천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영산강유역 마한사회가 백제를 비롯한 당대 제세력과 관계를 결속하던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 고대사 속에서 지역문화의 존재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영산강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성립과 축조기술 등을 통해 보여준다.

영산강유역 고총고분의 등장은 5세기 중엽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방대형 분구 축조와 관련이 있다. 즉 분형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갖고, 매장시설이 석곽·석실 위주로 바뀌며, 분구 고층화를 위해 입체식 공법과 새로운 축조기술이 반영되는 등 묘·장제적 변화가 확인된다. 고총고분 등장과 함께 조성된 방대형분은 제형분 축조 전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종 고분군 중 장동 방대형 고분은 분구축조를 위해 사전에 점토덩이(토괴)를 이용한 지망상(거미줄) 형태의 축조단위를 구획하고, 봉토를 쌓은 특수한 분구 축조기술이 확인되는데, 계획적 분구설계 및 당대 토목기술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구 축조방식은 영산강유역에서는 4세기 중·후반경 나주 장동리고분을 시작으로 5세기 중엽~6세기 전엽에 나주·영암·무안·해남 지역과 가야·신라지역인 고성·대구·부산 등에서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6세기 중엽에 확인된 바 있으나 영산강 유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시종 고분군은 매장주체부로 **새로운 묘제인 횡구식 석실**이 확인되고, 주변으로는 **전통 묘제인 옹관과 목관**이 매장된다. 횡구식 석실은 내벽에 일정 간격으로 목주를 세워 천장의 하중을 지탱하는 특수한 무덤양식이 보이는데, 이는 석축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지세력의 독자적인 기술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내동리 쌍무덤은 목주를 세운 내벽에 점토를 두텁게 발라 미장하였는데, 영산강유역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이다. 이는 전통적인 옹관묘에서 보이는 합구부의 점토 밀봉과 동일한 관념으로 이해되며, 이는 전통묘제와 외래묘제의 융합을 보여준다.

## (3) 고분양식 및 출토유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역동적인 대외관계를 시사한다.

영산강 하류 삼포강 일원은 포구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의 중심지로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토착세력의 성장과

마한~백제시대의 지역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시종고분군에서는 5세기 중엽을 전·후로 횡구식 석실구조, 고총고분 축조기술, 출토유물 등에서 재지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외래 요소를 수용하여 현지화된 독특한 장례문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다양한 계통의 장례문화 요소들은 영산강유역 마한고분의 상대편년 기준자료가 된다.

출토 유물에 있어 장동 방대형 고분에서는 현지 유물과 함께 삼각관갑편 등 외래의 갑주부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지화한 외래의 원통형 토기로 분구를 장식했던 흔적도 확인된다.

또한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지역 고유의 유물과 함께 금동관 세움장식, 중국 육조시대 청자 잔, 동남아시아산 연리문 유리구슬을 부장하였고, 일본열도와 유사한 동물형상의 분구 장식토기 및 원통형 토기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부장되었다. 이는 다양한 경로의 대외관계를 통해 도입한 문화요소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4) 고분 변천과정을 통해 백제와 시종지역 고대세력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게 된다.**

시종 지역은 제형분 단계(3세기 중·후엽~5세기 전엽) → 고총고분 단계(5세기 중엽~6세기 전엽)로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여 마한의 고분문화 변천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4세기 대는 옹관고분이 밀집·분포되어 초기 옹관고분 사회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으로 옹관고분의 다장 풍습 강화는 분구 축조기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5세기 중엽 고총고분이 출현함을 상징한 장동 방대형고분, 이후 더욱 견고한 횡구식 석실 구조로 변화한 내동리 쌍무덤, 분구의 상징성을 전방후원형으로 표상한 자라봉고분 등은 매장시설, 축조기술, 다양한 계통의 요소들이 절충된 외래계 유물부장 등에서 상호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러한 양상들은 시종 토착세력이 다양한 경로의 대외교류를 통한 선진적인 고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토착화한 마한~백제시대 지역문화의 역량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종 일대가 마한 소국으로 비정될 만큼 성장한 과정은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한 선진문물의 수용·교류 이외에 5세기 중·후엽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5세기 초 고구려 남하정책으로 백제 중앙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자, 내륙의 시종 토착세력들은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신라-가야-중국-일본과 대외교류를 지속하면서 성장하였다. 특히 서·남해안가를 중심으로 활동한 왜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급부상하였다.

시종 토착세력들은 백제와 주변국 사이에서 정치·경제적 이점을 가지며, 외래문화 수용을 통해 위상이 높아지고, 시종 지역은 거점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연안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하였던 곳은 영암 시종 일대였으나

5세기 중엽 이후 점차 영산강 수로를 통한 내륙 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삼포강 중류인 나주 반남과 영산강 중류인 복암리 일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반남 일대는 내륙의 연안항로와 연계되기는 어려운 입지로 포구도 발달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복암리 일대는 회진포와 같은 포구를 갖추고 있어 백제가 영산강 상류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나주 복암리 96호 석실의 금동신발과 석실 축조방식, 정촌고분의 금동신발과 가장 이른 백제계 석실 및 목관(금송), 복암리 3-9호 사비기 석실, 복암리 3-5·16호, 흥덕리·송제리 고분의 은화관식 등이 증표이다.

이는 백제에 의해 나주 복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거점이 편입되면서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영산강 유역 내륙 수로를 통한 대외 교통로에 근본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동시에 백제의 지방 지배가 직접 지배방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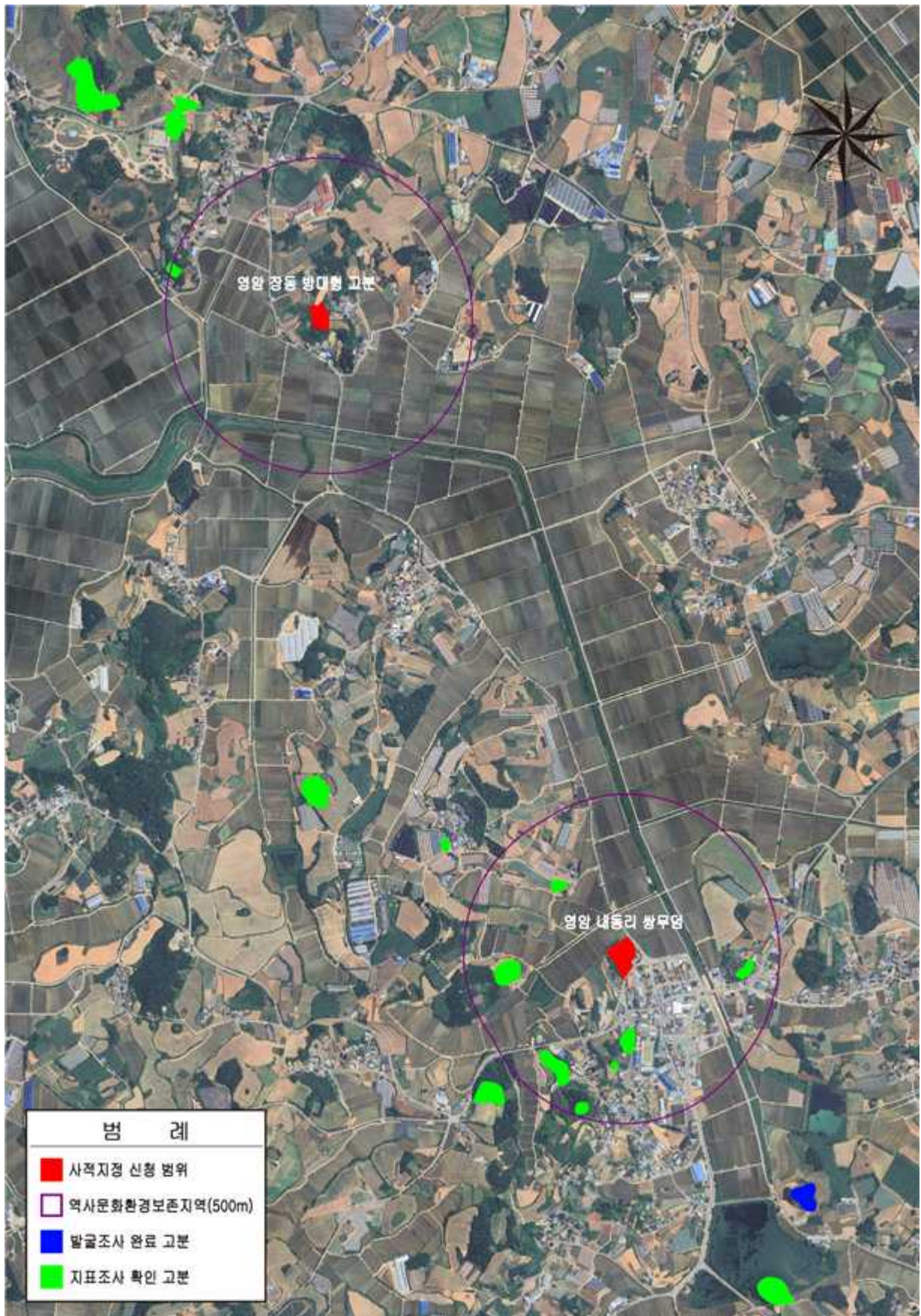
## 6. 지정 대상 및 범위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지정구역)

지정면적:13,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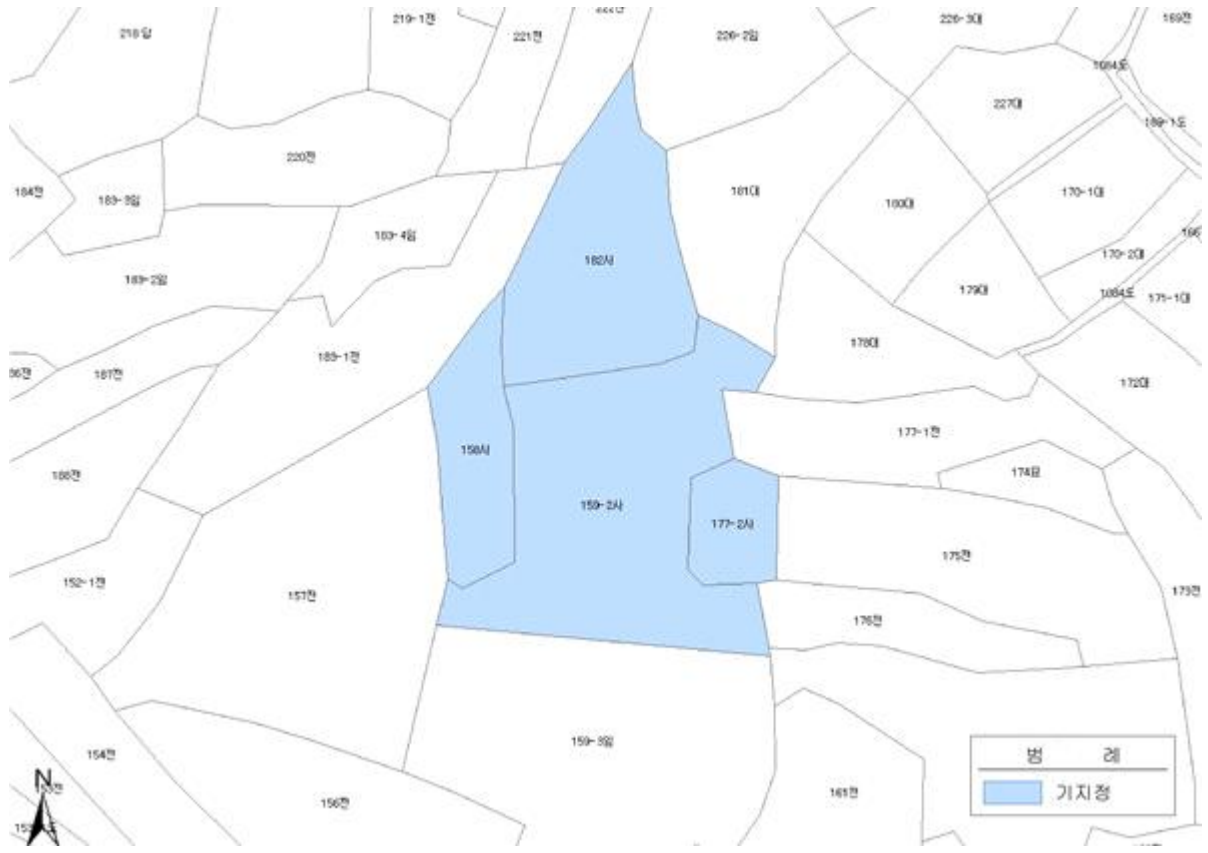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59-2	사	4,340	4,340		
2		183-4	임	582	582		
3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579-1	사	7,175	7,175		
4		579-2	사	99	99		
5		579-9	임	92	92		
6		579-10	임	90	90		
7		579-18	임	387	387		
8		588-5	사	300	300		
계				13,065	13,065		

□ 문화유산 지정구역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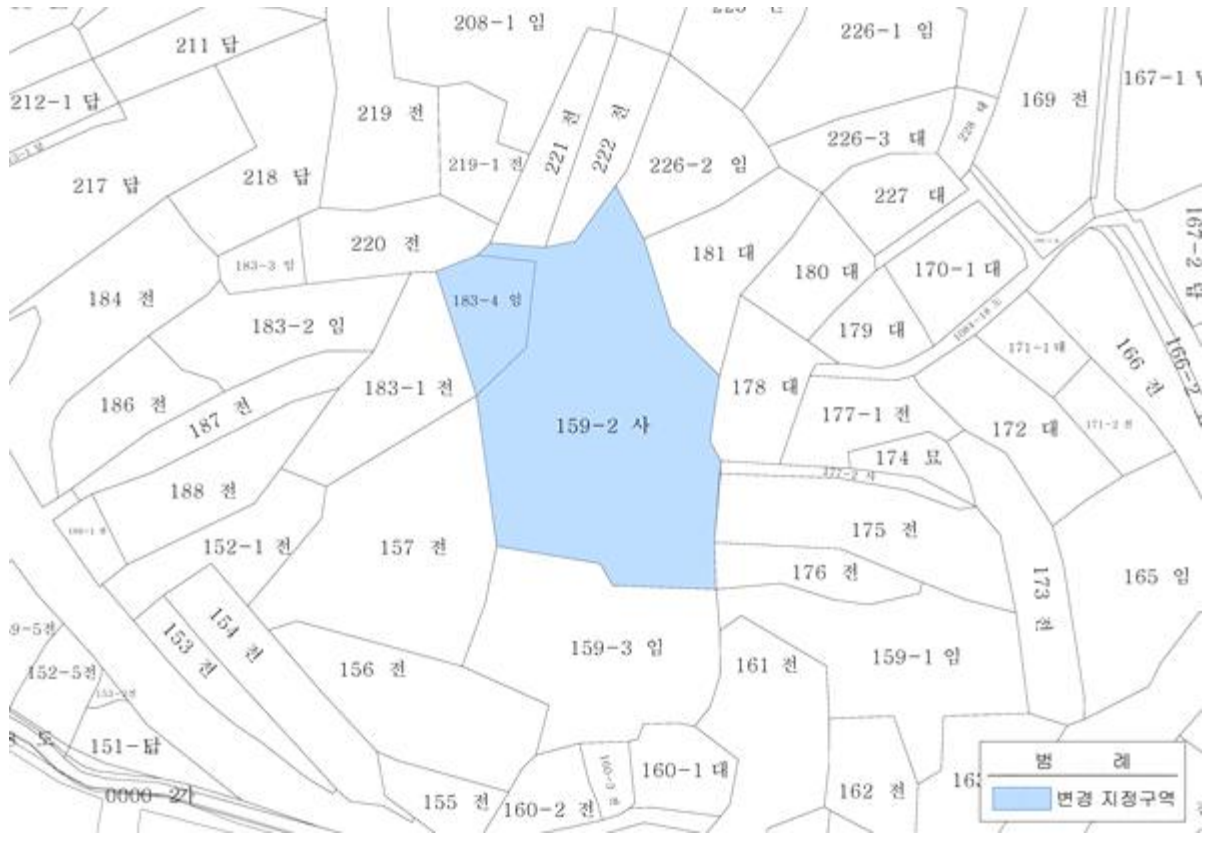


가. 영암 장동 방대형 고분

○ 시도기념물 지정구역 현황(지적재조사 실시 전)



○ 사적 지정구역(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 나. 영암 내동리 쌍무덤

○ 시도기념물 지정구역 현황(지적재조사 실시 전)



영암 내동리 쌍무덤 문화유산 구역 기지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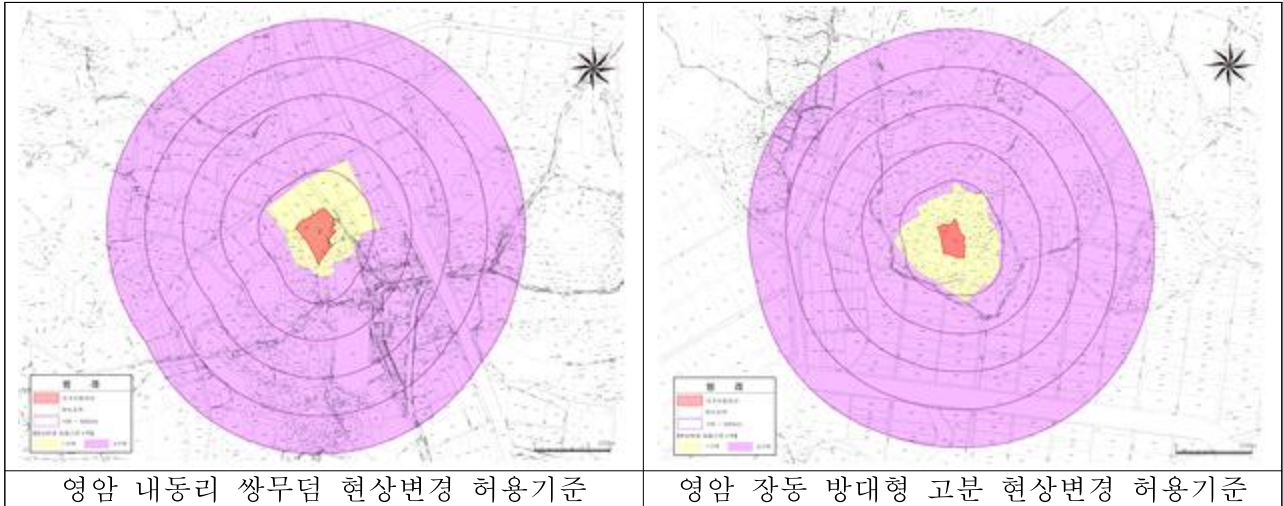
○ 사적 지정구역(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영암 내동리 쌍무덤 문화유산 구역 지정 범위

## 7.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평지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경관을 고려한 허용기준 수립이 필요함.



구역	허용기준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태양광, 야간조명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빛공해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 사전 협의함</li> </ul>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 보존·정비 방안

#### 1) 정비의 개념과 목적

- 정비의 개념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남기고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의 개념과 그 가치를 교육 및 관광 등에 사용하는 ‘활용 및 관리’를 포괄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에서 사용하는 정비의 정의는 ‘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극대화하기 위해 유적과 유적 주변에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 함
-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유적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교육 및 관광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 고분의 정비에 따른 유형분류

- 고분의 정비 유형은 정비의 단계 및 활용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 고분 정비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	내용	경관 및 활용방안
활용형 고분 (보존+활용+관리)	시군의 주력 관광사업으로써 전 시관 건립까지 이루어져 스토리텔링과 관람객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유치가 가능한 곳	· 경관(잔디식재, 배수방법, 관련시설의 배치, 주변 건물의 외관 등) · 활용방안(유적안내판, 휴식시설, 화장실, 유적동선, 주차장, 도로포장, 전시관, 축제 등)
정비형 고분 (보존+관람+관리)	잔디식재 및 관광해설자 배치, 주차장, 도로포장, 팜플렛 배포 등이 이루어진 유형	· 경관의 상태(잔디식재, 배수시설방법, 관련 시설 등의 배치) · 활용방안(유적안내판, 휴식시설, 화장실, 주차장, 팜플렛 구성, 도로포장, 관광해설자의 교육 및 활용, 유적 동선 등)
관리형 고분 (보존+관리)	현상 유지가 이루어져 고분의 영역과 잔디 식재 등이 가능한 고분 유형	· 최소한의 경관 유지(잔디식재와 배수시설방법) · 잔디식재 및 편의 시설의 방향(유적안내판, 벤치, 유적 동선, 고분호수 표시)
보존형 고분 (지정유지)	현상유지 조차 힘들어 토지매입 미치 정비가 필요한 고분 유형	· 최소한의 경관 유지(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 주변 토지허가 규제) · 최소한의 관리 및 활용(유적안내판)

## 3) 정비원칙

- 원형유지의 원칙
  - ▶ 문화유산 보존의 가장 큰 목적은 본래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시키거나 없애서는 안된다. 문화유산의 향유와 교육 및 활용은 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교육 및 활용이 문화유산 보존을 상회할 수는 없음.
  - ▶ 고분의 원형 유지는 어디까지인지는 고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고분의 원형 유지는 어디까지인지는 고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시대에 따라 변천되어온 유적을 어느 시기를 원형으로 보느냐 하는 것도 매우 편차가 클 수 있다.
  - ▶ 고분은 시대별로 여러 층위가 누적된 것이 많다. 전시대 고분을 후대 것이 파괴하고 들어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층위를 원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여러 층위를 같이 존중하여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공개의 원칙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모든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권리가 있음.

- ▶ 그러나 문화유산의 망실이나 소실이 예상되면 공개를 제한 할 수 있음. 공개의 원칙도 역시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앞지를 수 없다. 공개를 위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적과 유물에 인공적이고 물리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유적의 보존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존을 너무 강조하면 활용 원칙이 소홀해지고 활용을 강조하면 유적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관리의 원칙

- ▶ 효과적인 보존과 공개를 위한 활용은 '관리'를 전제로 한다. 관리는 유적·유물에 대한 물리적인관리와 전시관 및 박물관의 경영을 위한 행정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비유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고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 관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 관리와 비상시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4) 정비유형의 수립

- 정비유형은 고분의 성격, 규모, 위치, 유물의 성격 및 분량,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있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유형 결정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비유형의 수립과 유형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정비유형	고분의 특성	고려사항
활용형	성격	- 왕릉이나 귀족의 무덤 - 지역성과 시대성을 대표
	위치	- 도심 및 근교에 위치하여 예상 관람객이 많음 - 교외에 위치하지만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 가능
	규모	- 일정 수량 이상이 군집되어 있음 - 단독형 고분이지만 규모가 매우 큼
	유물	-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필요로 할 정도로 많음 - 발굴을 통해 유물을 확보할 수 있음
	유적	- 유적의 구조와 형식을 실물로 볼 수 있음 - 유적의 구조와 형식을 실물로 볼 수 없으나 형태 추정 가능
정비형	성격	- 왕릉이나 귀족의 무덤, 민묘 - 지역성과 시대성을 대표
	위치	- 도심 및 근교에 위치하여 예상 관람객이 비교적 많음 - 교외에 위치하지만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 가능
	규모	- 일정 수량 이상이 군집되어 있음 - 단독형 고분이지만 규모가 매우 큼
	유물	-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필요로 할 정도의 유물이 없음 - 발굴을 통해 유물을 확보할 수 없음
	유적	- 유적의 구조와 형식을 실물로 볼 수 있음

정비유형	고분의 특성	고려사항
		- 유적의 구조와 형식을 실물로 볼 수 없으나 형태추정이 가능
관리형	성격	- 왕릉이나 귀족의 무덤, 민묘
	위치	- 도심에 위치하지만 관람객이 비교적 없음 - 교외에 위치하여 관람객이 비교적 없음
	규모	- 단일 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도임
	유물	-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필요로 할 정도의 유물이 없음 - 발굴을 통해 유물을 확보할 수 없음 - 오랜전에 발굴하여 유물이 다른 곳에 있거나 소실됨
	유적	- 유적 발굴하지 않아 구조와 형식을 알 수 없음
보존형	성격	- 문화재 보본의 가치가 인정됨 - 유적의 평상관리가 매우 어려움
	위치	- 도심 또는 교외 - 유적 보존 지역이 사유지이며 단기 매입이 어려움 -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규모	- 관계없음
	유물	- 거의없음 - 발굴할 계획이 없음
	유적	- 형태를 현상유지하는 정도 - 지하 매장유구보존이 시급함

## 나. 보존관리 및 정비 계획

### 1) 고분군 기본 정비·관리

- 유적 복원시 분구의 형태는 발굴조사 전 분구 측량 조사된 원형으로 복원하고, 지표식물을 피복한다. 필요시 배수로를 설치하고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에는 경계 시설을 설치한다.

#### ① 정기적인 벌목·제초작업

- ▶ 시종고분군 일원은 매년 많은 잡목과 잡초가 자라고 있다. 이는 고분의 경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잡목의 뿌리가 고분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분군 내의 식생조사를 통한 잡목과 잡초제거는 유적 보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 정기적으로 벌목·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② 고분표식 설치 및 안내판 정비

- ▶ 현재 시종고분군의 개별 고분에 대한 표식이 없어 방문객에게 고분의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고분에 대해 표식을 설치하여 고분의 위치 확인과 함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보존할 계획이다.
- ▶ 한편, 시종고분군의 안내 표지판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분군 정비 후 체계적인 안내 표지판의 보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방문객에게 지난 발굴조사 상황과 노출 유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굴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 ▶ 안내 표지판은 탐방로 입구 쪽에 설치하고, 고분군의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세부 안내판은 고분군 내부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안내판은 전문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읽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진과 도면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그림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고분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 ▶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유구별로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며,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QR·AR 기술을 연동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평면만 남은 유적에서 입체를 연상할 수 있도록 복원 예상도를 AR기술로 재현하여 서비스 하고자 한다.

### ③ 고분군 탐방로 설치

- ▶ 현재 고분군에 설치된 탐방로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분군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탐방로를 조성함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탐방로 조성보다는 소로 규모로 탐방로를 조성하되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조성하고자 한다.
- ▶ 탐방로의 폭은 약 1m 정도로 하며 바닥은 박석과 잔디, 친환경 매트 등 주변과 이질적이지 않고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인위적인 탐방로 개설보다는 기 조성된 산길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신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자연스러운 산길 형태로 조성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 ▶ 탐방로 주변에는 탐방객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주변 전망이 좋은 몇 곳에 간이 벤치나 휴식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④ 고분군 주변지역 경관 정비

- ▶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에 경작시설이나 농가주택, 민묘 등이 위치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설의 점차적인 이전 정비를 통해 고분군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주변을 관리하고자 한다.

### ⑤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 시종고분군의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적의 자원화를 위한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계획적인 복원·정비 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종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국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2) 시설계획

### ① 봉분 경관조명 설치

- ▶ 시종고분군의 봉분 복원과 함께 야간경관 확보를 위해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종고분군의 야간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하고 하나의 야경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야간조명은 주변 마을에 미치는 빛 공해나 동식물에 주는 생태환경 피해 등이 우려되어 상시 조명보다는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② 방문자 센터 및 유적 전시관 건립

- ▶ 인근 3.3km에 위치한 마한문화공원에서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분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시종고분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다.
  - ▶ 시종고분군의 체계적인 교육적 활용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방문자 센터 및 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시종고분군의 중요성과 출토유물 현황 등을 볼 때 유적의 관리와 향후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고분군과 인접한 곳에 유적 전시관의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
    - 방문자센터 : 시종고분군의 가치와 중요성을 방문객에게 전시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또한 주차장과 방문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시종고분군의 보존·관리와 역사 체험교육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 유적 전시관 : 각종 전시 및 교육시설, 수장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자 한다. 주차장의 경우, 대형버스의 주차가 가능토록 대형버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일반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 ▶ 센터 및 전시관 건립은 많은 비용과 운영재원 확보가 요구되므로 철저한 기본 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 ▶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소요 문제로 별도의 전시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마한문화공원 전시관 내시종고분군에 대한 전시시설을 별도로 조성하여 유물 전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도록 제안한다.
- 예시) 마한문화공원 주체로 전시관-영암 옥야리 고분군-영암 시종고분군(내동리 쌍무덤+장동방대형고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파주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출처 : 파주시청)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출처 : 부산시민공원)

### ③ 편의시설보완

- ▶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벤치 및 그늘막을 조성하여 관람객 휴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 ④ 포토존 조성

- ▶ 포토존은 단지 공간을 구성하고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조형물(포토존)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난 후 추억을 심어주므로 공간과 어우러지면 서도 주요 테마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고자 한다.

## 다. 활용계획

### 1) 체험 프로그램

- 시종고분군과 마한문화를 주제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생생국가유산’ 운영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① 유적 탐방 투어 프로그램

- ▶ 현재 시종고분군의 경우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하는 역사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역사관광 차원의 관광 프로그램이 없다.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유적 차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는 정기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영암 옥야리 고분군과 나주 복암리·반남 고분군 및 자미산성 등과 연결하여 마한유적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 이러한 마한유적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시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동반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 드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 고분군의 전체 모습이나 중요한 유구 배치관계 등을 설명하는데 드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과 주관은 방문자 센터 및 유적 전시관에서 담당하고자 한다.

#### ② 지역 학교 연계 마한유적 체험교실 운영

- ▶ 유적 전시관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학교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또는 역사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적 체험 및 역사교육 현장교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 ▶ 체험교실에서는 시종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여 영암지역 주요 고분군을 소개하고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분군의 각종 유형이나 구조 등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하여 마한유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 마한유적 발굴 체험장을 전시관 야외에 설치하여 연계 운영하고자 한다.

#### ③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한유적 관광 프로그램 운영

- ▶ 시종고분군의 역사교육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의 각종 축제 개최 시 시종고분군을 홍보하고 유적 방문을 유도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 ▶ 시종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홍보하여 영암지역의 많은 축제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종고분군과 주변지역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 영암군 차원에서 개별 축제장과 고분군을 연결하는 투어버스 운영이나 관광 책자·인포메이션 제공 등 고분군 방문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 ▶ 정비유형의 수립과 유형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구분	세부	내용
체험	탐방프로그램	나주와 영암에 위치한 마한 고분을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
	발굴체험	내동리 쌍무덤의 발굴 현장을 살펴보고, 발굴체험을 통해 고고학 분야와 고고학자 직업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
	생활체험	내동리 쌍무덤에서 출토된 유물과 관련 생활양식(복식 등)을 복원, 모형으로 재현하여 당시 마한문화와 생활에 대해 이해
	야간산책	경관조명을 따라 걷는 야간 산책 프로그램
	캠핑·피크닉	고분을 활용한 1박2일 캠핑, 당일치기 피크닉 프로그램
	청소년 봉사연계	고분 안내 서포터즈 구성 및 1365 자원봉사 연계
	AR체험	AR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 가상의 수장고 방문
교육	강연	지역민 대상 '내동리 쌍무덤과 마한문화' 강연
	교과연계	초·중등 교과 연계

## 2)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

- 지역과 유적의 고유성을 지닌 캐릭터 활용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캐릭터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영암 시종고분군 또는 마한역사문화 및 출토유물 등을 주제로 한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 및 기관, 유적만의 독자적인 캐릭터와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채널 홍보, 연계 문화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 독자적인 문화상품 개발은 유적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구매하여 각 가정으로 가져가거나, 온라인으로 구매·배송 받아 개별적으로 소장 또는 체험할 수 있다.
- 관람 및 체험 후 방문 기억을 상기시키는 모델로 체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전시가 가능한 형태로 향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다. 또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에 캐릭터를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상시로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유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내가 그리는 반가사유상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샵)



국립경주박물관 토우 캐릭터  
(출처 : 국립경주박물관 공식블로그)

## 9. 종합의견

- 본 건은 영산강 본류와 삼포강, 그리고 남측의 지류까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영암 시종면에 위치한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의 영암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영암은 고대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서 내륙과 해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 및 교역의 요충지로 시종지역은 영산강 본류와 그 지류인 삼포천, 영암천이 만나는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삼포만과 같은 주요 항구와 인접하여 당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을 통해 선진 문물과 기술이 유입하고 이를 강과 지천을 통해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이 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은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영산강 유역 마한의 특징과 함께 백제, 가야, 왜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갖춘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전엽 조성된 시종 고분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영암 지역 전체에는 총 49개소, 187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시종 지역에는 28개소, 104기의 고분이 집중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이번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영암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 방대형 고분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고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음.
  -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표지적 자료는 대형 옹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옹관분이었으며, 그 동안 시종 지역은 제형분 단계의 초기 옹관인 3세기 중반의 영암 선황리 옹관을 시작으로 옥야리 고분군, 신연리 고분군 등 4세기 대 옹관고분이 밀집·분포되어 초기 옹관고분 사회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임.
  - 그러나 제형분 축조에서 5세기 중엽이후 분구의 고층화가 시작되어 횡구식석실묘와 석곽묘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묘제 등 선진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형한 흔적이 나타남.
  - ‘장동 방대형 고분’은 5세기 중엽에 완성형의 방대형 분구를 축조하고, 분구를 고층화하기 위해 점토덩이(토괴)를 사용하여 지망상(거미줄) 형태로 분할 성토하였으며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묘의 과도기적 특징인 횡구식석실묘를 축조하고, 석실 내벽에 목주를 설치하였으며, 석실 축조와 동시에 분구를 성토하는 등 변화된 축조기술이 확인됨.
  -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로 편년되는 ‘내동리 쌍무덤’은 횡구식석실 내벽에 목주를 설치한 후 벽체를 점토로 미장하는 등 더욱 견고한 구조가 확인되며 횡구식석실묘는 일본 고분 양식과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석실 벽에 목주를 세우고 점토로 미장한 방식은 지역적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음.
-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은 시종면 지역 고분 중 영산강 유역 마한 고유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5세기 중엽부터는 거대한 방대형 분구와 매장주체부로 황구식 석실로의 변화와 지역 고유의 유물(재지계 토기)과 함께 현지화한 외래계 유물(원통형 토기 등)와 다양한 계통의 외래계 유물 등의 부장품 등을 통해, 당시 이 지역 세력이 주변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 백제의 중앙 통치 상황에서도 독립성과 정치적 위상을 유지한 권력 구조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고분임.

\* 시종고분군 외래계 출토 유물

구분	백제	가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장동 방대형 고분	-	유공광구소호, 고배	동물형상토제품 (하니와), 철갑편, 철모, 철촉	-	유리 옥
내동리 쌍무덤	직구호, 통형기대, 병, 유개고배, 삼죽기, 금동대관·영락 파편	광구호, 수평구연호, 유공광구소호, 대부장경호, 삼각투장고배, 기대	스에키계(유공광구소호·개배·자라병·호), 인물·동물형상 토제품	청자잔 (백제수입)	채색옥, 금박유리옥, 곡옥, 금동유리옥 등

- 발굴조사는 장동 방대형고분의 경우,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2회를 통해 평면형태는 방대형, 규모는 길이 29.9m, 너비 26.3m, 높이 3.7m임. 매장시설은 분구 중심부에서 석실묘 1기, 분구 사면을 따라 석곽묘 1기, 옹관묘 4기, 목관묘 1기, 매납유구 1기가 확인됨. 매장주체부는 점토덩이(토괴)로 구획하여 분구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석실을 축조하고 다시 피복하여 분구 성토를 완료함. 반면 분구 사면에 조성된 석곽묘, 옹관묘, 목관묘는 추가장으로 분구를 완전하게 성토한 후에 되파기하여 구축함. 시기는 매장주체부인 석실은 가야·일본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새로운 묘제를 수용한 토착 세력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석실이 수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옹관묘와 목관묘 등 토착적인 전통 묘제가 매장되는 점, 출토유물 등을 고려할 때 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됨. 석실묘보다 나중에 추가된 분구 사면의 석곽묘는 5세기 중엽~말, 옹관묘는 5세기 중엽~후엽, 목관묘는 5세기 후엽으로 옹관묘와 비슷한 시기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매납유구는 5세기 후엽~6세기 초로 편년됨.
- 영암 내동리 쌍무덤은 총4기로 이루어졌으며,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3회를 통해 1호분의 분구 평면형태는 방대형,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 규모는 길이 53m, 너비 33.6m, 높이 4~7m로 조사됨.
  - 매장시설은 석실묘 2기, 석곽묘 2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고, 분구 남동쪽 사면에서 옹관묘 1기가 확인되어 총 7기임. 1호 석실을 중심으로 위에 1·2호 석곽이 나란히 조성되었고, 2호 석실은 1호 석실 서쪽에, 옹관 2기는 1호 석실 동쪽에 조성됨.

시기는 분형, 매장시설의 축조순서와 특징, 출토유물 등을 검토한 결과 하층의 1호 석실묘는 5세기 중후엽, 상층의 1·2호 석곽묘와 1호 석실묘 입구쪽에 조영된 1·2 옹관묘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2호 석실묘는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됨.

- 이렇게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종 고분군을 살펴보면, 두 무덤의 규모는 30~53m, 높이 7m로 방대형을 띄고 있으며, 봉분은 방사형과 동심원 형태로 구획하여 성토되었음. 특히 분구 축조시 점토덩이를 이용하여 방사형으로 구획하고 그 구획을 성토하는 방식은 대형 분구 축조술의 발전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시종 고분군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실묘는 기존 옹관 또는 석실묘와는 달리 주변국의 묘제에 대한 도입이며, 석실벽에 목주를 세우고 점토 미장한 방식은 가야와 일본 고분양식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석곽묘에서도 세장방형의 형태는 아라가야 및 소가야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 수 있음.
- 시종 고분군에서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봉분 외곽에 원통형 토기와 형상 하나와를 세워 장식한 것이 특징임. 특히 원통형 토기는 당시 일본의 하나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왜계 문화의 수용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이렇듯 시종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 교통과 교역의 유리한 입지를 근거로 한 마한 세력이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와 백제·가야·중국·왜의 요소가 독자적으로 섞이면서 독특한 묘제를 만들어낸 고분군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암 시종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2.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3필지 풍납동 126-193번지, 풍납동 131-76번지, 풍납동 131-48번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2025.4.22.~5.21. 추가 지정 예고[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230(2025.4.22.)]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 기존 지정 면적 : 1,539필지, 414,028.2㎡
  - 추가지정 : 3필지 263㎡(풍납동 126-193번지, 131-76번지, 131-48번지)
  - 추가지정 후 면적 : 1,542필지 414,291.2㎡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유산연구소 검토의견('24.09.02.)
  - (풍납동 126-193번지, 풍납동 131-76번지, 풍납동 131-48번지) 해당 지역은 서울 풍납토성 보존구역 내 Ⅱ권역(지정·매입 필요권역)으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m <sup>2</sup> )	신청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126-193	대	81	81		
2	송파구	131-76	대	89	89		
3	풍납동	131-48	대	93	93		
계		3필지			263		

### 3.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4차 소위원회('21.05.26.)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 2007.12.03.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9-1 외 3필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개별검토), 2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21년 소위4차 - 조건부가결(시굴조사)	금회(변경신청)	증감
대지면적	3,260㎡(1구역)	3,260㎡(1구역), 139㎡(2구역)	139㎡ 증가
건축규모	지상1층(1동)	지상1층(2동)	1동 증가
건축면적 /연면적	156.9㎡ /148.9㎡	391.48㎡ /391.48㎡	234.58㎡ 증가 /242.58㎡ 증가
최고높이	4.8m	6.6m	1.8m 증가
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구조	변동없음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4.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이이 유적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파주 이이 유적(사적 / 2013.02.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 (3) 신청내용<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번지 일원(주차장 담장, 정문(삼문), 보행로, 광장, 동상 등)(문화유산보호구역)
  - 사업내용(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 : 2억
    - 주차장 담장 경관조명(59m) : 15개소(라인바 타입)
    - 수목조명(주차장 담장, 광장 등) : 투광등 16개소
    - 정문(삼문) : 지중등 4개소
    - 보행로(430m) : 보안등(H=4m) 11개소 + 패턴형 볼라드(H=2.8m) 38개소
    - 동상 : 투광 장식등 2개(폴(H=3m) 조명)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도(照度)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5.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 정비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상주 복룡동 유적」 내에 공원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상주 복룡동 유적 내에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5년 4차 위원회('25.04.09.) 보류 :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 2007.05.31. 지정)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공원 정비>
  - 위치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외 9필지(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황토포장 : A=155m<sup>2</sup>, THK20
    - 마름돌판석포장 : A=4m<sup>2</sup>, THK100
    - 야자매트설치 : W=1.5m, L=5.0m, THK30
    - 화강석경계석설치 : L=204.5m, 150×150mm
    - 관수호수설치 : L=100m / 관정설치 : 1개소
    - 차양설치
      - 1구간 : 세족장, L9.0×W4.5×H3.36m
      - 2구간 : 세족장, L8.0×W3.0×H2.77m
      - 3구간 : 원형황토포장, Ø5.6m×H3.80m
      - 4구간 : 산책로, L21m×W2.5×H2.62m
  - 보완 내용
    - 발굴유구 현황도 및 단면도 추가
    - 산책로 주변 관수 상세도 및 기존 관수 설치 예시도 첨부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명, 부결 11명

## 6. 의성 금성면 고분군 내 경관조명 등 철거 및 신설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사적 「의성 금성면 고분군」 내에 경관조명 등 철거 및 신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의성 금성면 고분군 내에 경관조명 등 철거 및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사적 / 2020.04.01. 지정)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224-2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등 철거 및 신설>
  - 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378-1 일원(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구분	철거	신설	기타
조명	태양광블러드 41개, LED블러드 42개, 산수유등 9개, LED투광등 8개	LED 열주(h=0.8m, 20w) 122개, 고보조명(230w, 폴대 8m) 4개, 고분조명(72w) 32개, 반딧불조명(12w, 폴대 4m) 2개, 수목조명(36w) 12개, 바닥조명(14w) 8개, 블라드(12w) 15개, 라인조명(36w) 48개, 전기시설 1식	
로프	사적지 내 로프 교체(PE로프) L=2,651m 등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7. 진주성 내 진주박물관 안내판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진주성」 내 진주박물관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진주성 내 진주박물관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진주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 (3) 신청내용<안내판 설치>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높이 : 2.98m(기초 : 0.78m) 1개, 3.48m(기초 : 0.78m) 1개, 3.08m(기초 : 0.78m) 5개, 2.3m 1개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하고 국가유산청 확인 후 사업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8. 강화 참성단 내 노후 웅스 정비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참성단」 내 노후 웅스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참성단 내 노후 웅스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강화 참성단(사적 / 1964.07.11. 지정),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천연기념물 / 2009.09.16.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번지 외

(3) 신청내용<노후 웅스 교체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외(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설치규모 : L=100m
- 철제난간 : W=2,000mm, H=1.8m
- 웅스기초 교체 및 보강설치 : 10개소
- 바닥기초 : 기존웅스 기초 재사용

(4) 신청인 의견

- 본 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이며 지목상 임으로 되어 있고, 금회 사업목적은 사적 강화 참성단 주변 미관 불량 및 노후된 웅스를 보수정비하여 탐방객의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하고자 함.
- 야간시간대 무속인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1명 / 제척 1명

## 9.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 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3) 신청내용<전등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4, 635번지(문화유산보호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234㎡

- 건축면적/연면적 : 216.21㎡/884.38㎡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2동(한옥) / 최고높이 13.88m(지하층 포함), 엘리베이터 1동, 캐노피 1개소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한식목구조(지상)

- 건축용도 : 지하 1층(교육실 등), 지상 1층 2개동(교육생 숙소 8개소)

- 토목공사

· 토공 : 절토(H=7.7m) 7,213㎡, 성토(H=3.1m) 1,271㎡, 사토 6,383㎡

·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H=0.2~2.8m, L=95m), 한식 담장(H=1.2m, L=81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190㎡

· 조경공 : 철쭉(150주), 측백(150주), 눈주목(100주)

· 부대공 : RPP가설 방음벽(H=4.0m, L=214m), 이동식세륜시설 1개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각 1개소

라. 참고사항

(1) 기 허가사항

구분	최초 허가	1차 허가사항 변경허가	2차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일	'23. 11. 6.	'23. 12. 6.	'24. 4. 23.
건축면적/연면적	201.78㎡/933.85㎡	좌동/869.95㎡	107.73㎡/775.90㎡
사업규모	2동(지하연결)	2동(지하연결)	1동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	13.68m(지하층 포함)	좌동	좌동
허가기간	'23. 11. 6.~'24. 11. 5.	'23. 11. 6.~'24. 12. 5.	'24. 4. 23.~'25. 4. 22.
허가조건	참관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 후 시행할 것	좌동	좌동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1명 / 제척 1명

## 10. 남원읍성 주변 공원 조성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남원읍성」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원읍성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4년 3차 소위원회('24.07.24.) 보류 : 자료보완 및 추가 대안 제시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남원읍성(사적 / 1982.11.03. 지정)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
- (3) 신청내용<공원 조성>
  - 위치 : 전북 남원시 동충동 197-1(문화유산구역과 연접/1, 3구역)
  - 사업내용
    - 면적 82,635㎡, 기존 폐역사 및 체육시설 등 철거

구분	'24년 소위3차-보류	금회	비고
동선 등	아치형 동선 곡선형 물길 및 도로	격자축 동선 농수로 유구·추정물길 재현	
만인광장	북문지의 남쪽에 조성	북문지의 북쪽에 조성	
수공간	폭포정원	방지원도, 화계원	
	봉수대 분수광장(북동쪽)	삭제	
	북문 남쪽 거울연못	삭제	
신규	-	철길 선형 정원(철길역사길) 시간의 기둥(구 남원역 기둥 활용) 조선건축 유구전시 초가마을원 경작정원(논 흔적) 방앗간터 사거리 추정 유구 전시	
기타	누각 쉼터, 주차장, 관리소 및 화장실 건립 등	좌동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8.30./문화유산위원 ○○○, 전문위원 ○○○, 전 문화유산위원 ○○○)

- 현 계획을 현지조사 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됨이 좋겠음.
  - 남원읍성의 역사골격인 격자 형태의 축을 고려함이 좋겠음.
  - 남원읍성 내외 발굴조사, 역사적 맥락 안에 중요 유적들의 포인트를 고려한 정비, 동선 계획 등이 연계됨이 좋겠음.
  - 향후 북성벽, 북문 복원 등을 고려할 때 정비의 중심에 이러한 요소 등의 고려되어 역사공원이 정비됨이 좋겠음.
  - 현 공원계획 중 역사적 맥락을 확장한 연결부를 확대하여 검토됨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현지조사의견 반영 방안 적정 여부 검토 등)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11.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5년 1차 소위원회('24.03.26.)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사정동 222-1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5년 소위1차-부결	금회
사업명	사정동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사정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위치	경주시 사정동 222-1번지	좌동
부지면적	1,603.00m <sup>2</sup>	좌동
용도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건축면적	가동, 나동(82.56m <sup>2</sup> )/다동(52.92m <sup>2</sup> )/라동(48.60m <sup>2</sup> )/마동(45.36)	가동, 나동(82.56m <sup>2</sup> )
건물높이	가동,나동(6.22m)/다동(5.58m)/라동(5.69m)/마동(5.58m)	가동, 나동(6.22m)
토공사	터파기 909m <sup>3</sup> , 되메우기 888m <sup>3</sup> , 잔토정리 20m <sup>3</sup> , 절성토없음	터파기 301m <sup>3</sup> , 되메우기 290m <sup>3</sup> , 잔토정리 11m <sup>3</sup> , 절성토없음

구분	'25년 소위1차-부결	금회
배수공사	빗물받이(410×510×600,24개소), 이중벽관(D200mm, L=306m), 집수정(600×600 6개소), 플룸관 및 스틸그리이팅(400×400, L=18.5m)	빗물받이(410×510×600, 6개소), 이중벽관(D200mm, L=97m), 집수정(600×600 6개소), 플룸관 및 스틸그리이팅(400×400, L=18.5m)
담장	한식담장(토석담):높이=1.5m/길이=45m	한식담장(와편담장):높이1.5m/길이=45m
조경식재	조경식재 없음	조경식재공사 포함

(4) 신청인 의견

- 경주 사정동에 자연경관과 인근 문화유적에 어울리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변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 경주 대릉원 일원 및 주변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건물계획으로 보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5.03.17./문화유산위원 ○○○)

- 문화유산구역에서 15m 이격된 1구역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지 이외의 신청지 주변 특화경관지구의 도시계획이 부재해 신청지 내용을 도시계획 및 경관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 지구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12.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7동)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동방동 와요지(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7동)>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06-1, 2(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공사

- 대지면적 : 3,898.00m<sup>2</sup>
- 가동 건축면적/연면적 : 82.5m<sup>2</sup>/148.5m<sup>2</sup>
- 나동 건축면적/연면적 : 49.0m<sup>2</sup>/ 49.0m<sup>2</sup>
- 다동 건축면적/연면적 : 49.0m<sup>2</sup>/ 49.0m<sup>2</sup>
- 라동 건축면적/연면적 : 49.0m<sup>2</sup>/ 49.0m<sup>2</sup>
- 마동 건축면적/연면적 : 49.0m<sup>2</sup>/ 49.0m<sup>2</sup>
- 바동 건축면적/연면적 : 46.2m<sup>2</sup>/ 46.2m<sup>2</sup>
- 사동 건축면적/연면적 : 46.2m<sup>2</sup>/ 46.2m<sup>2</sup>
- 건물높이 : 가동 8.95m, 나동~사동 4.72m
- 한식담장 : h=1.5m/L=230m

- 토목공사

- 성토고=1.2m, 절토고= 0m
- 터파기: 517m<sup>3</sup>

- 되메우기: 2,315m<sup>3</sup>
- 보강토옹벽(H=2.0m) L=145m
- 수로관(이중벽관)L=149m
- 콘크리트포장(진입부) : 57m<sup>2</sup>
- 차도블럭설치 : 1,420m<sup>2</sup>
- 잔디식재 : 1,562m<sup>2</sup>

(4) 신청인 의견

- 단독주택(한옥체험업)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변현상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통건축 형태로 평면 및 입면을 구성 하였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5.06.04./문화유산위원 ○○○)

- 경주 동방동에 유산구역으로부터 80m이격된 1구역에 단독주택 7동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임
- 1개동은 2층 높이고 기타 6개동도 1층 높이로 계획되었으며 인접하여 약 2층 높이의 주유소가 건축되어 있는 현황임
- 2층 높이의 건축물의 높이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여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할 필요 있음
- 또한 옥외 수목 및 외부 공간 계획과 담장계획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이후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13.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동방동 와요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1차 위원회('24.01.10.)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4년 3차 위원회('24.03.13.)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5년 2차 위원회('25.02.12.)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동방동 와요지(사적 / 1978.06.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 (3) 신청내용<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359-1(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40m 이격/2-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4년 1차-부결	'24년 2차-부결	'25년 3차-부결	금회	증감
건축면적	792㎡	좌동	좌동	좌동	-
설치면적	502.8㎡	431㎡	412㎡	446㎡	증 34㎡
건축물 높이	7.3m	좌동	좌동	좌동	-
설치 후 최고높이	7.781m	7.184m	7.63m	7.74m	증 0.11m
설치용량	54.6kW 2개소 (총 109.2kW)	93.6kW	93.98kW	99.84kW	증 5.86kW

#### (4) 신청인 의견

- 태양 빛을 이용해 전기 생성과 사용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 14.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 무장애숲길 조성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5년 4차 위원회('25.04.09.) 부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아차산 일대 보루군(사적 / 2004.10.27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 (3) 신청내용<무장애숲길 조성>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1-80번지 일대{문화유산구역, 1구역(개별 검토)}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862.4m<sup>2</sup>(문화유산구역 847.4m<sup>2</sup>, 1구역 15m<sup>2</sup>)
    - 사업내용 : 데크설치(멀바우) 폭1.8m, 길이 460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0명 / 제척 2명

## 15. 경희궁지 내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경희궁지」 내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내 생태기후 환경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희궁지(사적 / 1980.09.16.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2가)
- (3) 신청내용<생태기후 환경숲 조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2가)(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시설 정비 및 식재
    - 사업면적 : 24,886㎡
    - 수목정비 및 식재 : 제거(외래수종·고사목 제거 125주, 하층식생제거 440㎡), 식재(교목 26주, 관목 411주, 지피식재 9,850본, 잔디 259㎡, 외래수종·불량목 제거 125주, 하층식생제거 440㎡)
    - 시설물 : 데크로드(폭1.2m) 277m/342㎡, 데크계단(폭1.5m) 20m/29.18㎡ 설치, 등 의자 8개소 정비 등
    - 포장 : 박석포장 4.5㎡, 마사토포장 2,690㎡, 배수로정비 55.6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 16. 태안 안흥진성 내외 국가유산 경관개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사적 「태안 안흥진성」 내외 국가유산 경관개선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태안 안흥진성 내외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5년 5차 위원회('25.05.14.) 태안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지원 가이드라인(기본계획)(안)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시행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태안 안흥진성(사적 / 1980.09.16. 지정)
  - 소재지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 (3) 신청내용<국가유산 경관개선>
  - 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등(문화유산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통합 서문 관광안내소 19.44㎡, 사랑모임관 29.7㎡, 화장실 17.28㎡ 등 조성
    - 쓰레기 수거장 설치
    - 거점별 주차장 조성 (관람객 휴게시설·제승루·북문·동문 주변 4개소 19면)
    - 우물 수각 4.5㎡ 설치 및 주변정비
    - 폐콘크리트 건물 철거(옛 상수도 펌프장 건물 4동 철거 104㎡)
    - 관람객 휴게시설 조성 78㎡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17. 강릉 굴산사지 내 범일국사 제향공간 건립

###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강릉 굴산사지」 내 범일국사 제향공간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릉 굴산사지 내 범일국사 제향공간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차 위원회('23.09.13.)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24년 7차 위원회('24.07.10.) 부결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저해
  - '24년 12차 위원회('24.12.11.) 부결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저해
  - '25년 5차 위원회('25.05.14.) 보류 :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위치 조정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강릉 굴산사지(사적 / 2003.06.02.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범일국사 제향공간 건립>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09번지(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구분	'23년 9차-부결	'24년 7차-부결	'24년 12차-부결	'25년 5차-보류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28.98㎡/28.98㎡	28.98㎡/28.98㎡	48.6㎡/48.6㎡	48.6㎡/48.6㎡	48.6㎡/48.6㎡
건축규모/ 최고높이	지상1층(1동)/ 6.595m	지상1층(1동)/ 6.59m	지상1층(1동)/ 6.59m	지상1층(1동)/ 6.59m	지상1층(1동)/ 7.06m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용도	범일국사 진영각	범일국사 사료관	범일국사 제향공간	범일국사 제향공간	범일국사 제향공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5.05.08./문화유산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강릉 굴산사지의 사지구역 내 범일국사의 제향 공간 관련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범일국사 관련 단오제가 굴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부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등, 범일국사의 제향공간은 의미가 있음.
- 단, 제향 공간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굴산사지 관련 스님의 시설이므로, 유적의 축선, 부도, 사지 진입동선, 정비계획의 전시관,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 선정이 중요함.
- 또한 주차시설 등은 길 건너 '오독떼기 전수관'의 주차장, 향후 정비계획상의 전시관, 주차장 등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위치 재검토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18. 파주 혜음원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파주 혜음원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혜음원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파주 혜음원지(사적 / 2005.06.13.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43, 243-3번지(문화유산보호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807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160.0m<sup>2</sup> / 160.0m<sup>2</sup>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높이 : 지상 1층 / 5m
- 부지조성 : 성토 H=0.1~1m, 보강토 옹벽 H=0.3~2.6m, L=50.6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19. 안성 봉업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적 「안성 봉업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성 봉업사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6차 건축문화유산분과('24.06.20.)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 안성 봉업사지 사적지정('24.06.07.) 전 신청건으로 건축유산팀에서 검토함
  - '24년 5차 소위원회('24.11.27.)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안성 봉업사지(사적 / 2024.06.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2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56-1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1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4년 6차 건축분과 -부결	'24년 소위5차-부결	금회신청안
사업면적	824㎡	824㎡	824㎡
건축/연면적	113.64㎡ / 113.64㎡	113.64㎡ / 113.64㎡	113.64㎡ / 113.64㎡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층수/높이	1층 / 5m	1층 / 5m	1층 / 5m
기타	진출입로 포장(T 0.2m) 23㎡	진출입로 포장(T 0.2m) 23㎡, 수목식재(H 2m 이상) 6주	진출입로 포장(T 0.2m) 23㎡, 수목식재(H 3m이상) 37주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0.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적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5년 1차 위원회('25.01.08.)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5년 2차 위원회('25.02.12.) 부결 :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저해
  - '25년 5차 위원회('25.05.14.)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하남 미사리 유적(사적 / 1979.10.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57번지 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38-22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4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5년 2차-부결	'25년 5차-부결	금회 신청안
사업면적	330㎡	618㎡	618㎡
건축/연면적	189.42㎡ / 297.39㎡	166.08㎡ / 263.72㎡	197.40㎡ / 197.40㎡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층수/높이	지상 2층 / 8.35m	지상 2층 / 7.1m	지상 1층 / 5.5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5.02.06./문화유산위원 ○○○, ○○○, ○○○, 전문위원 ○○○)
  -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산구역

에서 10.5m이격된 1구역으로 당초 1구역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방향을 주변 2구역등과 비교 검토하였을 경우 문화유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시된 건축 배치로 문화유산에서 최소의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 것은 긍정적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 21. 안동 도산서원 보호구역 내 관광안내소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적 「안동 도산서원」 보호구역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도산서원 보호구역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5년 4차 위원회('25.04.09.) 보류 :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안동 도산서원(사적 / 1969.05.31. 지정)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3) 신청내용<관광안내소 설치>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55-3(문화유산보호구역)
  - 사업내용

구분	'25년 4차-보류	금회	비고
높이	4.5m	3.3m	
면적	27㎡(9m×3m)	31.5㎡(9m×3.5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5.05.01./문화유산위원 ○○○, 전문위원 ○○○)
  - 사적 안동 도산서원 주차공간에 관광안내소를 교체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 직원 확충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여 제시된 크기로 교체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기존 위치에서 교체보다 진입 경관 개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주변 정비하고, 기간 한정하여 설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22. 창녕 계성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창녕 계성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녕 계성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5년 4차 위원회('25.04.09.)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창녕 계성 고분군(사적 / 2019.02.26.지정)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368 외
- (3) 신청내용<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71(문화유산구역 연접/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5년 4차-부결	금회	기타
모듈		630wP×130매=81.9kWp	630wP×130매=81.9kWp	
높이	공장동 (건물/구조물)	9.932m/1.316m	9.932m/0.834m	-0.48m
	사무동 (건물/구조물)	4.0m/1.371m	4.0m/0.8831m	-0.48m
면적	공장동	287㎡	287㎡	
	사무동	46㎡	46㎡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3.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 (3) 신청내용<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문길 43(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109m 이격, 함안 가야리 유적으로부터 4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모듈 : 620wP×340매 / (14직렬×3병렬)+(13직렬×10병렬)+(14직렬×12병렬)  
=210.8kWp
    - 높이 : 건축물(17.208m), 전체높이(19.779m)
    - 면적 : 건물지붕 전체면적 1,778.64㎡ / 사용면적 918.02㎡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4.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내 도시가스 피복 보수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내 도시가스 피복 보수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내 도시가스 피복 보수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김해 구지봉(사적 / 2001.03.07. 지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
- (3) 신청내용<도시가스 피복 보수>
  -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지로 99-26(문화유산보호구역)
  - 사업내용
    - 관경 150mm / 연장 6m / 굴착면적  $1.5\text{m} \times 4\text{m} = 6\text{m}^2$  / 높이 1.5m~2.0m
    - 토공 : 터파기  $6\text{m}^2$ , 되메우기  $6\text{m}^2$ )
    - 포장공 : 보도 복구  $6\text{m}^2$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25. 강화 갑곶돈 내 잔디 식재 및 웬스 설치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갑곶돈」 내 잔디 식재 및 웬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갑곶돈 내 잔디 식재 및 웬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강화 갑곶돈(사적 / 1984.08.13.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번지 외

(3) 신청내용<잔디 식재 및 웬스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226-3, 226-2, 226-8(3필지)(문화유산 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546m<sup>2</sup>

- 주요 공사내용

- 잔디 식재 : 줄떼 A=5,410m<sup>2</sup>

- 웬스 설치 : L=225m

- 토공 : 흙쌓기 최대 0.7m

- 우수공 : 기존맨홀 사용(D1500), 자연배수

(4) 신청인 의견

- 방치(나대지 상태)되어 있는 국가유산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 26. 강화 외성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강화 외성」 및 「강화 갑곶돈」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증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5년 5차 위원회('25.05.14.)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강화 갑곶돈(사적 / 1984.08.13.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갑곶리 1020번지 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증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984-3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약 88.5m 이격/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구분	기존 건축물 * '23.6.14.허가	증축 신청사항	
		'25년 5차-부결	금회
연면적	165.2㎡	(주1동) 50.0㎡, (부속1동) 50.0㎡	50.0㎡
건축규모	(1동)지상 1층(4.7m), 지하 1층(2.8m)	(주1동) 지상1층, 3.0m (부속1동) 지상1층, 5.0m	지상 1층, 3.0m
지붕형태	경사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평지붕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보강토옹벽	H=0~2.9m, L=63.8m	-	-
절토	2.9m(102.6㎡)	-	-
성토	2.9m(350.9㎡)	-	-

(4) 신청인 의견

- 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현재 지목상 대로 되어 있고, 금회 사업목적은 본 필지에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7. 강화 외성 주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강화 외성」 주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5년 2차 위원회('25.02.12.)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강화 외성(사적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37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1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농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구분	'25년 2차-부결	금회신청
설치규모	1동 18㎡	1동 18㎡
규격/색상	3m×6m, 높이 2.6m / 회색	3m×6m, 높이 2.6m / 회색
설치기간	-	1년 이내
설치위치	-	2구역 경계선 가까이 이동

### (4) 신청인 의견

- 본 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며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고, 금회 사업목적은 본 필지에 농업용 임시창고(최소규모)를 축조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 첫 허가신청과 비교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 오직 농사를 위한 창고용 컨테이너로, 설비는 물론 전기도 연결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페인트칠이라도 하겠습니다.(이하 생략)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8. 경주 문무대왕릉 내 봉길리 관광문화행사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문무대왕릉」 내 관광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문무대왕릉 내 관광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 1967.07.27.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30-1 외
- (3) 신청내용<봉길리 관광문화행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26-6번지(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무대 : 폭 12m×6m×0.3m (※ 무대 위 몽골텐트 설치)
    - 의자(야외용 플라스틱) 100개, 몽골 텐트 5×5m×3m 8개
    - 푸드존 : 5m×5m×3m 4동
    - 음향 : 음향 20kW flying System 및 악세서리
    - 조명 : 10kW, led조명 10대, led par 10대
    - 행사기간 : 2025. 7. 4. ~ 2025. 8. 4. (\*2025.7.1. 설치, 2025.8.4. 철거)
- (4) 신청인 의견
  - 문무대왕면 관광활성화를 위함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29. 경주 효공왕릉 주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효공왕릉」 주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효공왕릉 주변 단독주택(다가구주택-2가구)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5년 1차 소위원회('25.03.26.)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효공왕릉(사적 / 1969.08.27.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번지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다가구주택 - 2가구)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207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25년 1차-부결	금회	비고
대지면적	387.00㎡	좌동	
건축면적	75.60㎡	좌동	
연면적	150.00㎡(1층 74.4㎡, 2층 75.6㎡)	좌동	
건물높이	6.96m(가중평균치적용), 8.7m	8.7m	
절토고	0.23m	-	절·성토 없음
성토고	2.74m	-	
보강토옹벽	(H=0.2 ~ 2.8m), L=11.0m	-	

### (4) 신청인 의견

- 다가구주택을 건립하여 본인 가족의 주거와 잔여 1가구의 여유 공간은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자금에 보탬이 되고자 함

- 신청지는 영농 여건이 불리하여 본인의 주거 등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건립하여 잔여 1가구는 농어촌민박으로 활용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5.03.17./문화유산위원 ○○○)

- 경주시 배반동 207번지, 문화유산구역에서 10m이격된 1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구역과 인접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0명, 보류 1명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5-06-030

### 1. 서천읍성 사적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사적 「서천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천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서천읍성(舒川邑城 충남 문화유산자료)
  -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4-1 등 13필지
- (3) 지정명칭 : 서천읍성(西川邑成, Seocheoneupseong Walled Town)
- (4) 지정 범위 : 문화유산구역 13필지 18,745.8㎡(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5) 관리단체(안) : 충청남도 서천군
- (6) 신청사유
  - 호서지역 연해읍성 중 산지형 읍성을 대표하는 곳이며, 계단식 내벽과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되어 기술사적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 유적이며, 잔존상태가 양호함
  - 지정학적 중요성과 왜구에 대비한 조선왕조 군사전략 변화를 보여줌
  -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의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라. 참고사항

- (1) 사적지정 추진경과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24.2.15.) : 사적지정 신청 가결
  - 「서천읍성」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충청남도→국가유산청 : 2024.3.5.)
  -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4.12.18.)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요청(국가유산청→충청남도 : 2025.1.16.)

○ 사적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충청남도→국가유산청 : 2025.3.24.)

**(2) 지표·측량조사 및 시·발굴조사 추진현황**

조사연도	조사대상	조사명칭	조사종류
2017	서천군청	서천군청 주차장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시굴조사
2017	서천읍성	1차 동문지 시·발굴조사 (2019,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시굴조사 발굴조사
2017~2018	서천읍성	2차 성벽정비구간 시·발굴조사 (202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시굴조사 발굴조사
2018~2019	서천읍성	3차 남문지 주변 성벽 시·발굴조사 (202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시굴조사 발굴조사
2020	서천읍성	4차 남측성벽 시·발굴조사 (202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시굴조사 발굴조사
2021	서천읍성	5차 서천읍성 정비사업지 시·발굴조사 (202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시굴조사 발굴조사
2023	서천읍성	서천읍성 읍성 내부 시굴조사	시굴조사
2024	서천읍성	서천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부지 시·발굴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2024	서천읍성	구 서천군청 주차장 부지 시굴조사	시굴조사

**(3) 주요 학술대회**

연도	주최·주관	학술대회 주제
2019	· 서천군/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서천읍성 현황과 과제
2022	· 서천군/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서천읍성의 오늘과 내일
2023	· 서천군/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서천읍성 1차 전문가 학술포럼
2023	· 서천군/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서천읍성 2차 전문가 학술포럼

**(4) 현지조사의견('24.12.19./문화유산위원 ○○○,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청남도 서천의 서천읍성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천읍성은 연해읍성으로 서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38-50년에 축성된 읍성으로 특이하게 산지형 읍성에 속한다
-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잔존상황이 양호하며 성벽, 수혈방어시설, 해자의 3중 방어 구조를 가지며, 16개소의 치(기록에는 17개소) 독특한

구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축성신도 배포이전과 수직내벽과 축성신도 반포 이후 계단식 내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읍성 축성의 변천을 알수 있는 읍성이다

- 이에 서천읍성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단, 사적 지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 되었으면 함
  - 서천읍성 유실구간, 정비구간, 원형구간 등에 대한 현황 도면자료 제시
  - 발굴조사(결과 포함) 및 보수정비 현황정리
  - 성곽 정비 및 문루 복원에 대한 자료(도면, 복원근거 등) 보완
  - 추정 관아지에 대한 계획 제시 : 문화유산구역에 미포함 이유, 발굴성과 및 향후계획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 12. 18. (수)	대상문화유산	서천읍성(舒川邑城)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학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성명	○○○	전공 분야	고고학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성명	○○○	전공 분야	고고학
	소속	문화유산위원회	직위(직책)	문화유산위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학
	소속	국가유산청	직위(직책)	문화유산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문화유산 종류	사적		
	문화유산 명칭	서천읍성(舒川邑城)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별첨 <보호물>별첨 <보호구역>별첨		
보호 관리 사항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별첨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별첨		
종합의견	별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2024년 12월 18일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서천읍성(舒川邑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4.12.18.(수)
- 조사자 : 문화유산위원 ○○○ · ○○○ · ○○○, 문화유산전문위원 ○○○

### 1. 문화유산 종류

- 사적

### 2. 문화유산 명칭

- 문화유산명 : 서천읍성(舒川邑城)
  - 서천 읍성은 문헌기록에 서천성(문종 실록), 읍성(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서천 군지) 등으로 기록되어 문화유산 명칭 부여원칙인 고유명칭을 우선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명+유산명으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천읍성(舒川邑城)”이 가장 적절한 사적 명칭으로 판단됨.

###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서천읍성은 조선 세종 조에 축조된 서천군의 읍성임
  -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연해읍성 축조과정에서 호서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축조되어야 할 곳으로 논의된 중요한 곳이며, 호서지역 연해읍성 중 대표적인 산지형 읍성으로 이전 시기 남산성(고읍성/고려시대 읍치로 비정)의 전통을 이어 산지에 입지하는 읍성으로 계획 축성함.
- 서천읍성이 위치한 서천은 충남의 남서측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보령시, 동쪽으로는 부여군, 남쪽으로는 금강을 건너 전라북도 군산시 및 익산시와 접해 있음.
  -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에서 금강 하구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이면서 해로를 통해 충청, 경기로 진입하는 관문지역
  - 서천은 금강입구로, 고대로부터 외적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주요 요충지로 백제시대 기벌포 전투와 고려시대 진포대첩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 남방의 왜구들이 충청도 내륙으로 진출을 시도할 때, 서천지역을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천 일대는 왜구 방비의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음
- 왜구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서천읍성은 북쪽 오석산(烏石山 127.1m)과 남쪽 남산(南山 146.9m) 사이 서천 읍내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음
  - 서쪽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판교천이 서해로 유입되고, 동쪽은 직천과 길산천이 흐르다 금강 하구에 합류됨. 또한 수계주변인 서쪽과 남쪽,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넓은 충적평야지(길산평야)가 펼쳐져 있음
  - 서천읍성은 해발고도 약80m의 성재산을 이용해 북쪽과 동쪽 그리고 능선을 애워 싸면서 북고남저형의 포곡식 형태로 축성하였으며, 금강 하구를 통해 내륙으로 들

어울 수 있는 입구에 위치함

-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 최윤덕의 건의로 축조가 논의된 이후, 1438~50년(세종 20~32) 축조하여 남산성에 있던 서천읍치를 서천읍성으로 옮겨 군사·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동학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공해시설은 현재 유실된 상태임
  - 1894년(고종 32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동헌을 비롯한 서천읍성의 공해시설이 소실되었으며 1896년(고종 34년) 동헌 등 일부 시설을 다시 복구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서천군청사 신축 등 근대식 건물이 조성되면서 현재 공해시설 전체가 유실됨
  - 현재 서천군청이 위치하여 옛 치소로서의 행정중심의 기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서천읍성은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우선하여 가용지대가 많지 않은 산성을 읍치의 중심부로 삼았기 행정시설인 관아만 성내에 위치하고 민가는 남문 밖에 형성되었으며, 관아배치는 정형성을 탈피하여 지형조건에 따라 동헌영역과 객사 및 행정역역, 향청영역, 향리청과 군관청 등이 각각 별도의 영역으로 독특하게 배치한 특성이 있음
- 서천읍성의 성벽의 총 길이는 1,645m이며, 현재 잔존 성벽은 1535.5m로 남문지 주변 일부만 멸실되고 93%이상의 원형 성벽이 잔존하고 있으며, 성문은 3개소 중 발굴조사 결과 동문지, 북문지를 확인하였고, 치성 17개소 중 16개소가 잔존하고 있음.
  - 성벽, 해자, 방어용 유구 등 3단의 외부방어시설의 원형이 확인되어 현재 복토를 통해 정비되어 있음.
  - 2018~2019년 동문의 문루를 복원하였으며, 2020~2021년 서남치성 남문좌측 성벽에 대한 보수공사와 2023년 남측 성벽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행됨
  - 성벽은 축성신도(반포 1438년, 세종20년) 규정을 반영하여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 25년) 이보흠의 상소로 다시 축성신도 반포 이전의 한양도성 축조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한 한양도성 방식의 내탁식 축성법을 동시에 확인됨
  - 치성은 대체로 90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었는데 적대의 규모에 대하여 세종실록(1433년, 세종 15년 정월)에서 기록한 ‘전면(前面)이 너무 넓고 좌우가 좁으면 방어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전면 15척, 좌우 각 20척의 규모를 제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는 150보(약 155m/1보=5척, 1주척=20.7cm 기준)마다 적대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배치됨
- 서천군지도(1872년)에 의하면 각 시대에 따른 서천군 읍치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음
  - 백제시대 설립군시기 읍치는 동면 왕야리 → 신라시대 서립군시기 읍치는 문장면 화리 → 고려시대 서주시기 읍치는 영취산 정상(고읍성) → 조선시대 서천군시기

읍치는 현 서천읍성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1) 조선시대 서천읍성의 축조배경

- 서천읍성의 축조 배경
  - 진포대첩 등 수차례 왜구의 침입을 겪은 역사적 경험
  -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초기 국방강화정책
  - 대대적인 연해읍성 축조 정책
- 이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서천읍성이 축조됨

##### ① 왜구의 침략과 조선 초기 국방강화 정책

- 여말선초 왜구는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1350년(충정왕 2) 소위 ‘경인(庚寅)의 왜구’가 한반도 침략의 신호탄을 쏘았다.<sup>1)</sup> 경인년(1350)을 시작으로 잠잠했던 왜구가 다시금 창궐한 것이다.<sup>2)</sup> 20~400여 척 규모의 왜구가 고려의 연안을 침탈하였고, 1384년(우왕 10)에는 경기 내륙 지역인 양주까지 진출하였다.<sup>3)</sup> 고려 조정은 왜구 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했으나, 흥건적 침입(1359~1362), 나하추 침입(1362) 등 북방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sup>4)</sup> 남방의 왜구 방비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군사력으로 다방면의 적들을 방어해야 했기에 그나마 본토의 이점을 활용한 육상방어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 고려 말부터 이어진 왜구의 창궐과 노략질로 서해안 주변 백성들의 고초와 피해는 날로 심각해졌고, 특히 충청·전라·경상도의 피해가 심했다. 왜구의 본격적인 활동은 1350년(충정왕 2)<sup>5)</sup>으로 충정왕부터 공양왕까지 약 42년간 517회의 왜구 침탈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 잘 남아있다.

1)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2년 2월 “倭寇 固城·竹林·巨濟, 合浦千戶崔禪, 都領梁瑄等, 戰破之, 斬獲三百餘級, 倭寇之侵, 始此.”

2) 이는 일본 국내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南北朝) 시대로 정란에 휩싸여 있었다. 정권이 양분되어 중앙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과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급무사 등이 왜구로 전락하였다. 대마(對馬), 일기(壹岐), 송포(松浦) 등지를 근거지로 삼고 식량 약탈, 인민 포획을 주목적으로 고려를 침구하였다(손홍렬, 1978,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호서사학』 6, 112~117쪽).

3) 나중우, 1994, 「흥건적과 왜구」, 『한국사』 20(고려 후기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392쪽.

시 기	선박규모	침입 지역	시 기	선박규모	침입 지역
충정왕 2년(1350) 6월	20척	합포(合浦)	우왕 2년(1376) 7월	20척	전라도원수영(元帥營)
공민왕 7년(1358)	400여 척	오입포(五入浦)	” 3년(1377) 6월	200여 척	제주도(濟州島)
” 12년(1363) 4월	213척	교동(喬桐)	” 3년(1377) 10월	40여 척	동래현(東萊縣)
” 13년(1364) 3월	200여 척	갈도(葛島)	” 10년(1384) 5월	27여 척	양주(陽州)
” 23년(1374) 4월	350척	합포(合浦)			

4) 나중우, 1994, 앞의 책, 384~390쪽.

5) 이령, 2004,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 고려시대 왜구 침탈로 인하여 백성의 피해는 물론이고 세곡을 저장하는 조창(漕倉) 등의 약탈로 인해 조운(漕運)의 역할을 상실<sup>1)</sup>한 상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 새 왕조 조선의 태조로 등극한 이성계는 전조(前朝)의 굴레를 벗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는 한편, 경제·사회 등 제분야의 폐단을 개혁하고 대내·외 정치 및 외교 안정에 힘썼다.
- 왜구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특히 태조는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을 몸소 경험한 바 있었다.<sup>2)</sup> 그는 “국가에서 근심하는 것이 왜적[왜구]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sup>3)</sup> 연해의 방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왜구 토벌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sup>4)</sup> 수군의 병력 모집과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sup>5)</sup> 박위로 하여금 병선을 추가로 건조하도록 하였으며,<sup>6)</sup> 건조한 병선을 여러 차례 직접 살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sup>7)</sup> 그리고 수군을 지휘할 수군 지휘관의 관제·직제 정비에도 힘썼다.
- 왜구의 침입은 조선 개국 이후 삼남의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계속되었다. 왜구 침입이 확대되고 장기화되자 조선 조정은 더욱 강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1396년(태조 5) 12월, 고려 말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후 1399~1400년, 2년의 정종 재위기간 동안, 그리고 태종이 즉위한 초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그 빈도와 규모 면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활동이 1406년(태종 6)과 1408년(태종 8)에 또 다시 급증함에 따라,<sup>8)</sup> 1408년부터는 재차 각 도의 병선을 증강하고, 병선과 병기를 점검하는 등 전비태세(戰備態勢) 강화에 주력하였다.
- 1418년 즉위한 세종 역시 태종의 대와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기해동정(己亥東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연해를 지속적으로 침탈하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1419년(세종 1) 또 한 차례의 대마도 정벌을 단행한 것이다.
- 세종 연간은 우세한 수군력을 앞세워 근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왜

1)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5년 6월 을해.

2) 『고려사』 권116, 열전29, 제신 ;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년 5월 ;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6년 9월 ;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9월.

3)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7일.

4)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4월 13일, “惟我太祖大王, 參謀國政, 始設兵船, 以備制賊.”

5) 조선전기 수군제도 정비는 이재룡, 1970, 「朝鮮前期의 水軍-軍役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5 ; 오봉근, 1998, 『조선수군사』, 한국문화사 참조.

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5일.

7)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8월 8일 ;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

8) 이현중, 1959, 앞의 논문, 31~36쪽.

구 역제의 성과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오래된 선박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조하여 해상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내풍성 및 내구성, 속도 등 병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시험하였으며, 수세적이었던 대왜 병선 전술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왜구 방비에 병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호 지원체제를 유지한 채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선단의 생존성을 제고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 즉 조선 초기 태조~세종 연간에는 ‘수군’을 정비하는 한편, ‘수군’ 중심의 해방책(海防策)을 수립하여 충청·경상·전라 하삼도 지역에 창궐하는 왜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고려 말, 왜구의 피해를 직접 목도했던 태조는 건국 직후 육군과 별개의 병종으로서 수군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태종은 병선을 대대적으로 건조하는 한편, 왜구 출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포구를 모색하여 병선의 정박 요충 기반을 확보하였다. 세종은 1419년 기해동정을 기점으로, 수군 전력의 보강을 꾀하며, 그와 병행하여 병선의 속도 및 성능 개량, 정박지 전진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연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천읍성 축조, 군사 편제 정비 등 서해안 연습의 방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② 조선시대 초기 읍성 축조 정책

- 일련의 정책들을 기반삼아 연해의 ‘제해권’ 확보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써 연해읍의 치소와 군사시설 보호 등의 목적 하에, 서해안 연습의 읍성 및 진성 축조가 잇따랐다.
- 왜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책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1429년(세종 11) 1월에 허조(許稠)가 경상도 연해 각읍은 왜구가 조석으로 오가는데 성보(城堡)가 완전하지 못하니 매년 농한기마다 쌓아 10년을 기약하면 성보가 완고해질 것이라고 건의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2월에 병조판서 최윤덕(崔潤德)을 충청·전라·경상도의 도순무사로 삼아 성터를 살펴서 결정하는 때를 분수령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겠다.
- 이때 최윤덕은 「각관성자조축조건(各官城子造築條件)」을 마련하여 올렸으니, 최윤덕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하삼도의 각 고을 성자(城子) 중에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변 군현은 산성을 없애고 모두 읍성을 쌓을 것이며, 읍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도록 한다.
  - ② 각 고을에서 성을 축조할 때에는 각기 그 부근의 육지 주현 3·4읍 혹은 5·6읍을 한도로 아울러서 점차로 축조하게 한다.
  - ③ 민호의 수가 적고 또 성을 쌓을 수 없는 각 고을은 인근 고을의 성자로 함께 입성토록 한다.
  - ④ 각 고을은 사용이 가능한 옛성[舊城]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사용이 가능한

옛성이 없으면 근처의 새로운 성기(城基)를 택하여 축조한다.

- ⑤ 각 고을의 건설하지 못한 성자가 있으면 각기 호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퇴축(退築)하거나 축소하여 편의에 따라 개축한다.
- ⑥ 각 고을의 성자를 일시에 다 쌓을수 없으니 각기 성자의 대소를 헤아리고 마땅히 연한을 정하여 건설하게 축조한다.
- 즉 하삼도의 가장 긴요한 연해읍들은 산성대신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입보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읍성의 축조는 조선시대 전기만 하더라도 토축과 석축이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체성은 도성의 축조기법에 따라 경사면의 내탁부가 이루어지도록 축조하였으나, 1438년(세종 20)에 『축성신도(築城新圖)』를 반포하여, 체성을 모두 석재로 쌓도록 하고,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면의 내탁부도 석재로 계단을 이루도록 하여, 읍성의 석축화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442년(세종 24) 7월에는 웅성(甕城)·적대(敵臺) 및 해자(海子)를 일시에 축조하지는 못하나 제외하지는 않고 점차 축조하여 나가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 웅성·적대 및 해자의 시설이 규석화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석축화한 이후 오히려 축성 완료후 단기간에 붕괴되는 현상이 진행되므로 1443년(세종 25)에 이보흠이 상소하여 다시 『축성신도』 반포 이전의 한양도성 축조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 2) 서천읍성의 축조과정

- 1438년 읍성 축조정책을 주도하던 최윤덕에 의해 서천읍성 축조논의
- 최윤덕은 서천은 적로(賊路)의 첫길목이라는 이유로 서천읍성의 선축조 주장
- 좌찬성 신개 역시 첫 길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천읍성 선축조 의견에 동조
- 서천의 군사적 중요성을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
- 1438~50년 사이 서천읍성을 축조하고 읍치를 이전함

- 15세기 전반에는 많은 연해읍성이 축조되었다. 특히 그 증가분의 상당수가 해안에 인접한 읍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서천읍성과 같은 연해읍성이 대대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왜구가 남해에서 바닷길로 충청도 서해에 이르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서천이었다. 그리고 서천을 방어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비인-남포-홍주-서산-태안-당진-면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즉 당시 조선 조정은 서천읍을 충청도 지역의 왜구 방비 요충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 서천읍성의 축성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1438년(세종 20) 9월 10일 신묘조 기록에서 처음으로 찾을 수 있다. 이때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최윤덕(崔閔德)이 “서천성은 적로(賊路)의 첫 길목이고 또 이미 축조를 시작하였으니, 금년에 축조를 끝내게 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라며 면천산성보다 서천성을 먼저 쌓기를

청하여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영의정 황희(黃喜) 등은 의논하기를, "먼저 면천(沔川)을 쌓고 뒤에 서천(舒川)을 쌓는다는 공의가 이미 정해졌음에도, 이제까지 아직 쌓지 않는 이유는 다만 성기(城基)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흉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면천이 위급하지 않다고 하여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의논하였다.

- 이후 좌찬성 신개(申概)는 "서천은 해구(海口)와 가까워서 바로 충청도에서는 적을 받는 첫 길목이 될 것입니다. 적의 배가 전라도로부터 올 것 같으면, 바닷길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서천으로 와서, 비인(庇仁)·남포(藍浦)·홍주(洪州)·서산(瑞山)·태안(泰安) 등지를 거쳐 당진(唐津)·면천까지 도달할 것이니, 최윤덕의 헌의는 진실로 그 선후완급(先後緩急)의 이치를 얻은 것입니다. . . . 만약 서천의 축성의 제반 일이 기간 내에 가능하다면, 먼저 서천을 하고 뒤에 면천을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헌의에 따랐다.
- 이에 면천읍성은 1438년 축성에 대한 논의 이후 1439년 2월에 축조를 시작하여 그해 11월 완공되었다.
- 이를 살펴보면 서천읍성은 1438년 이전에 이미 축성이 시작되었지만, 면천읍성의 선축조 방침에 따라 잠시 중단된 이후 1439년 이후에 다시 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서천읍성은 면천읍성과의 축성 논의에서 영의정 황희의 주장에 밀려 축성 공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느 문헌 및 지리지에 서천읍성의 완축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1438년 9월 10일 최윤덕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서천성(舒川城)은 적로의 첫 길목이고 또 이미 축조를 시작하였으니, 금년에 축조를 끝내게 하자고 주장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서천읍성의 축조가 시작되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논의의 시점이 9월 10일임을 감안하면 3개월 정도의 공역이 지속되면 완축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면천읍성이 세종 21년 윤2월 7일에 축성이 시작되어, 그 해 11월 10일에 완료된 것을 감안할 때 서천읍성은 늦어도 1440년(세종 20)에는 완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천읍성 규모에 대한 문헌 및 지리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문헌기록에 나타난 서천읍성의 규모

기록	연대	구분		
		둘레	높이	치성
세종실록지리지	1454	160보 4척	·	·
문종실록	1455	2,265척	9~12척	14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1,545척	·	·
		3,525척	10척	·
동국여지지	1656	3,525척	·	·
여지도서	1757~1765	3,525척	10척	·
충청도읍지	1724~1845	3,525척	10척	17개소

대동지지	1861~1866	3,525척	10척	27개소
1872 지방지도	1872	3,525척	10척	·
서천군지	1929	3,525척	10척	17개소

- ① 읍성은 석성으로 운은산(雲銀山) 아래에 있다. 둘레는 1백 60보 4척이며, 험조하다. 안에 우물 1개소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군창(軍倉)이 있다.(『세종실록지리지』)
  - ② 서천군읍성(舒川郡邑城)은 둘레가 2,265척에, 높이는 평지가 12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 9척이고, 여장의 높이가 3척이며, 적대가 14개소, 문은 2개소에 웅성이 없고, 여장이 5백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가 있으며, 해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다.(『문종실록』 1년 9월경자조)
  - ③ 읍성(邑城)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3,525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그 안에 다섯 개소의 샘과 두 개소의 못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조)
  - ④ 군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3,525척이다. 동·남에 문이 있고, 안에는 5개소의 샘과 2개소의 못이 있다.(『동국여지지』 성곽조)
  - ⑤ 읍성의 성 둘레는 장(丈)으로 계측하면 352장 5척이고 척(尺)으로 계측하면 3,525척이며, 보(步)로 계측하면 587보 2척이다. 높이는 장(丈)으로 계측하면 1장이고 척(尺)으로 계측하면 10척이며 보(步)로 계측하면 1보 4척이다.(『여지도서』 성지조)
  - ⑥ 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3,525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웅성 17곳, 곡성 1곳이 있다. 성내에는 5개소의 샘과 1개소의 못이 있다.(『충청도읍지』 성지조)
  - ⑦ 읍성은 둘레가 3,525척이며 샘은 5개소, 못은 2개소가 있다. 치성은 27개소이고 동·남 2곳에 문이 있다.(『대동지지』 성지조)
  - ⑧ 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3,525척이고 높이는 10척이다. 웅성은 17곳에 있고 성내에는 5개소의 샘과 1개소의 못이 있다.(『서천군지』)
- 『세종실록지리지』 내용은 현재 위치로의 읍성 축조 이전에 운영하였던 읍성이 수록된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고읍성(古邑城) 영취산 산마루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1천 5백 45척이며, 안에 우물 하나가 있다. 세종(世宗) 때에 그 지대가 외지고 막혔다 하여 지금의 읍터로 옮긴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과 같이 ‘외지고 막혔다’ 고한 고읍성을 의미한다. ②번은 문종 1년에 도체찰사 정분(鄭芬)이 충청도 읍성을 자세히 조사하여 판정할 때 ‘물려서 쌓을 곳(退築)’으로 수록한 당시의 서천읍성 규모이다. 이때 서천읍성의 둘레가 2,265척으로 좁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규모를 넓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규모를 넓혀 개축한 규모 3,525척이 ③번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지리지에 실려 있어 둘레 1,260척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다.
- 이때 넓은 규모를 산정하는데 우선 치성(雉城) 개수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 문헌 내용에는 치성을 적대(敵臺)와 웅성(瓮城)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②번 『문종실록』에서는 14개소의 치성이 ⑥번 『충청도읍지』와 ⑧번 『서천군지』에서는 17개소로 수록되어 있으며, ⑦번 『대동지지』의 27개소는 17개소의 오기로 파악되어 대체로 치성 3개소가 더 증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정밀실측한 결과 둘레는 1,645m이며, 조사 과정에서 치성 16개소가 확인되었다.<sup>1)</sup> 또한, 남문지 부근 지적도에 의하면 동측으로 적대 1개소가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치성은 모두 『충청도읍지』와 같이 17개소가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서천읍성의 변천

- 축조 이후 1894년까지 서천읍성은 큰 변동없이 유지됨
- 1860년 관사가 성내로 이건되고, 1878년 향청이 웅성문 밖 동변리로 이설
-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공해시설 소실 후 1896년 동헌 등 일부 복원
- 일제강점기 산지형 읍성의 지리적 특성으로 타 읍성에 비해 성벽은 대부분 유지되었으나, 공해시설은 훼손되어 현재 전체 멸실
- 1970년대 이후 수목식재로 성벽 상부 훼손

#### ① 동학농민운동 발생과 서천읍성

- 1860년(철종 11년) 관사를 성내로 이건하였고 1878년(고종 15년)에는 향청을 남문 밖 동변리 민가로 옮긴 기록 등이 있으나, 조선 후기까지 서천읍성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 하지만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면서 서천지역은 동학농민군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1894년 11월 20일 동학농민군의 공격으로 서천읍성이 함락되고 읍성 내에 있던 관아와 민가가 소실되었으며, 1986년(고종 33년) 동헌 등이 개건되었다.
  - 1929년 서천군지 성지조에 옛 성지가 병란으로 불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병란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컫는 것으로, 이때 동학농민군의 공격으로 서천읍성이 함락되면서 읍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 ② 일제시대 서천읍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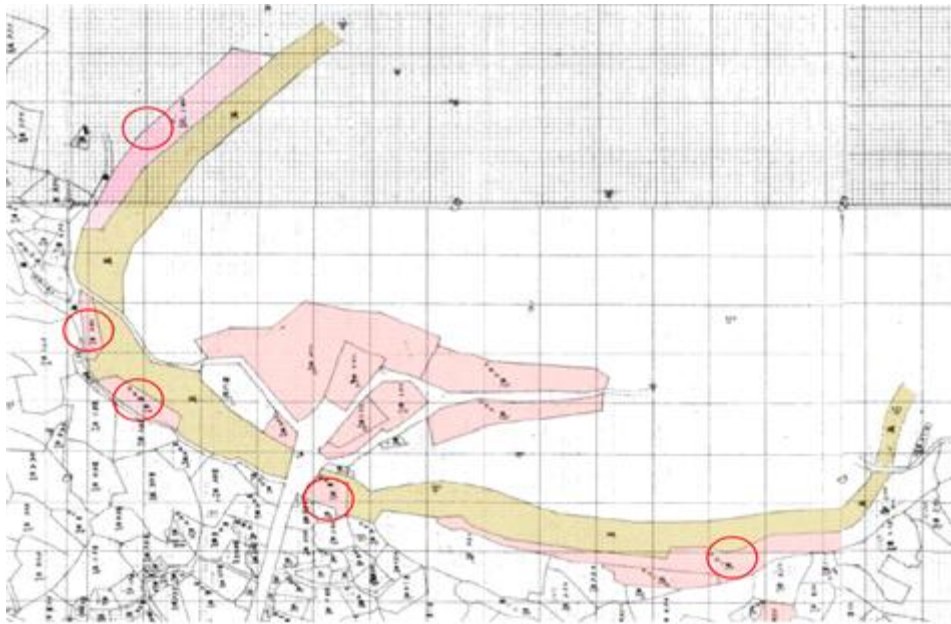
- 서천읍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다. 전국에 있던 읍성은 다양한 과정 속에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1905년을 전하여 본격적인 훼손이 시작되었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일본의 시가지 조성 사업 등으로 훼손이 진행되었다. 특히 1910년 ‘조선읍성 훼손령’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읍성이 무수히 철거되었다.
- 서천읍성 공해시설 역시 군청 등의 근대건물등의 신축으로 이 시기 멸실되었다.
- 일제시대 서천읍성의 성벽이 어떻게 잔존하고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자료는

1) 다나건축사사무소, 2015, 「서천군 읍성(서천, 비인, 한산)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일제시대의 경우 지적원도를 통해, 현대의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 우선 지형도를 보면 일제 강점기 서천읍성의 성벽은 유효하게 남아 있었다. 다른 읍성이 점차 소멸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천읍성의 성벽은 거의 온전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충청도 대부분의 읍성이 위치한 자연환경이 평지인데 반하여, 서천만은 유일하게 산지에 읍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sup> 읍성 내부 공간도 경사가 존재하고 있어서 앞서 주로 남쪽 공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고, 성벽의 훼손을 통한 읍치 시가지의 확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러나 지적원도를 통해 미세하게 성벽이 조금씩 훼손되는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아래는 1913년 지적원도의 성벽을 보여준다.

1913년 성벽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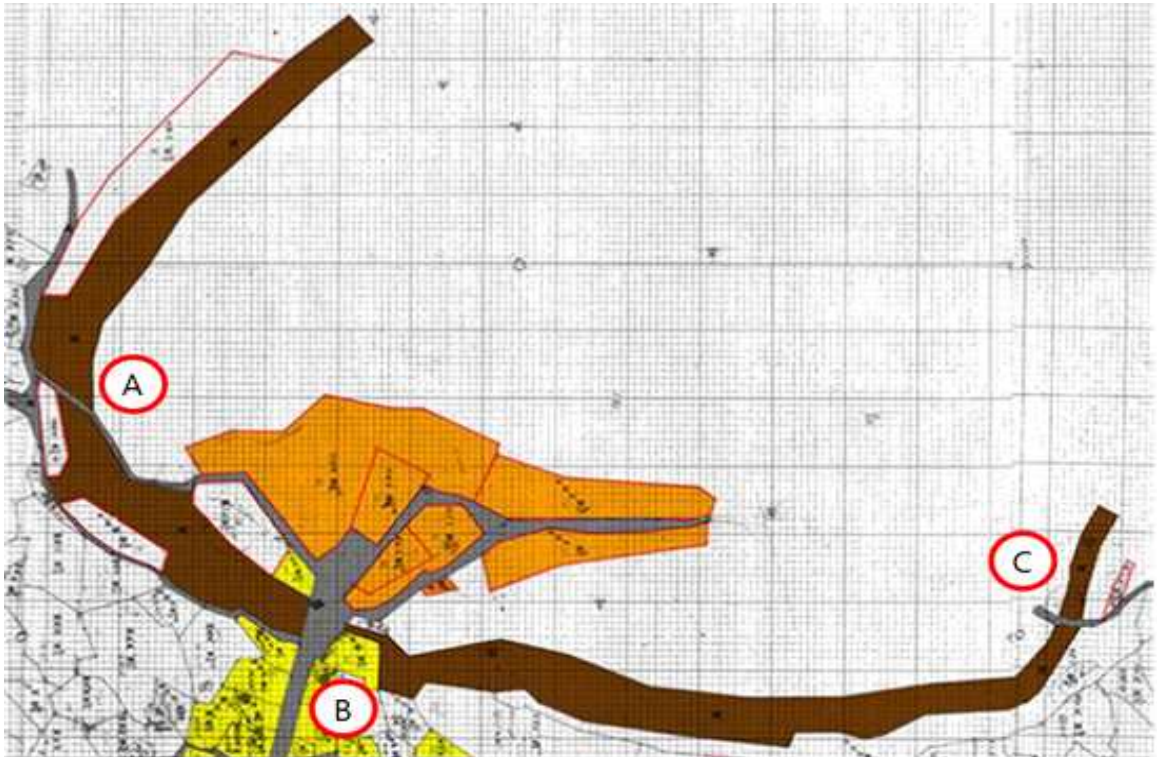


- 위 지도를 보면 갈색으로 표시된 공간은 지목이 성(城)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에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만 성벽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지목은 성벽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가리킨다. 일부는 대지이기도 하고 일부는 전답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지도 사실은 성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서쪽 부분의 경우에는 성벽의 일부가 훼손되어 전답으로 전환된 흔적들이다. 그러므로 1913년 이전에 이미 성벽의 일부는 전답이나 대지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저 부분에만 국유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읍치 내 국유지 공간은 대부분은 대지이며 관청이 있었던 필지이기 때문이다.
- 성벽은 시가지를 구성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로의

1) 김희정, 앞의 논문, 83쪽.

개설에 있다. 1913년 지적원도에서도 성벽의 일부에 도로가 개설된 흔적이 보인다.

1913년 성문과 도로



- 읍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B였다. 이곳에 남문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 안의 공공시설과 성 밖의 읍치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벽을 관통하는 도로의 폭도 가장 넓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 어느 고지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동문과 서문이다.
- 읍성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진 1872년 지방지도를 보면 C에 위치한 공간에는 별도의 도로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벽을 관통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를 지적원도를 통해서 보면 위의 지도와 같게 된다. 매우 작은 소로(小路)로 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처음부터 매우 작은 암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C에서 연결된 도로는 성 밖으로는 서천향교와 바로 연결되고 성 안으로는 공해 시설과 연결되는데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산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가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도로의 개수와 같은 것도 거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문제는 A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문이다. 서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1872년 지방지도에서 보이지 않으며 이후의 고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일한 자료는 1871년 『호서읍지』에 있는 서천군사례의 기록이다. 여기에 동문, 서문, 남문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지도에서 표기되지 않은 것은 C의 동문보다 더 이용이 적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지도에 표기가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원도는 보면 특이하게 A의 도로 성벽과 직각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성벽이 기능을 다하여 성벽 위로 길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A는 문이라기 보다는 통로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한다. 1871년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통로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③ 해방 이후 서천읍성의 변화

- 해방 이후에도 지형도를 보면 읍성의 성벽은 매우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아래는 각 연대별 서천읍성의 지형도를 보여준다.

1960~90년대 서천읍성의 지형도



1960년대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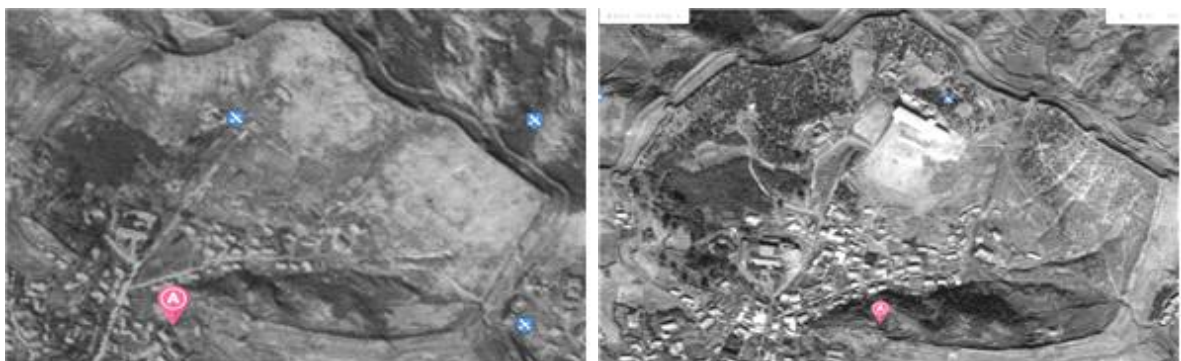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형도를 보면 읍성의 북쪽과 동쪽은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어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남문 주변이다. 남문 주변이 넓은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읍성 안에 군청이 일찍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문 주변의 성벽은 시가지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 결림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960년대부터 이미 일찍이 남문 주변의 성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점차 민가가 들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서천읍성의 변화



1947년

1966년



1973년



1978년



1984년



1992년

\*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 위 항공사진을 보면 1947년부터 1992년까지의 변화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성벽이 매우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남문 주변과 서쪽 통로 사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벽은 치성 조차 매우 상세하게 잘 보일 정도로 온전하다. 다만 읍성 내 건축물은 1947년 당시에는 매우 적었으나 1966년부터 서천여자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수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서쪽 통로 부분은 1984년과 1992년 사이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고, 동문의 경우에도 도로가 개수되면서 통로가 넓어진 사실을 볼 수 있다.
  - 특히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단편적인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렸다.
    - 서천읍성 날로 훼손
- [충남]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서해안 방비와 왜구의 침입을 막는 요새로 이용되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읍성(문화유산자료 제132호)이 날로 훼손되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 서천읍성은 8.15 이후 계속 방치돼 일부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인근 도로공사와 민간 건축에 옮겨져 사용됐는가 하면 일부 성터는 밭으로 개간되거나 묘지로 이용되는 등 날로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sup>1)</sup>
- 1970년대 말까지 서천읍성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산지에 조성되어 평지 읍성과는 다르게 시가지 조성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 『동아일보』 1985년 2월 25일, '간추린 전국 뉴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읍성 내부에 건물을 들어서고 남문 앞 성벽 바로 앞까지 도로 개수 및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성벽의 자재들인 도로 공사나 민간 건축에 이용되고 있었다. 서천읍성의 보존 및 훼손 예방을 위해 1985년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 4) 서천읍성의 주요 연혁

- 1438년(세종 20) 최윤덕의 건의로 서천읍성 축조 논의
- 1438~50년(세종 20~32) 서천읍성을 축조하고 남산성에서 서천읍성으로 읍치를 옮김
- 1894년(고종 32) 동학농민운동으로 동헌을 비롯한 서천읍성의 공해시설이 소실
- 1896년(고종 34) 서천군수 유기남이 서천읍성의 공해시설을 복구
- 1914년 서천·비인·한산이 통폐합되고, 서천읍성 내에 군청사 설치
- 1985년 5월 서천읍성이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및 관리

서천읍성 주요 연혁

구 분	주요내용	자료
백제시대	백제시대에 설립군(舌林郡)	삼국사기
756년(경덕왕 15)	설립군(舌林郡)에서 서림군(西林郡)으로 개명	삼국사기
1018년(현종 9)	서림군을 가림군에 속하게 하고 이후 감무를 두었음	고려사
충렬왕시기	서림군 출신 이언충의 공로로 서주(西州)로 승격	고려사
1352년(공민왕 1)	포왜사(捕倭使) 김휘남과 부사(副使) 장성일이 전함 25척 이끌고 왜구와 전투, 착랑·안흥·장암에서 적선 1척 나포	고려사
1352년(공민왕 12)	양광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임명된 이순(李珣)이 장암에 출진	고려사
1380년(우왕 6)	나세, 심덕부, 최무선의 함대가 진포에 침입한 왜구의 선박 500척 파괴하고 승리(진포대첩)	고려사
1413년(태종 13)	서주(西主)에서 서천군(舒川郡)으로 군명변경	조선왕조실록
1419년(세종 1)	왜적이 도두읍곳을 공격하고 비인읍성을 공격함. 지서천군사 김윤이 구원출병함	조선왕조실록
1426년(세종 8)	서천포에 병선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언급하여 조선 초기부터 수군진으로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됨	조선왕조실록
1438년(세종 20)	최윤덕의 건의로 서천읍성 축조 논의	조선왕조실록
1438~50년(세종 20~25)	서천읍성을 축조하고 남산성에서 서천읍성으로 읍치를 옮김	조선왕조실록
1860년(철종 11)	군수 양경수가 성밖에 있던 관사(내아)를 서천읍성 서쪽 안으로 이건	서천군지(1929)
1878년(고종 15)	향청이 용성문 밖 동변리에 이설되고, 여사(閭舍)는 추후 개건	서천군지(1929)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으로 동헌을 비롯한 서천읍성의 공해시설 소실	서천군지(1929)
1896년(고종 33)	서천군수 유기남이 서천읍성의 공해시설을 복구	서천군지(1929)
1914년	서천·비인·한산이 통폐합되고, 서천읍성 내에 군청사 설치	서천군지(1929)
1921년	기존 청사 철폐 후 신청사(목조건물) 건립	서천군지(1929)

1931년	서천군청 회의실 증축	군청 증축계획
1966년	서천군청(콘크리트) 준공	관련 기사
1985년	서천읍성이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및 관리	고시문
2015년	서천읍성 정밀실측조사	관련보고서
2016년	서천읍성 정비계획 수립	관련보고서
2017년	서천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관련보고서
2018년	서천읍성 동문지~동남성벽 발굴조사	관련보고서
2019년	서천읍성 남서 치성구간 발굴조사, 서천읍성 성벽 보수공사	관련보고서
2020년	서천읍성 남측 성벽 발굴조사	관련보고서
2021~22년	서천읍성 남측 성벽 및 서문지 시·발굴조사	관련보고서
2023년	서천읍성 성내 시굴조사	관련보고서
2024년	서천여고 시발굴조사	관련보고서
2024년	서천읍성 남벽 정비공사	관련보고서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1) 역사적 가치

#### ■ 조선 초기 산지형 연해읍성의 상징성 및 희소성을 가진 유적

- 조선 초기 연해읍성 축조정책을 주도하던 최윤덕이 앞장서 서천의 지리적 중요성 강조 및 서천읍성 우선 축조 주장
  - ▶ 충청도 내륙 관문으로써의 중요성 주장
- 고읍성의 전통을 이어 계획적으로 산지에 축성하여 특별한 방어시설을 갖춘 읍성
  - ▶ 산지형 읍성 중 최대 방어용 유구 및 치성 설치

- 서천은 금강의 입구로, 고대시대부터 국제무역의 관문임과 동시에 외적이 서천을 통해 내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주요 요충지이다. 이는 서천지역에서 벌어진 백제시대 기벌포 전투와 고려시대 진포대첩을 통해 알 수 있다.
- 고려 말부터 이어진 왜구의 노략질은 전국의 바닷가 마을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왜구들은 주로 하삼도 일대를 침략하였는데, 서천군 일대도 금강을 타고 충청도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이 잦았다. 남방의 왜구들이 충청도 내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할 때, 서천읍을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천읍 일대는 왜구 방비의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다.
- 태조~세종 연간에는 ‘수군’을 정비하는 한편, ‘수군’ 중심의 해방책(海防策)을 수립하여 충청·경상·전라 하삼도 지역에 창궐하는 왜구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읍성 축조, 군사 편제 정비 등 서해안 연습의 방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세종 즉위 이후 조선은 읍성(邑城)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어 전략을 구상했다. 서천읍성은 이러한 방어전략 속에서 탄생 되었다.
- 내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지리적 중요성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1438년

최윤덕과 신개는 “서천은 해구(海口)와 가까워서 바로 충청도에서는 적을 받는 첫 길목이 될 것입니다. 적의 배가 전라도로부터 올 것 같으면, 마닷길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서천으로 와서, 비인(庇仁)·남포(藍浦)·홍주(洪州)·서산(瑞山)·태안(泰安) 등지를 거쳐 당진(唐津)·면천(沔川)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천읍성을 먼저 축조해야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서천읍성 축조 당시 서천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충청도에서 왜구를 맞는 첫 번째 길목이라는 점이 강조된 결과이다.

- 내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왜적의 침입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적에게 서천이 점령당하면 적들이 충청 내륙지역으로 진출하는 건 시간문제였으므로, 서천읍성은 절대 뚫려서는 안되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서천읍성은 축조 당시에 의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하게 축조되었다.
- 따라서 서천읍성은 조선 전기 방어체계가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사사·축성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조선 전기 연해읍성과 관방성의 축조수법을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 세종조 전국적으로 읍치가 산성에서 평지로 옮겨지는 와중에 서천읍성은 이전시기 고읍성의 전통을 이어 포곡식 산성을 축조하여 읍치로 삼았다. 이런 산지형 읍치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다.
- 또한,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 과정 및 1872년 서천군지도를 통해 백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천지역 읍치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읍성이다.

1872년 서천군지도(읍치이건)



세종실록 서천읍성 축조논의 기록



## ■ 조선 초기 호서지역 읍성 축성기술의 특징 및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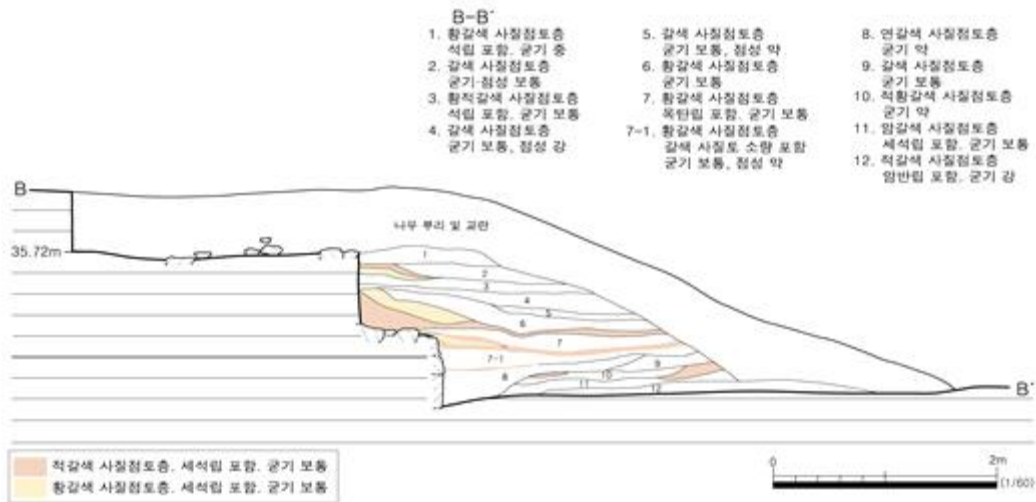
- 조선 초기 축성신도에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읍성으로 계단식 내벽과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
  - ▶ 조선 초기 축성법의 변천과 기술사적인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
- 조선 초기 호서지역 연해읍성의 대표적인 축성기술을 볼 수 있는 유적
  - ▶ 동문 : 평면 ‘凸’자형, 외벽에서 8.9m 너비의 개구부응 동문지 양 측벽에서 4m 정도 들여서 축성
  - ▶ 성벽 : 조선 초기 『축성신도』의 규정을 충실히 반영
  - ▶ 방어용 유구 : 평면 원형 및 방형 형식, 성벽을 따라 1.5~2m 간격으로 1~2열 방어용 유구배치
  - ▶ 해자 : 단면 ‘U’형으로 외벽은 석재를 사용, 내벽은 경사면의 암반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

- 조선시대 읍성은 석성, 토성, 목책 등으로 축성되었다. 그런데 최윤덕이 세종 16년에 건의한 바와 같이 ‘고려 때에는 모두 흙으로 성을 쌓아 민력만 낭비하고 공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축성할 석재가 없는 곳이 없는 만큼 마땅히 석성을 쌓아 영구하게 하십시오’<sup>1)</sup>라고 하여 석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 세종 20년에는 「축성신도」를 반포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석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는데, 그 부작용이 곧 드러나기도 하였다. 세종 25년에 이보흠이 제시한 「축성신도」에 대한 대안을 보면, 「축성신도」는 석재로 16척이 되도록 뒤채움하고, 그 위에 박석을 펴서 계단처럼 만든 것인 듯한데, 축성에 사용되는 많은 돌을 구하느라 시간이 허비되어 축성을 완료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위에 흙을 단단히 다져 쌓아서 우수(雨水)가 성벽으로 침투하지 않고, 성내로 흘러내리도록 하였는데, 서천읍성 성벽에서도 「축성신도」에 의한 축성법으로 생각되는 성벽이 발견되었다. 서남우치성에서 서벽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보면 뒤채움석을 계단상으로 쌓아 올리고 있다.
- 서천읍성의 서벽에서 발견된 축성법은 「축성신도」가 실제 축성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축조 시기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서벽이외의 구간에서는 한양도성 방식의 내탁식 축성법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서천읍성은 축성신도의 계단식 축조기법과 한양도성의 내탁식 축조기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희귀 사례이다.
- 서천읍성은 전국의 중요 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14~15세기의 축조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 과정 및 읍치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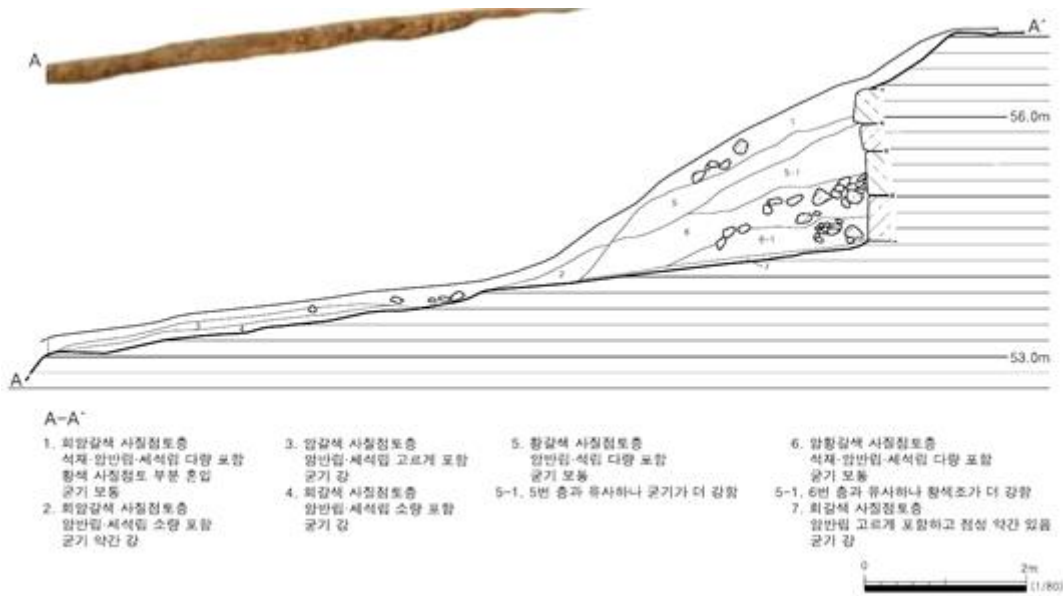
1)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계축.

- 자연 경사면사면을 그대로 활용한 편축식으로 성벽을 축성하고, 외벽은 기저부 조성→지대석반침→지대석→기단석→면석 순으로 조성하였다.
- 동문지의 문지는 역凸자 형으로, 개구부와 문구부를 갖춘 형태이다. 이때 문구부의 폭은 8.5m인 반면에 성문의 출입구 폭은 3.1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에 유리하다. 즉 성문 역시 방어적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해자는 암반을 ‘U’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하고, 내부에서는 석축렬 및 목익흔 등이 확인되었다.
- 방어 시설용 방어용 유구(목책 또는 사선목인시설)는 체성과 해자의 방향에 따라 1.5~2m 간격으로 모두 106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으로 내부에 잠석을 시설하였다.
- 서천읍성은 성벽과 해자 사이에 펼쳐져 있는 평탄면에 한줄 혹은 두줄로 성벽과 나란하게 방어용 유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벽과 해자 사이에 놓여 있는 시설물이고, 성벽을 따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마장 설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양마장으로 비정된다면 하동읍성, 남원읍성에 뒤이어 발굴조사를 통해 양마장의 실물이 발견된 사례가 될 수 있다.

서남쪽 체성 계단식 축조기법



## 남쪽 체성 내탁식 축조기법



## 2) 학술적 가치

### ■ 조선 초기 호서지역 연해읍성 중 성벽의 잔존성이 양호한 유적

- 성벽 93.3%이상 잔존하고, 치성 17개소 중 16개가 잔존하여 잔존상태가 타 읍성에 비해 양호
    - ▶ 약 60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성벽, 해자 등을 유지
  - 시발굴조사 결과 성문(동문지, 북문지) 2개소 위치 등이 확인
  - 대규모 방어용 유구, 해자 등의 잔존성이 높음
    - ▶ 남문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확인
  - 성벽 주변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경관 유지
    - ▶ 일제강점기 지형도, 1940~2023년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 가능
- 서천읍성의 전체 성벽 길이는 1645m 중 잔존한 성벽은 약 1,535.5m로 약 93.3%가 잔존하고 있으며, 성벽의 지형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문헌에서 확인된 14개 치성 외에 남문지 주변에 2개의 적대가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그 원형 또한 잘 남아있다.
  - 읍성이 축조되고 60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서천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음. 60~80년대 항공사진을 통해 성벽 원형과 원지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 서천읍성이 다른 읍성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치성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천읍성에서 발견된 16개소의 치성은 그 자체로 서천읍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 기록에서 문종실록에서 14개로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 후기 기록에 17개로 기록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총 16개의 치성이 잔존하고있다

- 남문지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보기 드문 방어용 유구와 해자 등의 방어시설이 대규모로 발견되었다.
- 서천읍성은 문지와 성벽 및 치성과 해자 등 읍성의 구조와 특징을 원형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충남의 대표적인 읍성이다.

1947년 서천읍성 항공사진



1966년 서천읍성 항공사진



## ■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해자, 방어용 유구 등 확인된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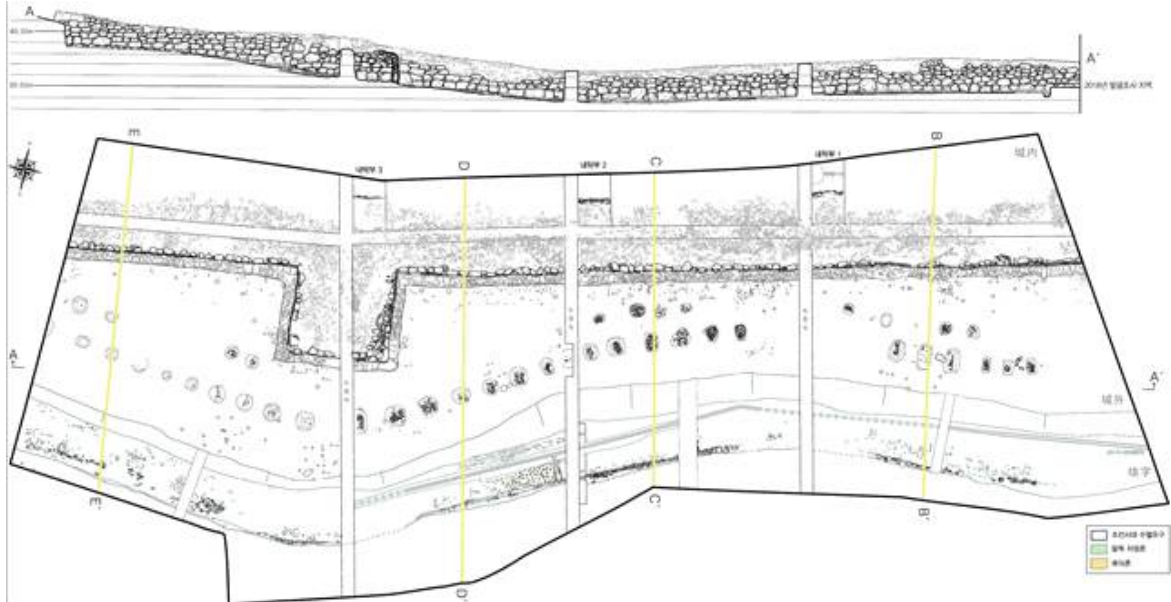
-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해자, 방어시설용 유구 등이 발견
- 읍성 방어시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읍성 방어시설의 배치와 구성을 알 수 있는 대표 문화유산

- 서천읍성에 설치된 방어시설로는 성벽, 성문, 여장, 치(적대), 해자 등을 들 수 있다. 축조 초기 문헌에 “치성이 14개에 해자는 지형이 험하여 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치성이 16개가 확인되고 문헌기록에서 나오지 않는 해자와 방어시설용 유구 등의 다양한 방어시설이 확인되었다.
- 해자는 단면 ‘U’자 형태를 하고 있다. 해자의 바깥쪽 벽면은 석축하였고, 안쪽 즉 성벽쪽은 자연지형을 수직으로 깎아 성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벽 지대석과 해자 바닥면은 3.3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쉽게 건널 수 없는 크기로 해자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함정시설용으로 추정되는 유구는 체성과 해자 사이에 위치하며, 평면 원형 및 방형으로, 체성과 해자의 방향에 따라 1.5~2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체성 외벽을 기준으로 1~2열을 이루며, 규모는 길이 약 110~240cm, 너비 약 70~190cm, 잔존깊이는 20~70cm 정도로 매우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 치성은 문헌기록상 조선 초기에 14개소, 조선 후기에 17개소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치성이 16개가 확인되었다. 이는 유사 읍성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치성이 설치된 것이다. 이는 서천의 지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서천읍성의 여장 또한 조선 초기 500첩, 조선 후기 756첩으로 척수 대비(1첩당 약 4.6척) 가장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756첩의 여장 수는 한때 충청병영성이었던 해미읍성의 688첩 보다 많은 수이다.
- 해자, 치성, 함정시설용 유구 등을 비롯하여 동문지 역시 그 축조방식에서 방어적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서천읍성의 동문지는 일반적인 다른 읍성의 문지와 달리 성문의 출입구 앞쪽에 문구부(門口部)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구부로 들어선 다음, 다시 성문의 출입구를 통과해야만 성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때 문구부가 성문의 출입구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문구부에서 성내로 진입할 때 자연스럽게 병목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문구부의 폭은 8.5m인 반면에 성문의 출입구 폭은 3.1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방어에 유리한 셈이다.
- 체성, 치성, 해자를 비롯한 방어 관련 유구가 모두 잔존해있어, 성 외부로부터 해자와 목익(땅에 박아놓은 목창), 방어시설(함정 혹은 목책 추정), 성벽·치성으로 구성된 방어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천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방어시설의 구성과 배치를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 특히 서천읍성은 다른 일반적인 연해 읍성과 달리 나지막한 구릉을 이용하여 포

곡식 형태로 축조되어 밖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산지형 읍성의 특이한 관아배치와 성내시설과 관련된 공해시설이 밝혀질 경우 산지형 읍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서천읍성 성벽 평면도



### 3) 다른 읍성과의 차별적 특성

- 서천읍성의 전체 성벽 길이 1,645m 중 잔존한 성벽은 1,535.5m로 약 93.3%가 잔존
- 성문지 3개소 중 동문 및 북문 확인, 치성 17개소 중 16개 잔존(1개소는 남문지 주변으로 추정)
- 성벽을 둘러싼 대부분 지형이 원형 보존 ⇨ 3 단계 외부 방어시설의 원형 확인

서천읍성 3단계 방어시설



- 조선 초기 읍성 중 소수인 포곡식 산성으로 축조(33개 읍성 문화유산 중 5개소만 확인되는 특이한 사례)
  - 조선시대 읍성은 평지성(51.5%), 평산성(33.4%)으로 대부분 구성,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읍성 문화유산(33)중 5개소만 포곡식 산성으로 축조
  - 테피식 산성의 고읍성(남산성)에서 조선시대 포곡식 산성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 줌
- 지정된 읍성 문화유산 중 가장 많은 치성이 축조되었고, 해자,品茶형 갱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해자 사이의 목익흔 등 읍성 외부의 다양한 부속 방어시설 구비
  - ↳ 지리적, 군사적 중요성이 반영된 읍성

번호	종별	문화유산명	축성시기	문헌기록(여지도서)			잔존유적 현황							비고	읍성형태	
				성벽 둘레(척)	높이(척)	치성/여장/옹성	성벽 둘레(m)	성벽 잔존(m)	잔존율(%)	성벽 높이(m)	성문(문루)	치성	해자			옹성
1	사적	경주읍성	1378	4075	12	-/-	2300	440	19.13%	3.6	1(1)	2	x	1		평지성
2	사적	서산해미읍성	1491	6630	13	380/-/2	1800	1800	100.00%	5~6	3(3)	2	x	x		평산성
3	사적	고창읍성	1453or속중	3080	12	-/-/-	1684	1684	100.00%	4~6	3(3)	6	x	3		포곡식산성
4	사적	울주언양읍성	1500	3064	13	-	1560	1000	64.10%	4.6	1(1)	8	x	1		평지성
5	사적	홍성홍주읍성	1451	5850	16	7/368/-	1772	810	45.71%	4~5	3(2)	x	x	1		평지성
6	사적	남원읍성	1597	8199	13	1016/-/16	2400	200	8.33%	4	0	1	o	x	양마장o	평지성

번호	종별	문화유산명	축성시기	문헌기록(여지도서)			잔존유적 현황								비고	유적형태
				성벽 둘레(척)	높이(척)	치성/여장/옹성	성벽 둘레(m)	성벽 잔존(m)	잔존율(%)	성벽 높이(m)	성문(문루)	치성	해자	옹성		
7	사적	순천낙안읍성	1424	1590	8	-/660/6	1410	1410	100.00%	4~5	3(2)	4	x	3		평지성
8	사적	나주읍성	1457~59	3126	9	-/2513/-	940	100	10.64%	1~2.4	3(3)	x	x	2		평지성
9	사적	고창무장현관아와읍성	1417	2639	7	-/-/-	1200	580	48.33%	2~5	2(1)	x	x	2		평지성
10	사적	포항장기읍성	1439	2980	10	-	1440	1300	90.28%	3.7~4.2	3(1)	9	o	2		포곡식산성
11	사적	하동읍성	1417	1019	13	-	1400	1400	100.00%	1~5.2	2(0)	8	o	2	양마장o	포곡식산성
12	부산광역시 기념물	동래읍성지	1387	17291	17	-	5187	1962	37.83%	1.5	2(2)	8	o	2		평산성
13	충청남도 기념물	남포읍성	1390	2476	15	-/26/-	900	790	87.78%	3.6	3(0)	4	-	3		평지성
14	경상남도 기념물	창원웅천읍성	1434	3514	15	-	-	500	-	4.4	1(1)	3	o	1		평지성
15	인천광역시 기념물	교동읍성	1629	1006	3장	3/-/4	-	430	-	6	1(1)	2	-	0		평산성
16	전라남도 기념물	홍양현읍성	조선 태조	3800	12	13/322/2	-	300	-	5.7	3(0)	3	-	-		평산성
17	부산광역시 기념물	기장읍성	1391	3197	12	-	-	100	-	3	1(0)	x	x	1		평지성
18	경상남도 기념물	창녕영산읍성지	조선 선조	3810	12.5	-	-	100	-	2.5~3	1(0)	x	-	x		평산성
19	충청남도 기념물	당진면천읍성	1439	2526	9	7/572/1	-	1200	-	3.6	1(1)	2	-	1		평지성
20	경상북도 기념물	청도읍성	1592수축	1570보	5.5	-/600	-	924	-	1.7	2(2)	3	-	2		평지성
21	경기도 기념물	안산읍성 및관아지	고려후기	9565	-	-/-/-	-	772	-	-	x	x	x	x		평산성
22	경상남도 기념물	사천읍성	1445	5015	15	-/630/6	-	300	-	-	x	1	-	x		평산성
23	충청남도 기념물	홍성결성읍성	1451	3325.8	14	1/0/2	-	-	-	-	1(1)	5	o	1		포곡식산성
24	경상남도 기념물	밀양읍성	1479	4670	9	-/1580/-	-	465	-	2.8	1(1)	1	-	x		평산성
25	충청남도 기념물	태안읍성	1416~7	1561	12	-/171/-	-	120	-	4	1(1)	x	o	1		평지성
26	전라남도 기념물	강진읍성	1478	8402	9	8/870/-	-	700	-	-	1(0)	-	-	1		평산성

번호	종별	문화유산명	축성시기	문헌기록(여지도서)			잔존유적 현황							비고	유적형태	
				성벽 둘레(척)	높이(척)	치성/여장/옹성	성벽 둘레(m)	성벽 잔존(m)	잔존율(%)	성벽 높이(m)	성문(문루)	치성	해자			옹성
27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광주읍성 유허	1437	8253	9	-/-/-	-	-	-	-	-	x	o	x		평지성
28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고성읍성	1442	3524	15	-/-/-	-	-	-	-	-	-	-	-		평지성
29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서천읍성	1439~51	3525	10	-/-/-	1645	1535.5	93.34%	4	1(1)	16	o	x		포곡식산성
30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비인읍성	1430	3505	12	-/20/2	-	955.6	-	4	x	1	o	x		평지성
31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한산읍성	1496~중종	4070	11	1/-/5	-	1450	-	3	1(1)	2	o	1		평산성
32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진도읍성	1440~46	2400	11	-/58/14	-	320	-	2~3.5	x	5	o	x		평산성
33	중요민속 문화유산	정의현성	1423	2986	13	-/-/-	-	1410	-	3.8	3(3)	8	-	3		평지성

### 6.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면적: 13필지 / 18,745.8㎡  
 보호구역 109필지 / 91,748.9㎡  
 합계: 122필지 / 110,494.7㎡

####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3-1	임	28,242.0	4,115.1		
2		산3-7	임	10,413.0	2,290.0		
3		산3-8	임	34,797.0	6,287.5		
4		산3-13	임	1,896.0	169.9		
5		산4-1	임	4,029.0	1,590.8		
6		352-2	전	2,164.0	54.7		
7		358-25	도	786.0	65.9		
8		359-21	임	27,968.0	3,954		
9		382-5	전	642.0	2.1		
10		382-11	전	1,344.0	8.7		
11		419-2	임	116.0	45.9		
12		산4-1	임	4029	60.5		
13		359-21	임	27968	100.7		
계		13필지		144,394.0	18,7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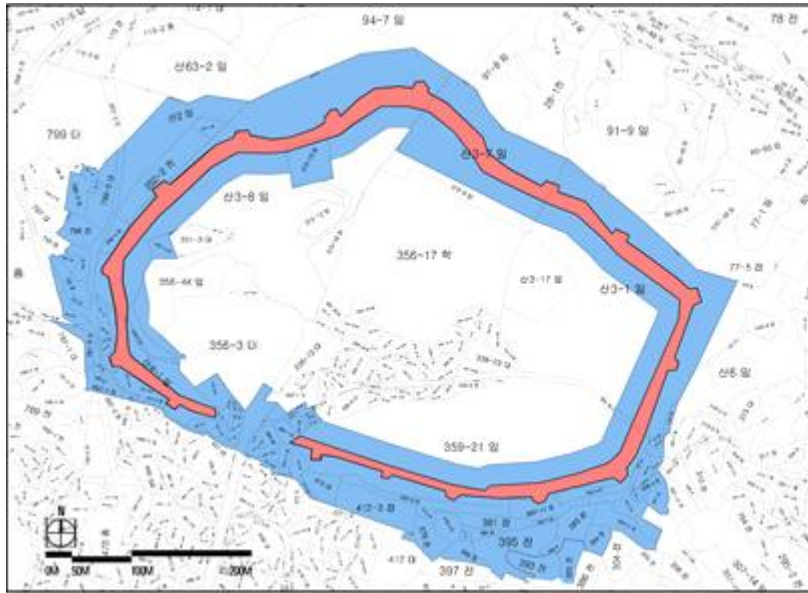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2	임	5,752	4,080.9		
2		산3-1	임	28,242	12,935.2		
3		산3-7	임	10,413	8,123.0		
4		산3-8	임	34,797	15,768.2		
5		산3-13	임	1,896	1,726.1		
6		산3-15	임	392	392.0		
7		산4-1	임	4,029	2,377.7		
8		307-1	전	1,074	1,074.0		
9		308-1	전	495	495.0		
10		308-2	전	798	798.0		
11		308-3	전	48	48.0		
12		308-4	전	250	250.0		
13		308-5	전	75	75.0		
14		312	전	149	149.0		
15		351	전	129	129.0		
16		351-1	전	175	175.0		
17		351-7	대	9	9.0		
18		351-8	전	11	11.0		
19		352-1	전	403	403.0		
20		352-2	전	2,164	2,109.3		
21		352-3	도	828	356.5		
22		352-4	전	481	481.0		
23		353-1	대	162	162.0		
24		353-2	전	169	169.0		
25		353-3	전	122	122.0		
26		353-4	전	66	66.0		
27		354-1	대	744	744.0		
28		355	대	93	93.0		
29		355-1	대	132	132.0		
30		355-3	대	456	456.0		
31		355-4	대	222	222.0		
32		355-5	대	132	132.0		
33		355-8	대	66	66.0		
34		355-9	대	63	63.0		
35		358-25	도	786	133.9		
36		356-44	임	3,911	746.5		
37		359-21	임	27,968	9,355.6		
38		360	대	93	93.0		
39		360-3	대	202	202.0		
40		360-5	임	66	66.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41		361-11	도	264	139.1		
42		361-12	대	36	36.0		
43		361-15	전	23	23.0		
44		361-16	전	40	40.0		
45		362-1	대	1,014	167.2		
46		363	대	344	344.0		
47		363-1	대	346	346.0		
48		363-3	대	103	103.0		
49		364-1	대	172	172.0		
50		364-2	대	3	3.0		
51		364-3	대	13	13.0		
52		364-5	대	188	188.0		
53		364-8	대	222	222.0		
54		364-9	임	354	354.0		
55		364-10	임	21	21.0		
56		364-11	대	314	314.0		
57		364-12	도	25	25.0		
58		378	전	949	949.0		
59		379-1	전	126	126.0		
60		379-2	전	608	608.0		
61		379-3	전	198	198.0		
62		380	전	264	264.0		
63		381	전	813	813.0		
64		382-1	전	648	164.3		
65		382-2	전	86	86.0		
66		382-3	전	132	132.0		
67		382-4	전	278	278.0		
68		382-5	전	642	639.9		
69		382-6	전	1,360	1,360.0		
70		382-7	전	112	112.0		
71		382-8	전	3	3.0		
72		382-9	전	125	125.0		
73		382-10	전	17	17.0		
74		382-11	전	1,344	1,335.3		
75		383	전	988	988.0		
76		384	전	575	575.0		
77		394	전	231	231.0		
78		395	전	2,218	2,218.0		
79		396	전	618	618.0		
80		412-3	전	1,996	1,996.0		
81		415	대	763	763.0		
82		415-8	대	151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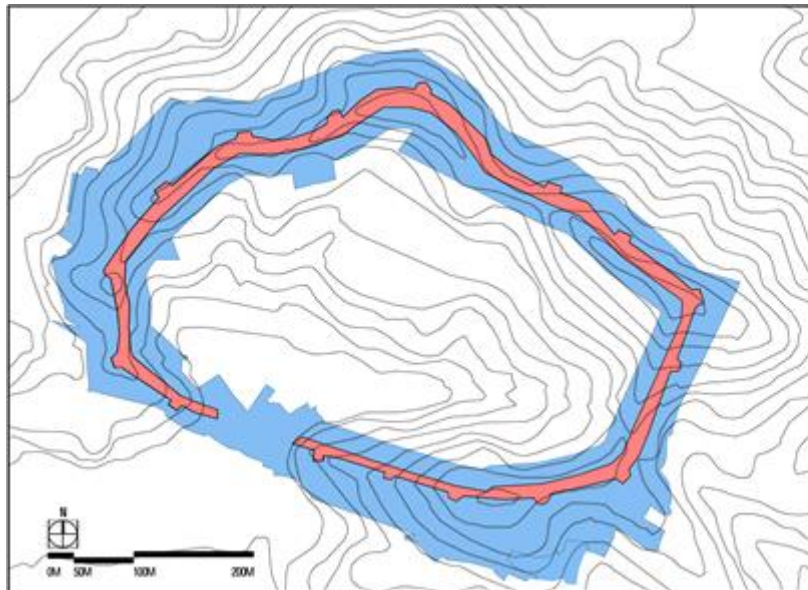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83		419-2	임	116	70.1		
84		419-3	임	648	648.0		
85		419-4	임	194	194		
86		419-5	임	50	50		
87		457-1	대	12	12.0		
88		460	도	93	93.0		
89		461	전	235	235.0		
90		462	전	606	250.0		
91		462-3	전	606	149.0		
92		462-4	전	606	207.0		
93		781-5	도	134	134.0		
94		785-24	전	280	280.0		
95		791	전	165	165.0		
96		792	전	625	625.0		
97		793	임	512	512.0		
98		794	전	231	231.0		
99		796	전	823	823.0		
100		797-1	전	51	51.0		
101		798-2	전	754	754.0		
102		799-3	대	1,225	1,225.0		
103		821-1	도	32,208	976.3		
104		821-6	도	836	87.5		
105		821-18	도	21	21.0		
106		821-73	도	8,632	67.1		
107		821-89	도	113	111.2		
108		821-90	도	1,736	1166.1		
109		821-91	도	361	360.9		
계	109필지			198,663	91,748.9		

□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도면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안
서천읍성
舒川邑城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서리 산3-1
<b>범례</b>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유산
<span style="color: blue;">■</span>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1:0000



문화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안
서천읍성
舒川邑城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서리 산3-1
<b>범례</b>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유산
<span style="color: blue;">■</span>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1:0000

□ 서천읍성 위치도



□ 서천읍성 항공사진



서천읍성 정면 항공사진(2023년)



서천읍성 우측면 항공사진(2023년)



서천읍성 좌측면 항공사진(2023년)



서천읍성 후면 항공사진(2023년)



동문~동남치성 항공사진(성벽 정비사업 후)



남벽 항공사진(성벽 정비사업 후)



동남치성 및 주변 성벽 항공사진



남쪽 성벽 항공사진



남쪽 성벽 항공사진



서남치성 항공사진(성벽 정비사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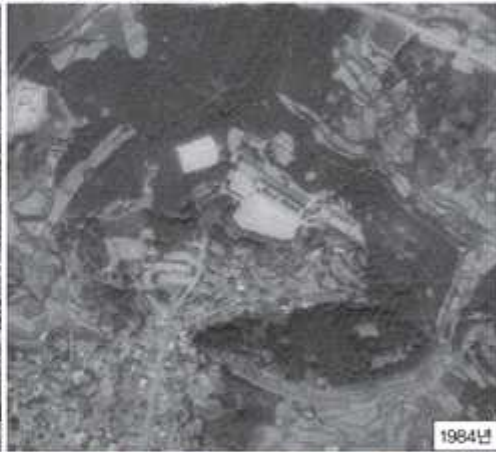
1947년



1966년



1973년



1984년



1989년



2018년

1940~2010년대 서천읍성 항공사진

□ 성벽 구간별 사진

	
<p>북벽 해자구간 항공사진(2023년)</p>	<p>북쪽 성벽구간(상부 면석 잔존)</p>
	
<p>북쪽 성벽구간(상부 면석 잔존)</p>	<p>북쪽 성벽구간(상부 면석 잔존)</p>
	
<p>북쪽 성벽구간</p>	<p>북쪽 치성 성벽구간</p>
	
<p>북쪽 치성 성벽구간</p>	<p>북쪽 성벽구간</p>



서측 치성 성벽구간



서남 치성 성벽구간



동문 구간



동남 치성 구간



동남 성벽 구간



동남 치성 2구간



남쪽 성벽 1구간



남쪽 성벽 2구간



남쪽 치성 구간



남쪽 성벽 구간

□ 세부 현황사진



동문지 및 주변 체성 사진(1번 성외 입면, 2번 성내 입면, 3번 동문지 조사 후 근경)



동문지 북측 개구부 전경(1번 전경 2번, 3번 북측개구부 세부)



동문지 북측 기저부 전경(1번 전경, 2번 기저부토층, 3번 박석)



동문지 남측 개구부 전경(1번 전경, 2번, 3번 남측 개구부 세부, 4번, 5번 지대석 및 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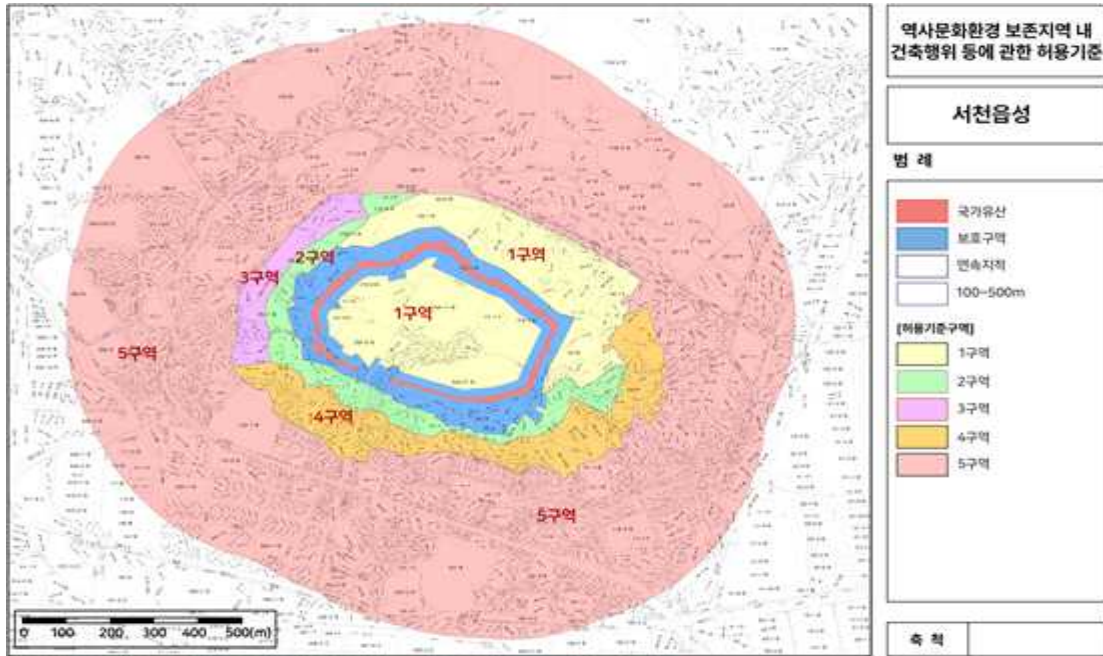
동문지 문구부 북측 전경(1번 전경, 2번 근경, 3번, 4번 문확석 세부)



동문지 문구부 남측 전경(1번 전경, 2번 근경, 3번, 4번 문확석 세부)

## 7. 국가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 검토의견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준용하여 주시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이용도외 내용을 금합니다.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구역	○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시 개별심의함</li> <li>○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단 5구역은 제외함(지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을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과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국가유산청장</li> </ul>	

	<p>과 사전 협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지역 관아 추정지는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ul>
--	--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서천읍성 종합정비계획(2023)

#### 1) 종합분석 및 정비방향

- 서천읍성의 문헌조사 및 유적 현황조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읍성 현황면에서 보면,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관아 및 성벽이 유실되어 일부 성벽을 제외한 대부분 읍성 유적이 유실되었다. 따라서 연차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읍성 유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서천군에서는 서천읍성 동문, 남측성벽, 서측성벽 주변 토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성벽, 관아 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이 필요하다.
- 편의시설면에서 보면, 성곽을 통과하는 탐방로는 있으나, 남문쪽이 차단되어 있어 순환탐방로가 없고, 서천읍성 내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이 부족하며, 개별문화유산 안내판과 방향 표시판 등 여러 안내판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연구 및 활용면에서 보면, 서천읍성 관련 학술연구가 부재하며, 공해건물의 경우 전제적으로 유실되어 관람객은 거의 없으며, 서천읍성 관련 교육 및 활용프로그램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천읍성의 역사적 가치 재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및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 종합분석 및 정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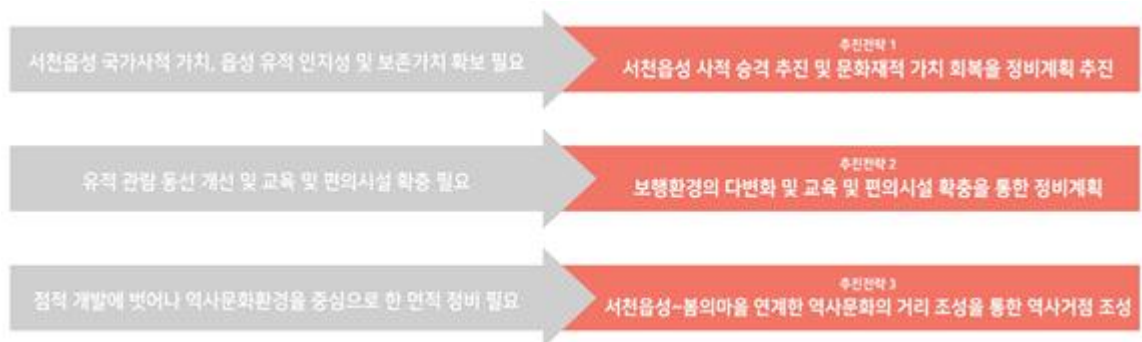


## 2) 목표 및 정비 추진전략 설정

### 국가지정 문화유산적 가치 회복 및 역사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 <세부 추진전략>

- 서천읍성을 크게 3가지 세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유산적 가치 회복을 위해 잔존 현황 및 보존 등급을 고려하여 성벽을 정비하고, 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성벽, 해자를 복원하고, 남문지에 문지 및 성벽 라인을 표시하고 중요 유구를 노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또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구를 파악하고 복원하는 방식으로 공해시설을 정비한다.
- 편의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유산청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통일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성 내외에 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람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제거 및 이식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며, 도로의 보차분리 등을 실시한다.
- 역사적 가치 재정립을 위해 서천읍성 종합 학술연구를 추진하여, 읍성 유적을 재조명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연차별 학술 발굴조사의 추진하여 고증자료 및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술 연구 및 활용프로그램의 운영을 모색한다.



## 3) 종합정비계획(안)

- 사업기간: 2024~2033년(10개년)

### ■ 성벽과 남문지 유적정비

- 성벽과 남문지에 대한 정비를 위해 성벽을 정비하고 발굴조사를 토대로 옛 해자와 수로를 재현한다.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북쪽 성벽구간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발굴조사를 토대로 성벽 정비를 추진한다. 발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남문지 역시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육축부는 노출정비하고, 성벽라인은 표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 서주아문 및 우물, 건물지 정비

- 공해 건물지에 대한 정비 및 복원을 위해 공해 건물지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서주아문을 상징적으로 복원을 진행한다. 이외 공해건물지는 복토

보존하고, 상부 초석 및 기단은 재현 정비한다. 남아있는 우물은 상부 정비한다.

### ■ 서천읍성 방문자센터 및 탐방로 조성

- 서천읍성을 홍보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남문 공원조성부지 앞 서천읍성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서천읍성의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성벽 내외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남문 주변에도 탐방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잔디와 박석으로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 ■ 야간특화경관설치 및 콘텐츠 개발

- 정비된 성벽 주변 전체를 특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서천읍 랜드마크 공간을 형성하여 낮과 밤의 다른 특징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구 서천군청사 건물(서천마루)을 리모델링하는 건물 외관에 대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서천의 역사스토리를 이용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 4) 교통동선계획

- 현재 구 서천군청 주차장이 현황·유지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을 우선 사용하되 서쪽 기존 주차장은 정비하고, 동문 앞에 소형주차장을 조성한다. 남문 앞 신규주차장은 남문지 정비가 완료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조성한다. 성내 보행로는 보차 혼용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로를 정비하여 서쪽 성벽과 동문으로 가는 길을 정비하며, 외부 순환 탐방로를 정비하여 성문을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5) 단계별 정비계획(안)

##### ■ 단기계획(1단계)

- 사업기간: 2024~2028년
- 사업내용
  - 성문, 성벽, 공해건물지 연차별 학술 발굴조사 실시
  - 발굴성벽구간 정밀스캐닝 및 기록화
  - 토지 및 건축물 매입

- 남쪽성벽, 치성, 남문지 지형복원, 해자 및 발굴유구 노출정비
- 탐방로, 안내판, 야간경관조성 및 휴게시설 설치

1단계 정비계획도



■ 장기계획(2단계)

- 사업기간: 2029~2033년
- 사업내용
  - 서주아문 고증연구 및 기본설계
  - 북문지 정비 및 서주아문 복원
  - 공해건물지 및 우물정비, 서천읍성 선정비 이전 정비
  - 서천읍성 방문자센터 건립 및 동문주차장 설치
  - 서천읍성 AR 디지털 복원 및 모형제작

2단계 정비계획도



## 6) 토지 및 건축물 매입계획(안)

### ■ 성벽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보호구역 확대 추진

- 서천읍성의 성벽은 남문지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남쪽 성벽 일부는 면석이 유실되었다. 특히 북쪽 성벽은 상부 면석 등 대부분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복원을 지양하고 원형유적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성벽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남측성벽 경우 약 2~4단 정도의 성벽만 잔존하고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정비되고 있으며 북측성벽은 복원 및 정비공사 이전에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 구간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비가 시행되어야 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원형 성벽 구간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금속지지대 등의 보강대책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대부분의 구간에 해자와 방어시설이 있었던 원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 7) 학술조사계획

<서천읍성 시·발굴 조사계획>

### ■ 남문지 및 건물지 확인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 구 서천군청사의 이전에 따라 기존 주차장 지역 및 군청사 주변지역의 발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건물지 확인을 한다. 또한 남문지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며, 서쪽 성벽구간의 미발굴 구간 및 북문지 시굴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해건물지의 전체적인 확인을 위해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8) 정밀 실측 및 기록화사업 추진

### ■ 동문~남쪽 성벽 발굴구간을 중심으로 연차별 정밀기록화사업 추진

- 서천읍성은 기존 발굴구간을 중심으로 연차별 정밀기록화 사업이 필요하다. 성벽의 역사·고고학적 조사 및 주요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벽의 시대 및 축성기법 분류를 위한 성곽시설 및 성문의 인문학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대역 스캐닝을 통한 전체 성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측량을 통한 서천읍성의 공간정보 구축과 공공측량작업규정에 근거한 기준점 측량을 통해 성곽시설 및 성벽의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기록화를 추진하며, 서천읍성의 보존관리에 3차원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정밀실측조사 및 도면(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등) 작성과 성벽의 높이, 폭, 길이 등 기본제원 조사를 통해 성벽의 정밀실측조사 및 세부도면을 작성한다. 또한 3차원 디지털기록 자료에 유형별 축성기법 및 보존현황 맵핑과 성벽 기록화 자료와 거동모니터링 결과의 연계방안 수립을 통해 성벽의 인문·과학적 속성정보를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서천읍성 3차원 디지털자료의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유산 콘텐츠를 제작한다.

## 9) 유적정비 세부계획

### <성벽 정비계획>

#### ■ 성벽 보존등급 설정 및 기본방향

- 서천읍성의 구간별 조사를 통해 보존현황 및 잔존현황을 고려하여 1~5등급으로 보존등급을 설정한다. 보존등급별 성벽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성벽 구간별 보수 범위를 제시한다. 특히 남측성벽 구간은 부분 보축 등 최소한의 수리를 통해 성벽을 유지한다.
- 1등급 성벽구간 : 돌봄사업단 일상관리
- 2등급 성벽구간 : 돌봄사업단 일상관리 + 일상 모니터링
- 3등급 성벽구간 : 계측 모니터링(주기적 자동 계측) + 일상관리
- 4등급 성벽구간 : 발굴조사 후 유구 확인 + 구조적 문제구간 성벽 보축
- 5등급 성벽구간 : 붕괴위험도가 높은 구간 우선 보수

등급	손상양상	정비계획
1	구조적 변형은 없으며, 성돌 개별부재에 초기 단계의 풍화가 발생한 구간	일상관리+육안 모니터링
2	구조적 변형은 없으며, 성돌 개별 부재에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구간	
3	초기단계의 구조적 변형이 관찰되는 구간	계측 모니터링
4	명확한 구조적 변형이 나타나며, 다양한 손상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성벽의 일부가 유실되어 채움석이 노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구간 성벽이 잘못 재현 및 복원되어 원형 복원이 필요한 구간 발굴조사 후 유적 복토가 되었으나 유적 훼손 우려되는 구간	발굴조사 후 부분보축 정비 + 발굴조사 후 원형 복원
5	성벽이 존재하나 붕괴위험도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수 및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구간 면석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채움석만 존재하여 구조적 불안정성이 높은 구간	긴급보수공사

#### ■ 등급구간별 성벽 정비방향

- 1등급 구간
  - 성벽구간 : 서문지 및 동문지 주변 복원구간
  - 잔존현황 : 발굴조사 후 성벽 재현된 구간
  - 보존현황 : 복원된 상태로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양호한 구간
  - 정비계획 : 돌봄사업단에 의한 성벽 주변 일상 관리
- 2등급 구간
  - 성벽구간 : 서문지~동문지 사이 북측 성벽구간
  - 잔존현황 : 하부 면석 일부(2~8단) 잔존
  - 보존현황 : 구조적 변형은 없으며, 성돌 개별부재에 일부 풍화 확인
  - 정비계획 : 부분 보축 후 변위구간 계측모니터링 유지 관리

○ 3등급 구간

- 성벽구간 : 서측 및 남측 발굴지 성벽구간
- 잔존현황 : 상부 면석이 흘러내려 일부 면석 잔존
- 보존현황 : 면석탈락 및 배부름 등 다수 구조적인 문제 확인
- 정비계획 : 면석 보축 + 뒤채움흙 보강 + 상부 잔디식재 보강

○ 4등급 구간

- 성벽구간 : 서측 및 남측 발굴지 성벽구간
- 잔존현황 : 상부 면석이 흘러내려 일부 면석 잔존
- 보존현황 : 면석탈락 및 배부름 등 다수 구조적인 문제 확인
- 정비계획 : 면석 보축 + 뒤채움흙 보강 + 상부 잔디식재 보강

**■ 성벽 주변 수목 정비계획**

- 서천읍성의 성벽 주변 수목정비는 동문~서벽 간의 성벽위의 수목을 제거하고, 성벽 위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연지를 확인한 후 연지를 조성하며, 주변은 버드나무를 식재한다. 또한 유실구간인 남문지 구간의 지형을 복원하여 읍성을 일주할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한다.
- 수목의 성벽 영향성을 검토하고, 전통 수목 확인 등 성벽 주변 수목 정밀조사를 통해 잔존수목과 잡목제거 범위를 결정하며, 성벽 위 수목과 성벽 주변 수목으로 구분하여 정비계획을 세운다. 성벽 위의 수목은 고사목, 넝쿨, 초화류 전체를 제거하며, 성벽 상부 관목, 교목을 제거, 상부 표토를 정비한다. 성벽 주변의 수목은 성벽 외부 조망공간 확보를 위해 20m 이내의 수목을 제거하며, 성벽 내부 및 외부 비조망공간의 경우 10m 이내의 수목을 제거하여 경사지 보강, 전통 수종 보존을 통한 그늘을 제공한다.

서천읍성 수목 정비계획도



## 10) 성문 정비계획

- 서천읍성 고지도 분석 및 발굴조사 결과 남문지, 북문지, 동문지 3개의 성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문지의 경우 고지도 등을 통해 어느정도 위치가 비정되나 아직 시굴 및 발굴을 통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매입 후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석 및 지대석 등 잔존유구의 확인이 필요하다. 동문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된 상태이고 북문지의 경우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되었다. 북문지 주변은 수목이 자생하고 있어 문지 및 성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발굴조사를 통한 유구 확인 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 남문지 정비계획

- 남문지 정비방향
  - 남문지는 육축부 경계와 문화석 등 문루 설치 구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루 형식 고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석 및 최종 바닥면 기초석이 확인된다면 남문지에 대한 정비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남문지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남문지 주변 토지매입 후 남문지 영역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고증을 통한 남문지 기본설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남문지 정비방향 및 광장조성을 실시한다.



- 단계별 남문지 정비계획
  - 남문지는 3단계에 걸쳐 정비를 실시한다. 1단계로는 남문지 발굴조사 실시하여 기초석 및 지대석 등 잔존유구 확인을 통한 학술고증자료를 확보한다. 2단계로는 남문지 별도 기본설계 후 전문가 자문 및 검토(고고학, 전통건축분야)를 통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남문지 설계안을 수정 및 확정한다. 마지막 3단계로 남문지 실시설계 및 문루 복원을 진행하는데 발굴조사 결과 문루 성격이 규명시 문루 복원은 진행하지 않는다.
- 남문지 정비계획
  - 남문지 유구는 좌우측 지형이 유실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유구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초석 일부 유구 잔존 추정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지대석 등 전체 유실시 성벽 라인 표시 정비를 실시하며, 지대석 등 일부 유구 잔존시 남문지 발굴유구 노출 정비, 낮은 폐쇄형 보호각 설치를 통해 남문지 앞 AR안내판 설치, 방문자센터 VR 가상체험 등을 계획한다.

### ■ 북문지 정비계획

- 북문지 정비방향
  - 북문지는 시굴조사를 통해 문구부가 확인되었으며, 북문지 주변은 개발행위 없이 수목만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발굴을 통해 기초석 및 체성 등 유구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를 확인한 후 문지를 중심으로 유적 노출정비를 통해 북문지의 원형을 노출시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 현재 시굴조사된 문구부는 암문으로 추정되나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북문지의 구조와 형태, 방어시설을 규명한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북문지 문루 구간을 중심으로 발굴유구 표면 강화처리를 통해 발굴지를 정비하고, 상부 보호각 건립 및 전시패널 설치를 통해 북문지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야간조명시설 및 별도 안내판 설치를 통해 관람객에 정보를 제공한다.
- 북문지와 연결되는 성벽구간은 현재 수목자생과 상부 면석이 붕괴되어 성벽 확인이 어려우며, 해자 또한 수목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북문지에서 동문지와 서측 성벽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수목정비와 토사정비를 통해 성벽 면석을 노출시켜 정비한다. 해자의 경우 수목정비를 통해 기존 발굴구간의 해자라인과 북문지 주변의 해자라인을 연결하여 정비한다.

서천읍성 북문지 문구부 시굴조사 현황



구분	1안	2안
발굴 조사 결과	지대석 등 전체 유구 유실	지대석 등 일부 유구 잔존
정비방식	성벽 라인 표시정비	발굴유구 노출정비, 낮은 폐쇄형 보호각 설치
장점	부분 정비로 사업비 절감, 고증 부담 감소	인지성 증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단점	표시정비로 인지성 부족, 사업비 증가	사업비 및 관리비 증가
사례	<p>한양도성 발굴유구 표시정비</p> 	<p>홍주읍성 발굴유구 노출정비</p> 

### 11) 안내시설물 계획

- 현재 서천읍성의 안내시설물은 동문과 남문 주변에 일부 설치되어 있지만 각각의 설치시기가 달라 통일성이 부족하며 읍성의 인지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편의시설 역시 읍성 성벽 치 일부에 벤치가 놓여져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 우선 안내시설물의 경우 국가유산청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통일된 안내판 디자인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성내의 휴식을 위한 벤치를 설치하고, 성내 휴게공간 파고라 및 화장실 등 신설이 필요하다. 방문자센터 앞에는 야외 전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읍성 유적 영상을 제시하여 읍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12) 성안마을 정비계획

- 서천읍성은 조선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천군의 중심지로서 역사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그러나 서천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며 노후되고 침체된 구 도심의 도시형태가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서천읍성은 전형적인 구도심의 노후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조선시대로부터 근대시기에 이르는 문화자원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런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한 가로정비 및 유희시설을 정비하여 서천읍성 주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

#### ■ 가로 정비계획

- 현재 서천읍성 앞 군청로는 차량통행 중심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군청로의 가로정비가 필요하다.
- 남문지~봄의 마을 간 도로와 성안마을 도로는 현재 아스팔트로 조성되어 있으나

화강석 판석과 경계석으로 내부 도로 정비를 한다. 또한 가로변 전신주는 지중화공사를 통해 추진 서천읍성으로 가는 주도로의 보행로를 개선한다. 군청로에 접하여 있는 건물을 가로정비계획에 맞춰 담장 및 건물 외관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 ■ 빈집 활용계획

- 구 군청사의 이전과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서천읍성 성안마을 및 군청로 주변 등 구시가지는 정주민구가 감소하고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물리적인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구시가지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창출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천읍성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 역시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 구도심 내 빈집을 매입 후 마을 전시관 및 교육시설 활용하여 서천의 주요 인물, 서천 동학농민운동, 서천 근대이야기 등 전시를 계획한다. 또한 성안마을 주민 문화카페, 사랑방, 전통숙박체험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방문객들 및 주민들의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한다.

## (2) 활용계획

### 1) 기본구상

#### ■ 서천읍성 명소화 및 브랜드화

- 서천읍성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육성을 통해 국가 사적 승격을 추진한다. 야간경관 명소거리 발굴을 통한 명소화를 추진하며 남문지~동문~서천향교, 남문 상징광장~봄의 마을, 서천역 미곡창고의 3개의 축을 기반으로 명소거리를 조성한다.
- 남문지~동문~서천향교를 잇는 거리에서는 남문유적, 해자, 목책유구를 대상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며 서천읍성에서 보이는 서천읍의 야경을 기획한다. 봄의 마을과 남문 상징광장은 구 군청사를 이용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서천읍성 스토리를 계획하며 역사문화거리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서천역 미곡창고 주변은 근현대문화유산 지정 및 서천군 신청사와 미곡창고를 연계하여 근대건물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 서천 역사문화축제 개발 및 활성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 서천지역의 주요 역사 사건, 서천 중요인물 스토리를 통한 축제 개발 및 국가유산청 활용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재생 연계 군특사업 공모를 통해 읍성 주변 주차장 신설, 성안마을 가로정비, 주민사랑방 설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서천읍성 주변 활성화계획 기본구상도



### 2) 서천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 특성화 계획

- 서천읍성의 정비된 성벽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특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서천읍 랜드마크 공간을 형성하여 낮에 보는 것과는 다른 특징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구 서천군청사 건물(서천마루)의 외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서천의 역사 스토리를 이용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서천읍성 야간경관 예시



### 3) 주변 역사문화자원 연계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계획

- 서천읍성 남문지에서 봄의 마을 간 역사문화의 거리를 설정하여 서천군의 상징거리로 육성한다. 또한 서천읍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탐방프로그램과 서천읍성 역사문화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을 활성화한다. 축제기간 및 주말에는 지역주

민과 지역예술인, 상인, 관광객이 어울리는 참여공간을 만들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서천읍성 역사문화축제 개발은 서천읍 일대 경제활성화와 역사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서천지역과 관련 원형 역사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서천지역의 역사적 주요 사건**
  - 서천 천방사 승려들이 난독을 일으키다.
  - 부관의 억울한 원한을 씻고 공신칭호를 사양하며 초야에 은거한 장강(張江) 조숙(趙肅)
- 서천과 관계한 중요 역사인물 스토리**
  - 서천의 명신 이산보, 충신 장계선, 조태채와 아들 조광빈
- 서천읍성과 연관된 주요 역사자원 연계 스토리**
  - 서천읍치 이건과 읍령 성벽 축성스토리
  - 서천읍성과 동학농민운동
  - 근대시기 서천읍성의 변화
  - 서천읍성의 발굴조사 스토리

**원형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을 중심 개발 · 활용**



### 9. 종합의견

- 서천읍성은 충남의 남서측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보령시, 동쪽으로는 부여군, 남쪽으로는 금강을 건너 전라북도 군산시 및 익산시와 접해 금강 하구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일찍이 고려 때부터 침입 잦았던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 초 만들어진 연해읍성 중 산지형 읍성으로서, 세종 년간에 시작된 본격적인 입성 축조 계획 중 1438년 읍성 축조정책을 주도하던 최윤덕에 의해 서천읍성 축조논의가 되었다.

- 문헌 및 지리지에 서천읍성의 완축 기사가 누락되어 있으나 연접 면천읍성이 1439년(세종 21년) 윤2월 7일에 축성이 시작되어, 그 해 11월 10일에 완료된 것을 감안할 때 서천읍성은 늦어도 1440년(세종 22년 완축)에는 완축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 『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성곽조, 『동국여지지』 성곽조, 『여지도서』 성지조, 『충청도읍지』 성지조, 『대동지지』 성지조, 『서천군지』 등에는 규모가 둘레 1,545척, 2,265척, 3,525척에 높이 9~12척, 10척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치성의 경우 14개소, 17개소, 27개소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 2015년 정밀실측한 결과 둘레는 1,645m이며, 조사 과정에서 치성 16개소가 확인되었다.<sup>1)</sup> 또한, 남문지 부근 지적도에 의하면 동측으로 적대 1개소가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치성은 모두 『충청도읍지』와 같이 17개소가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발굴조사에서는 2017년 동문지와 치성을 확인하여 동문지의 평면형태는 ‘凸’자형으로 문구부는 2.4m 내외가 되는 개거식 성문의 형태이다. 동문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축시기에는 개구부 너비 8.5~8.9m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개거식 평문이 건축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차 발굴조사는 2018년 동문지 남측 성벽에서 동남성우(東南城隅)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체성 동벽은 2차례 정도 수·개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성 외벽 기저부는 지반 강화를 위한 말목지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대석을 상면이 수평을 이루게 놓고 10~15cm 물려서 기단석과 면석을 축조하였다. 면석쌓기는 허튼층쌓기와 네모막돌 층지어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하였으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면석의 크기가 작은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지대석과 연접하여 지대석 밀림방지와 우수(雨水)로 인한 기저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석을 시설하였다. 동남치성은 동벽에서 남벽으로 회절하는 동남 모서리에 체성축조와 동시공정으로 축조되었으며, 치성 외곽에는 지반 강화를 위하여 말목지정을 하였으며, 지대석은 상면이 수평을 이루게 정치하고 기단석과 면석을 허튼층쌓기와 층지어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면석과 면석 사이의 틈새는 괴임돌과 켜기돌로 메운 상태이다. 지대석과 연접하여 박석을 시설하였는데, 체성 구간보다는 넓은 80~100cm 정도의 너비를 나타내고 있다.  
동남성우 적심부 내벽은 크기가 적은 석재를 사용하여 수직에 가깝게 3~4단 축조하다 사선으로 체감하여 축조하였으며 적심부의 기저부 너비는 7m 정도이고 동시공정으로 경사 내탁 하였다.  
해자는 단면 ‘U’ 형으로 외벽은 석재를 사용하여 1m 정도 폭으로 축조하고, 내벽은 경사면의 암반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사용하였다. 해자의 너비는 내벽 어깨선에서 외벽까지 약 5m 정도이며, 높이는 외벽 바닥면에서 약 60cm 정도로 계측

1) 다나건축사사무소, 2015, 「서천군 읍성(서천, 비인, 한산)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된다. 해자 바닥면에서 다수의 소형 주공들이 확인되었는데 방어를 목적으로 조성한 목익흔으로 파악된다.

- 3차 발굴조사는 2019년에 남문지 서쪽 성벽에 대한 조사가 서남성우(西南城隅)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조사결과 체성 외벽의 기저부는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인하여 계단상으로 설계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풍화암반 및 생토면에 회갈색 사질점질토를 다져서 정지한 후 지대석을 정지하였으며 10~20cm 정도 물려서 기단석을 놓고 면석을 허튼층 쌓기로 축조하였다.

체성 적심부 너비는 7m 내외로 계단상으로 체감하여 축조하고 동시공정으로 경사 내탁하였는데, 내탁부의 기저부 너비는 9~10m에 달한다.

조사구간 내에서 서벽과 남벽의 회절부에 축조한 서남성우(西南城隅)와 남문지 서측에 시설한 적대 1개소가 확인되었다.

- 4차 발굴조사는 2020년에 동남성우에서 남문지 사이의 남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체성은 기저부 조성 후 지대석을 정치하고 10~20cm 정도 물려서 기단석을 놓고 면석은 장방형 또는 부정형 석재를 사용하여 층지어쌓기 기법으로 축조하였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점에서의 잔존 높이는 3.3m이다. 지대석과 연접하여 박석을 시설하여 기저부를 보강하였으며 말목 지정흔이 확인된다.

동남성우에서 71m 정도 서측으로 이격하여 치성 1기가 조사되었는데, 양호한 지점에서의 잔존 높이는 3.2m이다.

해자는 체성 지대석에서 8~12m 정도 이격하여 자연지형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대지 조성 후 재굴착하여 시설하였으며, 잔존 깊이는 최대 2m를 나타내고 있다. 2차 시기에 해자 외벽을 석축하여 보완하고 바닥면은 퇴적토상에 목익을 꽃아서 방어력을 높였음이 확인되었다.

체성 남벽과 해자 사이에는 굴착된 수혈 42기가 등간격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 형태는 방형 및 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1~1.9m, 너비 1~1.6m, 잔존 깊이가 15~45cm로 이 수혈에 사선 목익을 시설하여 방어력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2월~22년 4월에는 서천읍성 남측성벽 및 서문지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체성부의 외벽 및 내벽과 치성 2곳, 수혈유구 약 60기, 해자 등을 확인하였으며, 체성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활용한 편축식의 구조로 확인되었다.

- 그 외 내부 관아 및 관련시설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모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서천군지도」에 의하면 서천읍성 안에는 객사, 동헌, 아사, 낙민당, 향청, 군사, 관청, 작청,

서역청, 군기고, 사창좌기청, 군관청 읍창 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서천읍성은 조선시대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서해안의 관문인 서천이라는 입지에 설치된 읍성으로서, 당시의 지형과 성벽 대부분이 잔존하여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발굴조사에 확인된 특이한 16개의 치, 해자,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등으로 구성된 방어시스템, 세종 연간 반포된 축성신도의 초기 법식의 확인이 가능한 등 조선 초기 읍성의 구조와 특징을 원형 그대로 살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주 분황사지 내 사찰지원시설(종무소) 건립 검토

### 가. 제안사항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분황사지」 사찰지원시설(종무소)을 건립하고자 설계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지난 1992년 분황사 발굴조사, 2009년경 구황동원지 발굴조사로 인해 기존 사찰지원시설이 철거되었고, 현재의 종무소가 사역 동측 담장 인근에 샌드위치 판넬조로 이루어진 임시건물에서 사찰의 전반적인 사무 및 스님의 생활공간으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 현재 사찰지원시설의 재료와 외관은 사적 및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분황사의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분황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형태이며,
- 분황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관 보존을 위해 임시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찰지원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종무소 건립 설계안을 사적분과 위원회에 검토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분황사지(사적 / 2019.02.26.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구황동, 분황사)
- (3) 신청내용<사찰지원시설(종무소) 건립>
  - 위치 : 경주 분황사 동편 담장 일원(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83.16㎡, 지상 1층, 목구조
- (4) 신청인 의견
  - 분황사의 사찰지원시설(종무소) 건립을 위하여 세계유산인 분황사지의 경관 보존 및 지하 발굴 유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결정하고자 검토·부의하는 사항임

## 라. 참고사항

### (1) 전문가 자문('25.04.22./화랑문화재연구원장 ○○○)

- 본 의견서는 현재 분황사 경내에 위치한 종무소를 담장 외곽으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선택에 대한 의견서임
- 현재 분황사 담장 동남우는 신라시대 분황사의 남회랑(복랑)과 고려시대 동회랑(단랑)이 교차하는 위치에 해당함
- 남회랑과 동회랑이 만나는 부분과 연접한 구황동 원지의 발굴 결과 분황사와 관련한 뚜렷한 중요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
- 따라서 남회랑 북쪽, 동회랑 동쪽 부지에 소규모 종무소의 건립은 가능함
- 단, 중요유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라시대 분황사 경내가 분명한 지역이므로 유구가 훼손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매장 유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성토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 3. 경주 대릉원 일원 내외 신라월성연구센터(송문대) 진입로 정비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에 위치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신라월성연구센터(송문대) 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 신라월성연구센터 차량 통행 불편 해소

- 현재 진입로는 신라월성연구센터 공사 당시 임시로 포장된 것으로 쇠석 등으로 마감되어 비산먼지 및 요철로 인한 웅덩이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연구센터 출입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 폭이 약 4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과 비상시 소방차 진입 및 발굴현장 출토유물 운반을 위한 대형 무진동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 사적지 주변 경관 개선

- 대릉원 및 재매정 주변은 도로와 경관이 정비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2025 APEC 개최를 앞두고 사적지 주변 경관 정비가 필요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일원

(3) 신청내용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00-3번지 일원 (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 1구역)

○ 사업예산 : 3억원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 총 연장 : 190m(흙콘크리트 포장)

- 도로 폭 : 현황 약 4 m → 계획 6m

※ 인도 포함(인도 총 연장 250m)

- 전주이설 2주

#### (4) 신청인 의견

##### <경주시>

- 현재 진입로는 신라월성연구센터 공사 당시 쇄석 등을 이용하여 임시 포장한 것으로 공사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장 등 진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또한 비산먼지 발생과 상면 파임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 문화유산구역, 1구역의 경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진입로 상면에 연구센터 차량통행으로 인한 깊이 20cm 이상의 파임이 다수 발생, 안전사고 가능성과 통행이 불편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약 4m인 협소한 진입로 폭을 차량교행과 비상시 소방차 진입 및 유물 운반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토록 정비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연구센터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사적지 주변 경관 개선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경주연구소>

- 현재 월성현장에 존치된 대형수침 목재유물(총 603점, 최대길이 6.5m) 및 2014년부터 월성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1만여점의 기와 및 토도류 유물을 신라월성연구센터로 이운하여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나, 지금의 진입로 규모로는 대형 무진동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신라월성연구센터는 연간 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주변으로 사적지와 민가 등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5.05.29./자문위원 : ○○○, ○○○, ○○○)

- 확·포장 대상이 되는 도로는 대릉원(사적지)의 경계 외곽에 해당되는 곳으로 과거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유물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음. 건축행위가 아닌 도로 확·포장이며, 대릉원 입구와 떨어져 있어 대릉원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 관람객들의 월성·해자·월정교를 관람하고 이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동선이 개선됨. 아울러 승문대를 중심으로 재매정과 황남동 고분군(144, 145, 146호분) 등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동선이 마련됨.
- 현행 길은 폭이 좁고, 노면 훼손이 심하여 차량 교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지정구역이 아닌 현행도로 남쪽 약 2m를 포함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되, 보행로를 별도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도로 폭은 인도 1.5m 포함하여 6m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4. 익산 미륵사지 출토 석조 부재 보존 및 활용 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 내 출토 석조 부재 보존 및 활용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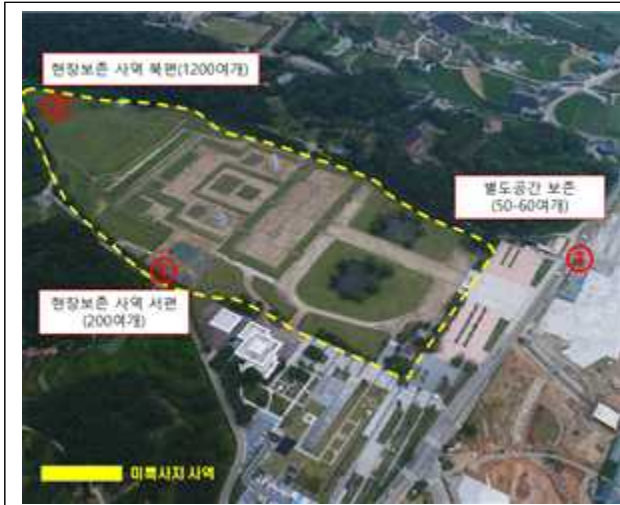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 석조 부재가 장기간 노출 적치되어 있어 변색 및 파손 등 훼손이 진행됨과 더불어 관람객에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 받고자 부의한 사항임
- '25년 4차 위원회('25.04.09.) 검토 : 보류(사업계획 보완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 <미륵사지 출토 석조 부재 보존 및 활용 계획 검토>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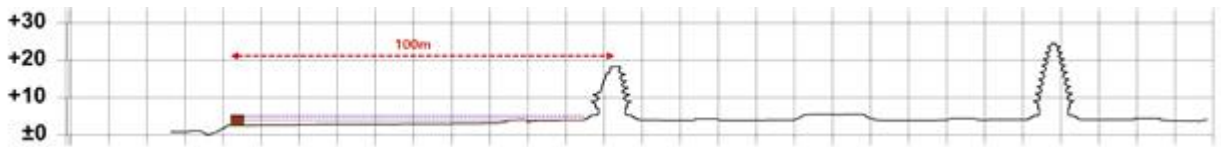
구분	기준	변경
1. 사역 서편 (현장보존)	1. 시설 : 전시시설(보호 겸용) 2. 규모 : 200평 내외 3. 수량 : 석조 부재 200여 개 * 현 야외 적치 면적 : 1,134평(3,750㎡)	1. 시설 : 전시시설 → 보호시설 2. 규모 : 100평 내외 / 1층 * 산출기준 : 2개/평 3. 수량 : 동일
2. 사역 북편 (현장보존)	1. 시설 : 전시관람 편의시설(그늘막, 의자 등) 2. 수량 : 석조부재 1,200여 개	1. 시설 : 미설치 2. 수량 : 동일
3. 별도 공간 (정보센터)	1. 시설 : 보존처리실, 수장고 등 2. 수량 : 50-60여 개 * 산출기준 : 보존처리 및 수장공간 반영	1. 시설 : 동일 2. 수량 : 동일 3. 역할 : 야외 석조 부재 순환 보존처리 * 정보센터 수용 면적에 따라 수량 변경 사항 반영



출토 석조 부재 분산 위치도



1번 사역 서편 현장보존



사역 서편 현장 보존 경관 영향 분석(A-A' 횡단면도)

○ 사업목적

- 미륵사지는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을 통해 동아시아 왕국 간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을 볼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미륵사 전반에 대한 교육, 활용 등 국민들과 공유하고 홍보 기반 마련
- 현재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적치된 석조 부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관람객에게 보이고, 자연환경으로부터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선별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 필요

□ 석조 부재 현황



석조 부재 야외 노출 현황



석조 부재 관람 현황

(4) 신청인 의견

- 익산 미륵사지 출토 석조 부재 보존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검토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관련분야 전문가의견('25.03.26./문화유산위원 ○○○, ○○○, ○○○)

- 미륵사지 출토 부재에 대한 전시는 의미가 있음
- 다만, '미륵사 정보센터(증축예정)'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역 서편 석재 야외전시에 대한 필요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역의 규모와 관람 동선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람 편의시설 및 유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기본 방향 및 근거

- 익산 미륵사지는 세계유산이면서, 국가 사적으로 사역 내 출토 및 수습된  
석조 부재는 건축물(건물지, 석탑 등)의 구성 부재로써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국가유산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사적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원형유지」 용어 해석을  
출토 석조 부재에 적용하였을 때 미륵사지 사역 내 보존 검토 필요
- 더불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재 당시 석조 부재가 사역 내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국가유산 기본법 제7조>

\*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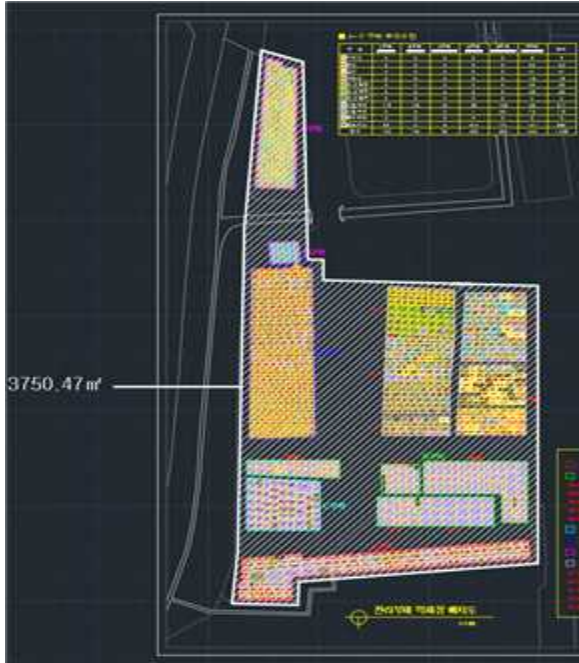
\* II.F (보호와 관리)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조건을 포함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하거나 점차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3) 미륵사지 출토 석조 부재 야외 적치 현황

- 출토 석조 부재는 과거 사역 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사역

서편으로 이동하여 보존하고 있음

- 야외 적치 면적은 약 1,134평(3,750m<sup>2</sup>)임
- 장기간 자연 환경 노출에 따라 보존환경이 흉물화되고 있으며, 석재 부재 훼손화가 진행되고 있음



<미륵사지 출토부재 배치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5. 부여 송국리 유적 내 방문자센터 기본설계(안) 검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부여 송국리 유적」 내 방문자센터 기본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5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여 송국리 유적 방문자센터」 기본설계(안)을 검토받고자 부의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명 : 부여 송국리 유적(사적 / 1976.12.3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225-1번지 등 14필지

(3) 신청내용<방문자센터 기본설계(안) 검토>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225-1 외 14필지(문화유산(보호)구역)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9,898㎡, 지상 2층

- 건축면적 : 929㎡(연면적 1,300㎡, 최고높이 8.8m)

- 구성 : 방문자영역(전시실, 라운지, 다목적실, 안내데스크), 사무영역(사무실), 공용면적(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목적

- 송국리 유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주거지, 건물지, 목주열, 분묘 등이 확인됨. 유적의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함.

- 송국리 유적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에 대한 송국리 유적의 인지도 개선과 관람, 체험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함.

(4) 신청인 의견

- 부여 송국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부여 송국리 유적의 경관

보존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위치, 형태, 구조 등을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의견('25.06.05./문화유산위원 ○○○, ○○○)

- 유적 성토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체험관과 자료관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토대지와 대규모의 목주열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시설은 철거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체험관과 자료관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서 성토 대지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대체시설(방문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단순히 방문자센터가 아니라 일정부분 전시·체험 공간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3.02. :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 의결
- '23.05. : 송국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완료
- '23.08. : 송국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완료
- '23.12. : 송국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4.06. :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
- '24.12. :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 완료
- '25.06. :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검토
- '25. :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
- '26. :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
- '27. : 방문자센터 건립 준공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6.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주변 정비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주변 정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주변 정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받고자 부의함.
- '23년 4차 소위원회('23.06.28.)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자료 마련 후 재심의
- '23년 5차 소위원회('23.08.23.) 조건부가결 : 초화류 식재 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명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사적 / 1998.09.17. 지정)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번지 일원, 춘양면 대신리 외
- (3) 신청내용<주변 정비>
  - 위치 :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487번지 등{문화유산구역 인접/1구역 (개별검토)}
  - 사업내용 : 수목·초화류 식재 및 주차장 조성 등(면적 35,969㎡)

구분	허가사항	변경사항	원상회복 계획
주차장	① 26대 수용	78대 수용	원상회복(26대 수용)
	② -	32대 수용	원상회복(주차장 철거)
식재	수목(3종 4,948주) - 이팝나무, 느티나무, 진달래	이팝나무, 느티나무, 가시나무, 팽나무, 국수나무 등 식재	진달래 → 쪽부쟁이로 식재
	초화류(10종 233,080주) - 감국, 감초, 고사리 등	조팝, 붓들레아, 셀릭스 등으로 변경 식재	감국, 억새, 도라지, 고사리 등 추가 식재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07.14./전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화순 지식묘군 연접 1구역에 1만평 정도의 규모로 주차장과 화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활성화와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 단, 지형조성, 수종, 동선 구성, 주차장 위치, 지식묘군과 어울리는 조경 구성, 선사 경관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재검토함이 적절하겠음.

### (2) 관계전문가 의견('23.07.26./전 문화유산위원 ○○○)

- 관람동선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유기적인 관람 형태를 가지도록 한다.
- 가운데 잔디밭은 면적을 축소하고 형태를 다듬는다.
- 관람동선 적당한 곳에 휴식공간 및 포토존을 추가로 더 설치한다.
- 주차장 형태를 가다듬는다.
- 조경시설물은 현대적인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기타시설(티하우스)은 간이시설로 설치한다.
- 조화류 종류를 확대하여 심는다.

### (3) 관계전문가 의견('23.08.02./전 문화유산위원 ○○○)

- 화순 고인돌 유적 주변정비에 관한 자문내용은 1차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내용으로는 부지 내부의 관람동선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조화류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며 주차장의 평면 형태를 고치는 것이었음.
- 2차 검토결과 위의('23.7.26.)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포토존이나 쉼터 부분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의 교목을 식재하여 탐방객들에게 그들은 제공할 것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거쳐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5-06-036

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미륵사지」 내 호우피해 등산로 긴급 보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35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2024년 호우피해 등산로 긴급보수(2차)>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산 24(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5월~8월 - 목재 테크설치(2개소) : 116㎡ · 산24번지 : 39㎡(L: 19.7m×B: 1.8m) · 산103번지 : 77㎡(L: 18.0m×B: 1.8m)	허가	'25.05.14.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산사태 재해복구를 위한 사방댐 설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 891번지 2호(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434㎡(산81-2번지 1,357㎡, 산77-8번지 77㎡) - 공사내용(콘크리트댐) · 사방댐 : 상 33M, 하24M, 높이 4.5M · 기슭막이(기초유) : 높이 1.34~2.3M / 106M · 큰돌골막이 : 상9M, 하6.5M, 고2.5M / 1개소 · 산돌쌓기 : 높이 0.9M / 18M · 바닥찰붙임 : 12㎡ · CON/C 덮개 : 5 × 2 / 1개소 · 능형망웁스 : 높이 1.5M / 40M	허가	'25.05.14.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lt;육군부사관학교 사격장 방화지대 수목제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 245번지 1호(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4,060㎡(방화지대 길이 140m, 폭10~15m)</li> <li>- 수목제거 : 80주(잡목)</li> </ul> </li> </ul>	허가	'25.05.30.
사적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p>&lt;2024년 수해복구(사면재해복구 및 임목강전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31번지 1호 외(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687㎡</li> <li>- 수목정비 : 낙엽수 14주(B=21~31cm 이상 9주 / B=11~21cm 미만 5주)</li> <li>- 배수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벽 pe관설치 : D=600mm, L=40m</li> <li>· U형 측구 : 0.6×0.5~0.7, L=42m</li> <li>· 석축쌓기 : H=4m(노출높이 3m), L=13m</li> <li>· 집수정 설치 : 900×900(1개)</li> </ul> </li> </ul> </li> </ul>	허가	'25.05.29.
사적 부여 가림성	충남 부여군	○○○	<p>&lt;편의시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지 167(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 설치(평의자 6개 설치, 1600×435×545(mm))</li> </ul> </li> </ul>	허가	'25.05.29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	<p>&lt;전국TOP 10 가요 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무대(29,910mm×16,860mm×10,205mm) 1식, 조명타워(4,000mm×4,000mm×10,205mm) 1식</li> <li>- MQ천막(5,000mm×5,000mm×5,200mm) 8동, 카메라단(2,000mm×2,000mm×1,000mm) 3단</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설치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등</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19.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	<p>&lt;보호구역 내 탐방로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문화유산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8,800㎡</li> <li>- 흙콘크리트 포장 1,440㎡(THK 120 742㎡/THK 150 698㎡), 자연석배수로 L=78.75m, 잔디배수로 386m, 우수 맨홀 5개소</li> </ul> </li> <li>○ 허가조건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조건부 허가	'25.05.19.
사적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	<p>&lt;대지 내 옹벽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6번지 3호 외 3필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626㎡</li> <li>- 옹벽(식생) 설치 : H=4.5m 이하, L=121.1m</li> </ul> </li> </ul>	허가	'25.06.04.
사적 남한산성,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보도(보행로)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남한산성 동문일원(지방도34호선)(문화유산구역 내외)</li> <li>- 남한산성구간 : 문화유산구역 내외/1, 3구역</li> <li>- 광주 조선백자 요지 구간 : 1, 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 구간 보도설치 1,131.5m(중 4.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구간(콘크리트 깔라블럭) 360m</li> <li>· 일반구간(친환경 테크보도) 757.5m(중 4.5m)</li> <li>· 교량구간(목재테크+알루미늄 난간) 14m</li> <li>· 석축보수 3개소</li> </ul> </li> <li>- 광주 조선백자 요지 구간 1,7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구간(콘크리트 깔라블럭) 1,744m</li> <li>· 교량구간(목재테크+알루미늄 난간) 36m</li> </ul> </li> </ul> </li> </ul>	허가	'25.05.19.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가설건축물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5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5.8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680㎡</li> <li>- 건축면적/연면적 : 32.73㎡ / 32.73㎡</li> <li>- 층수/높이 : 1층 / 3.53m</li> </ul> </li> <li>○ 허가조건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조건부 허가	'25.05.26.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p>&lt;2025 헤리티지 콘서트 개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 외 7필지(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무대 1식(18m×13.5m×0.9m)</li> <li>- 레이아웃구조물 : 최대 폭 35m×최대높이 10.9m</li> <li>- 몽골텐트 11동(3m×3m×5m 9동 / 5m×5m×5m 2동)</li> <li>- 자바라 텐트 11동(3m×6m×4m)</li> <li>- 이동식화장실 1동(3m×6m×3m)</li> <li>- 조명타워 1개(4m×8m×4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설치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등</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28.
사적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lt;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7번지 외 6필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지(2,020㎡) : 모듈장수=282장, h=2.28m, 모듈판면적=781.14㎡, 전기생산량=239.7kW</li> <li>- 2단지(6,476㎡) : 모듈장수=1,427장, h=2.62m, 모듈판면적=3,952.79㎡, 전기생산량=998.9kW</li> <li>- 3단지(4,311㎡) : 모듈장수=798장, h=2.62m, 모듈판면적=2,210.46㎡, 전기생산량=598.5kW</li> <li>- 4단지(3,983㎡) : 모듈장수=811장, h=2.62m, 모듈판면적=2,246.47㎡, 전기생산량=608.25kW</li> </ul> </li> </ul>	허가	'25.06.04.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lt;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70번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367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 7,148.0㎡</li> <li>- 시설(모듈판) 면적 : 3,955.56㎡</li> <li>- 구조 : 태양광 모듈</li> <li>- 모듈판 장수 : 1,428대</li> <li>- 높이 : 2.28m</li> <li>- 전기생산량 : 999.6kW</li> </ul> </li> </ul>	허가	'25.06.04.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p>&lt;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52번지 외 2필지(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26m 이격/2-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782㎡</li> <li>- 건축면적/연면적 : 431.32㎡/740.22㎡</li> <li>- 층수/높이 : 지상3층/12.85m(경사지붕)</li> <li>-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철골 구조</li> <li>- 부지조성 : 콘크리트옹벽 설치(H=1m ~4.2m, L=63.7m)</li> </ul> </li> </ul> <p>※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사항임</p>	허가	'25.06.04.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	<p>&lt;선덕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71-1 외 5필지 내(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24,068㎡</li> <li>· 금회 증축 건축면적 : 51.50㎡</li> <li>· 금회 증축 건물높이 4.65m</li> </ul> </li> <li>-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파기·되메우기 : 없음</li> </ul> </li> </ul> </li> </ul>	허가	'25.05.09.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	<p>&lt;원화로 가로등 교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1-1 일원(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가로등(테이퍼형) 철거 32본</li> <li>- 열주형 가로등 설치 32본, 가로등자동점멸기 교체 1개소</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 행위 시 매장유산 참관조사 시행</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22.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사적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경주 계림, 경주 월성</p>	<p>경북 경주시</p>	<p>○○○</p>	<p>&lt;신라달빛기행 행사&gt;  ○ 위치 : (문화유산구역)  ① 경북 경주시 교동 274(월정교 남쪽 문앞 광장)  ② 경북 경주시 교동 1(계림 숲 입구)  ③ 경북 경주시 인왕동 853(월성해자)  ○ 사업내용  - 허가일정 : 2025.5.10. / 6..14.. / 9.6. / 10.18.  - 행사내용 : 관광 프로그램  ① 경주시 교동 274  · 무대설치  · 음향 : 음향 10kW P.A system 및 악세서리  · 조명 : LED 무빙, 주피터, Par Light 등 조명 장비 일체  · 무대 : 무대사이즈(9,000×2,700×600), 행사용 플라스틱의자 200개  · 부스 : 자바라 텐트(3m×6m)3개, 몽골텐트(3m×3m)3개, 접이식테이블(1800×900) 10개  ② 경북 경주시 교동 1  - 무대설치 없음  - 에어 달 조형물(2M)  ③ 경북 경주시 인왕동 853  - 무대설치 없음  - 물품 : 접이식테이블(1800×900) 1개, 천문관 측망원경 2대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 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유산 구역 환경정리 철저</p>	<p>조건부 허가</p>	<p>'25.05.09.</p>
<p>사적 경주 옥산서원</p>	<p>경북 경주시</p>	<p>○○○</p>	<p>&lt;유수지장목 제거&gt;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1번지 일원(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옥산서원 초입 옥산천 유수지장목벌목  - 벌목범위 A=1,516㎡</p>	<p>허가</p>	<p>'25.05.22.</p>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lt;마애선각입상 보존처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1(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남산 지암곡 제4사지 마애선각 입상 세척 및 보존처리</li> <li>- 조립식 비계 가설 후 건식 세척(2회) 및 암석강화처리(3회)</li> <li>- 마애선각입상 중심으로 암반 면적의 60% 범위인 약 24㎡ 진행(암반 높이 약 8m, 너비 약 5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처리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22.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lt;쪽샘지구 시설물 정비(허가사항 변경 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원화로 189 일원 (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승인</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주차장 정비</td> <td>(총 494대)</td> <td>(총 496대)</td> </tr> <tr> <td>화강석 경계석</td> <td>철거(L=18.0M) 후 신재설치 (L=16.1M)</td> <td>경계석 철거 (L=140.05m)</td> </tr> <tr> <td>보도블럭</td> <td>스톤블럭 보수 - 기존 스톤블 럭 철거 후 스 톤블럭 포장 (A=3,747.33㎡) 재사용률 : 30%</td> <td>투수블럭 보수 재사용률 : 50%- 기존 투 수블럭 철거 (A = 5,191㎡) 후 블록 포장 (A=4,030㎡)</td> </tr> <tr> <td>아스콘포 장</td> <td>(A=943.48㎡)</td> <td>(A=884.60㎡)</td> </tr> <tr> <td>블라드</td> <td>이동식 화강석 블라드 설치 23EA(1m간격)</td> <td>탄성 블라드 설치 19EA(1m 간격)</td> </tr> <tr> <td>흙콘크리 트 포장</td> <td>A=47.39㎡</td> <td>A=297㎡</td> </tr> <tr> <td>과속방지 턱</td> <td>-</td> <td>( B = 2 . 0 m ) L=118m</td> </tr> <tr> <td>화단설치</td> <td>-</td> <td>2개소 - 화단, 잔디식재(평 때 150.95㎡)</td> </tr> </tbody> </table>	구분	승인	변경	주차장 정비	(총 494대)	(총 496대)	화강석 경계석	철거(L=18.0M) 후 신재설치 (L=16.1M)	경계석 철거 (L=140.05m)	보도블럭	스톤블럭 보수 - 기존 스톤블 럭 철거 후 스 톤블럭 포장 (A=3,747.33㎡) 재사용률 : 30%	투수블럭 보수 재사용률 : 50%- 기존 투 수블럭 철거 (A = 5,191㎡) 후 블록 포장 (A=4,030㎡)	아스콘포 장	(A=943.48㎡)	(A=884.60㎡)	블라드	이동식 화강석 블라드 설치 23EA(1m간격)	탄성 블라드 설치 19EA(1m 간격)	흙콘크리 트 포장	A=47.39㎡	A=297㎡	과속방지 턱	-	( B = 2 . 0 m ) L=118m	화단설치	-	2개소 - 화단, 잔디식재(평 때 150.95㎡)	허가	'25.05.22.
구분	승인	변경																														
주차장 정비	(총 494대)	(총 496대)																														
화강석 경계석	철거(L=18.0M) 후 신재설치 (L=16.1M)	경계석 철거 (L=140.05m)																														
보도블럭	스톤블럭 보수 - 기존 스톤블 럭 철거 후 스 톤블럭 포장 (A=3,747.33㎡) 재사용률 : 30%	투수블럭 보수 재사용률 : 50%- 기존 투 수블럭 철거 (A = 5,191㎡) 후 블록 포장 (A=4,030㎡)																														
아스콘포 장	(A=943.48㎡)	(A=884.60㎡)																														
블라드	이동식 화강석 블라드 설치 23EA(1m간격)	탄성 블라드 설치 19EA(1m 간격)																														
흙콘크리 트 포장	A=47.39㎡	A=297㎡																														
과속방지 턱	-	( B = 2 . 0 m ) L=118m																														
화단설치	-	2개소 - 화단, 잔디식재(평 때 150.95㎡)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의정부지	서울시 종로구	○○○	<p>&lt;kbs 대선 개표 생방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5(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KBS 대선 개표 생방송</li> <li>- 일시 : 2025.6.3.(화)</li> <li>- 설치시설물 : K큐브스튜디오 1식(너비15m×폭11m×높이9m), 카메라2대, 조명기등 4개소 설치</li> </ul> </li> <li>○ 허가기간 : 2025-05-27부터 2025-06-04까지</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계획서대로 시행하되, 해당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생방송 운영 등 전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 등에 대해 해당 사적 '의정부지' 관리단체인 서울특별시(문화유산활용과)와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실시할 것</li> <li>- 문화유산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li> <li>- 문화유산 훼손 방지 대책, 긴급사항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하여 조치한 후 시행</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13.
사적 서울 몽촌토성	서울시 송파구	○○○	<p>&lt;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 88-1, 88-21(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3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의 광장 판석교체사업 조정·전기·통신</li> <li>- 허가기간 : 2025-05-26부터 2025-12-31</li> </ul> </li> </ul>	허가	'25.05.26.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lt;전주교체 및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23, 506, 219-4(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교체공사 2개소(2.88㎡), 기울어진 전주 정비 1개소</li> <li>- 허가기간 : 2025-05-28부터 2025-06-30</li> </ul> </li> </ul>	허가	'25.05.27.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p>&lt;흙먼지떨이기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99-3, 240(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먼지떨이기 2개소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5-05-28부터 2025-09-30</li> </ul> </li> <li>○ 허가조건 : 지하부 굴착 시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li> </ul>	조건부 허가	'25.05.28.
사적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	<p>&lt;수목제거된 사면 보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25.05.29. ~ 08.31.</li> <li>- 벌채 사면 위 식생매트, 지피류 등 식재(면적 : 3,300㎡)</li> <li>- 상부 우수 유도 자연배수골 설치(길이 : 186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배수로는 지형에 맞게 설치</li> <li>- 방화수목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원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종 선택</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28.
사적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	<p>&lt;토요일이 즐거워 행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김해시 왕릉길 26(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일 : 2025.05.24.</li> <li>- 천막(부스) : 3m×3m, 2개 / 테이블 : 1.8m×0.74m, 2개</li> <li>- 음향기기 1기, 간이의자 5개, 돛자리 등</li> </ul> </li> </ul>	허가	'25.05.13.
사적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	<p>&lt;수로왕의 가야한상 피크닉 행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김해시 왕릉길 26(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25.06.06. ~ 2025.06.21.</li> <li>- 천막(가로5m×높이3m, 2개), 그늘막(5m, 3개)</li> <li>- 파라솔(높이2.2m, 높이2.4m, 2개), 테이블(가로1.8m×0.74m, 4개)</li> <li>- 간이의자 20개, 캠핑의자 8개, 빈백 5개, 돛자리 20여개, 음향기기 1식 등</li> </ul> </li> </ul>	허가	'25.06.04.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	<p>&lt;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 2025.06.05. ~ 2025.12.31.</li> <li>- 고사목제거 1주 및 가지치기</li> </ul> </li> </ul>	허가	'25.06.04.
사적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도 제주시	○○○	<p>&lt;가설건축물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27번지(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 컨테이너 1동 설치(감골 및 농기계 보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27.95㎡, 높이 2.27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설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15.
사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	<p>&lt;셉터 조성(기존 주택 활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고창군 죽림리 691-19(문화유산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건축면적 95.85㎡, 높이 약 6.5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디자인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할 것</li> <li>*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 기본설계(고창군, 2007.12.) 참조</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19.
사적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	<p>&lt;보호구역 내 교육행사 개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고창군 죽림리 746-2(문화유산보호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5.06.18.(수) ~ 6.20.(금)</li> <li>- 장소 :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호구역 내 선사마을</li> <li>- 교육내용 : 토기제작 교육(제작, 소성 포함)</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사마을 내 기 조성된 화덕에서 토기를 소성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25.05.19.

문화유산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전북 김제시	○○○	<b>&lt;도로 정비&gt;</b> ○ 위치 : 전북 김제시 교동 57-3일원(문화유산구역과 연접/1, 2-2구역) ○ 사업내용 : 중로 1-9호선 확장 정비 - 연장 172m, 폭 14.5(도로 7m, 인도 7.5m) → 25.5m(도로 12m, 인도 13.5m) - 이팝나무 등 식재 ○ 허가조건 - 조경계획 관련 관계전문가와 협의 후 시행	조건부 허가	'25.05.21.
사적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남 나주시	○○○	<b>&lt;안내시설 설치&gt;</b> ○ 위치 : 전남 나주시 복암리 873-18(문화유산구역) ○ 사업내용 - 채널 간판 (나주 복암리 고분군) ○ 허가조건 - 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25.05.19.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b>&lt;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gt;</b>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868-3 (문화유산구역으로부터 115m 이격 /2-1구역) ○ 변경내용 : 태양광 패널 면적 변경 - (기존 건물 상부) 당초 313.04㎡ → 330.9㎡/높이 변경 없음 - (지상주차장) 당초 293.48㎡ → 297.7㎡/높이 변경 없음	허가	'25.05.19.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시 광산구	○○○	<b>&lt;보행환경 개선(포장 교체)&gt;</b>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173번지 일원(문화유산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연장 160m, 폭 2m - (당초) 관석 포장 → (변경) 황토콘크리트 포장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전문가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5.05.21.

####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접수 11명